

현각 스님 성불복지회 이사장
"복지 · 포교 · 환경운동 대중과 함께하는 수행"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6월 17일) · 주간

제950호 2013년 7월 24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법구경

우리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 성난 마음은 착한 마음을 태운다.

사찰들 TI로 '브랜드 포교'

〈Temple Identity〉

애플, 삼성, 나이키, 샤넬, 스타벅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은 그들의 로고가 이다. 기업의 CI (Corporate Identity)라고도 하는 이 로고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CI에 기업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담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

이런 CI가 불교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일명 'TI(Temple Identity)'. 말하자면 사찰 로고다. 조계사, 봉은사, 봉녕사, 한마음선원, 정토회 등 사찰과 재가수행단체는 만(卍)자 대신 고유의 TI와 마스코트를 사용해 그들의 정통성과 역사성, 동시에 부처님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알리고 있다.



사찰과 재가수행단체들이 만(卍)자 대신 고유의 TI와 마스코트를 사용해 그들의 정통성과 역사성, 동시에 부처님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알리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계사, 봉은사, 정토회, 한마음선원, 봉녕사 TI(Temple Identity)와 마스코트.

불교 대중화 강화 위해 본사 · 대형사찰 관심 필요
제작비용 숙제…일반 대상 공모전 '해법'

명함 · 티셔츠 등 활용 '인기'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웅전에 있는 청사자와 신중단의 동진보살을 마스코트로 형상화했다. 청사자에 올라탄 어린이가 네 잎의 연꽃을 들고 있는 귀여운 모습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조계사는 대표 마스코트를 합장 · 발우공양 · 축구하는 모습 등 다양하게 표현해 티셔츠에 새겨 조계사 용품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조계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를 친근한 이미지로 만들어 홍보하니 내 · 외국인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조계사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2008년 봉은사 TI 선포식을 갖고 심볼마크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대표사찰로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좌선하고 있는 모습을 심플하게 표현한 TI는 명함, 공문서, 홈페이지, 사보 등 봉은사를 알리는 모든 데에 사용되고 있다.

심상태 봉은사 총무팀 행정관은 "예전에는 괘불을 모티브로 한 TI를 사용해도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지금의 TI를 모든 매체와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많은 불자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봉은사만의 특색이 담긴 TI는 포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2012년 7월 봉녕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TI를 만들었다. 봉녕사 TI는 800년간 봉녕사를 지킨 향나무 위로 봉황이 날고, 아래에는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봉녕사 재무담당 정원 스님은 "최근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했을 때 봉녕사 스님들은 모두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다들 예쁘다며 반응이 좋았다. 공항에서도 배지를 보고 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며 "봉녕사 TI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선물용 USB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999년 심볼마크를 제작, 2004년에 현재 사용하는 최종 TI를 완성했다. TI는 한마음선원의 칠보탑(우주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세 개의 원은 과거 · 현재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삼세가 공한 이치를 의미한다. 선원은 TI를 2001년 9월부터 상표 · 서비스표로 등록해 국 · 내외 지원에서 발행되는 책과 정기간행물 등 각종 인쇄물과 판촉물, 웹사이트 등 모든 상품에 활용하고 있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도 TI를 통해 다양한 홈페이지, 플랜카드 등 다양한 판촉물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 종단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장을 디자인해 사용하고 있다.

단순하고 대중적인 것이 관건

TI를 통해 사찰고유의 특성을 이미지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대다수 사찰이 사찰만의 전통적 특성을 살리려다 보니 유사한 경우가 많고 크게 차별화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응철 중앙 승가대 교수는 "대웅전이나 불상 등 전통적인 불교를 소재로 TI를 만들기 보다는 사찰의 특징을 살리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며 "교구본사나 대형 사찰 단위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교의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I가 포교효과가 있음은 자명하지만 관건은 비용문제다. TI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까지 들기 때문.

김 교수는 "일반시민과 대학생 등 대상으로 공모전을 거쳐 시안을 모집하면 응모자가 사찰과 불교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포교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도산 스님〈사진 오른쪽〉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당선

"시급한 현안문제 종도들과 해결"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 前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이 당선됐다.

7월 18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제 2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총 146명 중 68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어 이날 선거에서는 월운 스님이 37표, 수열 스님 29표, 백운 스님은 9표, 무효표 1표, 불참(기권) 2표 등의 결과가 나왔다.

당선증을 교부받은 직후 도산 스님은 소감을 통해 "선거 기간 내내 지지해준 종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종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고종단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종무행정을 개편해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문제를 종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 스님은 "종단의 교육기관도 새로 정비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엄중한 종법질서 확립을 통해 승려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1957년 내장사에서 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60년 내장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보우승가회 회장과 제11대, 13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13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충담문도회 회장, 복지법인 제주태고원 노인전문요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도산 스님의 임기는 9월 22일부터 4년간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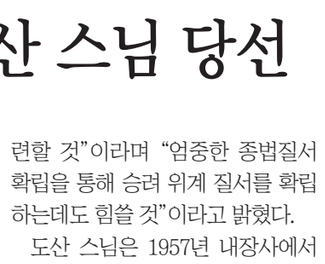
행복만들기 봉사단 '힐링광장' 출범

7월 25일 부산 삼광사서 창단식 열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행복만들기 대사회운동인 '힐링광장'을 출범한다.

'힐링광장'은 동체대비심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몸과 마음의 다스림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는 순수한 봉사단체다.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삼광서서 출범식을 갖는 '힐링광장'은 힐링다문화지원단, 힐링육아돌봄이사업단, 힐링국제봉사단, 힐링녹색자연지킴이단, 힐링법률자문단, 힐링재난극복긴급구호단, 힐링예술문화사업단, 힐링색소폰합주단, 힐링재능기부단, 힐링테플스테이사업단 등 산하단체를 구성해 어린이, 청소년, 법률, 의료, 국제, 봉사 등 각 분야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힐링광장을 기획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그늘진 곳을 찾아가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심신의 병을 치유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국사 석가탑서 발굴된 금동불입상

불국사 석가탑 기단서 소형 불상 발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와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 기단 속에서 금동불입상(金銅佛立像) 1점을 발견했다.

이 불상은 7월 17일 불국사 삼층석탑 상층기단 면석 해체를 위하여 기단 내부 적심석을 수습하던 중 발견됐다. 발견위치는 북측 상층기단 면석 외곽에서 석탑 중심부 쪽으로 48㎝, 동측 상층기단 면석 외곽에서 석탑 중심부 쪽으로 100㎝ 지점이다.

수습된 불상은 통주식(通鑄式)으로 주조된 소형 금동불입상으로 높이 4.6㎝, 대좌지름 2.3㎝ 크기이며, 도금 흔적이 미세하게 확인된다. 법의(法衣)는 통견식(通肩式,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형식)으로 착의하고, 양손은 일부 훼손됐으나 시무외 · 여원인(施無畏 · 與願印, 通印)을 결하고 있다. 상호(相好, 부처님의 얼굴) 역시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우나 동그란 얼굴에 육계(머리 위에 튀어나온 부분)가 우뚝하게 표현되어 있고, 등 뒤에는 광배(光背,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것)를 꽂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촉이 돌출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불상이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탑이 조성된 742년 진단구(鎭壇具, 건물의 기단 등에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납한 각종 물건)의 성격으로 납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66년 발견된 불국사 서석탑중수형지기에 따르면, 석탑 보수는 1038년 진행됐는데 불상은 이때 재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50호 INDEX

시방세계 5
조계종 · 화천군 합동위령제



강의실중계 8
강신주 박사 진흥원 화요강좌



지역 10 · 11
남산 승련사 개발론 '몸살'
원오사 방학 방과후학교

청계사 108선원순례 12

해외 18
해외스타, 불교로 제2의 삶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생각과 산란심이 없는 마음은

미인의 거울과 같으니

마음은 이론적인 교리에서 벗어난 자유로는 것이다.

한 번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의식적으로 마음의 본성을 돌이켜 생각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수식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음은 '명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한 통합 상태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본존들을 관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은 일상의 잡념이나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애쓰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본성 그 자체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자각은 기분이 좋다거나 불쾌하다거나 하는 지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저 그렇게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거울에 아름다운 얼굴이 비칠 때 거울이 황홀함을 느끼거나 못생긴 얼굴에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거울이 모든 사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비추듯 깨달은 자 역시 궁극적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모든 현상을 명료하게 인지합니다.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는 거울의 일부도 아니고, 거울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사물의 궁즉적 실재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존재, 비존재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나의 견해를 반박하지 못할 것이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법계, 전문 직무 활용하도록 바꿔야"

조계종 교육위, 18일 '법계별 교육' 종책 세미나



조계종 교육위원회는 7월 18일 종책세미나를 열고 법계별 교육과 고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계별로 가져야 하는 기본적 능력과 경력을 충분히 갖췄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온전히 갖출 때까지 법계 수여를 유보해야 한다."

조계종의 현행 법계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찬회가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조계종 법계 제도가 스님들의 전문 직무 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종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는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법계별 교육과 종단적 역할'을 주제로 종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법계별 교육과 고시, 종단적 역할'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교육원이 2010년부터 시행한 승려연수교육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 하지만 승납별로 구분하지 않고 진행돼 승납 · 법계별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계별로 소임과 위계를 정하고 있는 우리 종단에서는 법계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경 스님은 "법계별 교육이 일상적 강좌에서 벗어나 현장체험과 토론 등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법계별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내놨다.

막 법계를 받는 승납 5년차의 견덕과 계덕의 경우 사찰 대중소임을 살며 사찰 운영방법과 전법 포교 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덕 · 정덕은 후학 지도와 신도 교육, 사찰 운영의 마인드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주경 스님의 제안이다.

법계에 맞는 전문 교육 필요

통합인사시스템 통해 종단 활용

"현행 법계 상향 조정" 주장

특별고시제 도입 의견도

또한 본사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담당할 수 있는 대덕 · 혜덕은 신도 임원교육과 교구 및 종단,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지도력을 갖추는 교육이, 승납 25년차 이상의 종덕 · 현덕은 한국사회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납 30년 이상의 종사 · 명덕 법계는 사회와 종단의 지도자인 만큼 현대 인류의 과제를 이해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경 스님은 "법계를 품수한 당해 년도에 2박 3일에서 10여 일간의 집중 심화교육이 진행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주요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법계별 승가고시에 대해서는 "각 법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고시 사정 기준도 수행과 소임 경력, 면접 등 수행과 전법교화에 필요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종단 법계제도의 의미와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 일률적인 법계가 '법계 경시'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계를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안 스님은 "현행 법계의 상향 조정하고 특별 고시제를 시행해 직무의 전문성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패, 단청, 불화 등 기능직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각 직무분야의 법계를 부여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밀운 스님 비구계 수지 문제 전혀 없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 기자회견, 계첩 · 사진 전부 공개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는 설조 스님의 폭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밀운 스님은 7월 17일 봉선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조 스님의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비구계첩, 계맥과 사진들을 전부 공개했다.


밀운 스님이 7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스님의 계첩.

밀운 스님은 "월운 스님이 당시 봉선사 교무국장 소임을 보고 있었고, 나를 운허 스님 밑으로 건당시키기 위해 비구계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며 "그래서 1971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동안 비구계와 보살계단이 이뤄졌고 나를 비롯한 7,8명의 스님이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렇게 비구계를 받고 운허 스님 앞으로 건당하게 됐고 이후 봉선사 문중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10년간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행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하사관은 영외 거주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절에서 하숙하면서 군 생활을 했다"며 "술, 담배는 일절 손에도 대지 않았고, 참선 수행을 더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밀운 스님은 스스로 모든 자료를 공개한 만큼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스님은 "설조 스님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문중과 상좌들이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절 내가 막았다"며 "수행자는 계를 받을 때 남의 허물을 보지 말 것을 약속받는다. 설조 스님에 대한 고소 등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봉선사=신중일 기자

2013 회당문화축제 7월 30~31일 개최

콘서트, 독도관련 체험행사 등 울릉도서

'금강독도,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한 2013 회당문화축제가 7월 30, 31일 양일간 울릉도에서 열린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음악콘서트, 독도관련체험 등이 진행된다. 공연행사는 7월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릴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로 문을 연다. 이 공연에 이어 7월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는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보경씨를 비롯해 특별초청밴드 크라잉넛과 동물원, 걸그룹 비피팝 등이 출연한 '독도아리랑 콘서트'도 마련된다. 또한 샌드애니메이션 윤혜진 작가의 독도사랑퍼포먼스, 울릉경비대의 특공무술시범, 화합과 번영의 풍등날리기도 등도 펼쳐진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군부대 위문품증서 전달 및 독도 관련 영상물상영도 마련되며 '금강독도, 독도아리랑' 메시지도 함께 전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법인법 반대' 의지 재확인"

선학원, 지역별 중진분원장 회의

(재)선학원이 지역별 중진분원장 회의를 마쳤다. 지역별 분원장 회의는 7월 12일 서울 · 경기 · 강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15일), 부산경남지역(18일) 등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분원장 회의에서는 법인 이사회가 '법인법'을 거부하고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참석 분원장 스님들은 △법인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단 이사회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문에 서명날인했다.

신중일 기자

대 한 불 교 원 효 종

2013년도 종도 연수교육 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종헌종법에 의거 아래의 내용으로
2013년도 종도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원효종 전 종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 2013년 **8**월 **11**일 ~ **16**일 (5박6일간)
교육장소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734-2번지 천전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법의, 개인발우
문의 및 접수 : 각 교구종무원 및 총무원

대한불교원효종 법계고시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법계고시를 종법에 의거 아래의 내용으로
시행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 내에 이행하시어
법계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 : 2013년 **8**월 **16**일
장 소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734-2번지 천전사 금강계단
문의 및 접수 : 각 교구종무원 및 총무원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총 무 원

전국 곳곳은 만해사상으로 '흠뻑'

2013년 만해축전 9월까지 계속 이어져

불교계의 큰 축제 2013 만해축전이 8월 10일~13일 동국대 만해마을과 하늘내린센터 등에서 열린다. '선린(善隣)·상조(相助)'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만해대상 시상식 문예행사 대동제 등은 물론 9월까지 다양한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으로 대중들을 찾아갈 것이다.

만해축전의 첫 행사는 8월 11일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만해대상 시상식으로 그 막을 연다. 한용운 스님의 높은 사상과 깊은 정신을 선양하고자 제정

8월 11일 시상식 '하이라이트'
27개 주제 학술대회까지

된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올해는 실천대상부문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수상한다.

불교사상을 비롯해 문학과 인문사회를 아우르는 학술심포지엄도 눈에 띈다. 지난 5월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서울대에서 주최한 '평화인문학의 영역과 쟁점들'을 시작으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은 9월 28일까지 강원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열린다.

불교평론, 한국시인협회 등 총 28개 단체가 참여한 학술심포지엄은 총 27개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별로 분류하면 문학 17개, 인문사회 7개, 불교 3개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날짜	시간	주제	장소	주관
5.07	10:00	평화인문학의 영역과 쟁점들	서울대학교 규장각 세미나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5.17	9:00	박물관, 기억과 창의력을 통한 사회변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한국박물관 협회
5.24	11:00	강원여성문학의 발전방향	강릉 송정동 래미안 컨벤션3층	강원여성문학인회
5.24	14:00	백석의 번역 문학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시사랑 문화인협의회
6.04	15:00	작고 여성 문인 재조명: 소설가 구혜영 선생의 문학과 인생	문학의집, 서울산림문학관	한국여성문학인회
6.15	14:00	디지털 시대 문학의 현실과 전망	문학의집, 서울	한국시인협회
6.21	16:00	현대시조의 시대정신	광주광역시 히딩크 호텔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6.22	11:00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강원예술계의 활동	만해마을 대강당	강원문인협회
7.04	10:00	박인환과 1950년대 문학	한양대학교	근대문학회
7.05	17:00	인문학과 현대시조	대구광역시 팔공 유스호스텔	대구시조시인협회
7.9	13:30	민주사회와 종교	만해NGO교육센터 2층 대교육장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
	14:00	한국 민주주의의 내일과 노동교육	서울 경향신문사 13층 회의실	전태일재단
7.20	14:00	어떤 시조가 독자의 호응을 받을수 있을까?	서울 충무아트홀 컨벤션 센터	한국시조시인협회
	15:00	문학과 과학의 상생	만해마을 청소년수련원 강당	한국문인협회
7.23	13:00	님이 침묵하는 시대의 문학을 말하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민족문제연구소
7.26	10:00	현대사상과 만해	만선회 서울사무소	만해학회
8.05	15:00	이 시대의 소설이란 무엇인가?	노근리 평화공원 (충북 영동군)	한국소설가협회
8.09	10:00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와 한국현대문학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3:00	불교문학의 반성과 전망	만해마을 대강당	현대불교문인협회
8.11	10:00	한국시 100년 무엇이 문제인가?	만해마을 대강당	한국시 100년대회장
	13:00	우리 현대시의 시어 모어와 모국어를 다시 생각한다	만해마을 청소년 수련원 강당	현대시학
	15:00	선, 언어로 읽다	만해마을 대강당	시와세계
8.12	09:00	패미니즘 문학의 세계적 현실과 비전	만해마을 청소년 수련원 강당	창작21작가회
	13:30	권영민의 문학콘서트①	만해마을 대강당	한국현대문학회
8.13	9:30	권영민의 문학콘서트② 한용운과 타고르	만해마을 대강당 청소년 수련원 강당	한국현대문학회
8.22	13:00	탈북의 성찰과 북한 이탈주민의 이해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동북아 미시사회연구소
8.24	15:00	세대론을 통해 살펴본 현대시조	마산 아리랑 관광호텔 1층	경남시조시인협회
9.06	13:00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역사회관	불교평론
9.28	14:00	우리시대 시조의 위상과 시 정신	신사동 유심사옥	유심시조아카데미

특히 9월 6일에는 불교평론이 주최하는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역사회관에서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는 불교의 명상의 오늘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만해축전은 △현대사상과 만해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와 한국현대문학 △불교문학의 반성과 전망 △선, 언어로 읽다 등이 9월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한국현대문학회가 주최하는 8월 12일~13일 문인의집 강당에서 주최하는 권영민 문학콘서트는 대중들에게 문학의 기쁨을 전해줄 것이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학술심포지엄은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21세기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문화예술을 창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문화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남북과 좌우를 초월하는 만해정신을 선양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한다.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문예행사도 주목할만하다. 올해는 3개의 백일장은 물론 〈한국대표시선 100〉 출간까지 다양한 문예행사가 열린다. 문예행사는 8월 11일 제15회 전국고교생 백일장을 시작으로 △제11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만해시작 90년 기념 〈한국대표명시선 100〉출간 등이 열린다. 8월 13일 열리는 제2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인제신문사) 등도 대중들에게 문학의 장을 마련해준다.

군민과 함께하는 축전 대동제도 흥겨운 한마당을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예술제, 대동축구대회, 생활야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인제 산야초 효소축제 등은 시민들에게 축

청소년 문예백일장·서예대전
지역민 함께하는 대동제도 '눈길'

제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밖에도 제 11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축제 시작 전인 8월 1일 만해마을 님의 침묵 광장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최동호 교수, 박현수 교수가 시와 학술 부분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만해축전은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인 만해 스님의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평화와 겨레사랑의 만해정신을 선양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강원도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자연, 사람과 문화가 하나가 되는 만해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은 물론 문화의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033)462-2304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개발한 문구류 세트. 〈사진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 디자인 세계로 나간다

불교문화사업단, 23일 한국디자인진흥원 MOU 체결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이하 문화사업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운 전통문화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사업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오는 7월 23일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다양한 전통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세계화 공동 사업에 들어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008년부터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을 통해 매년 5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접수해 수상작을 상품화했으며 다양한 문구류, 사무용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용품을 자체 개발해 왔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관련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올 해 6월 중국 닝보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중국 닝보 국제일용소비품박람회'에 상품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상품으로 선정해 전시했다.

또 닝보시 'K-DESIGN' 전시판매관에 사찰의 꽃살문을 본 떠 만든 명함집, 염주형태의 USB 등 불교문화상품 5점을 비치하고 내년 6월까지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K-DESIGN'관에 전시된 상품들은 서울디자인재단, 삼성전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콘텐츠로서, 전통문화상품으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개발 상품이 유일하다.

정산 스님은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성장하며, 건축, 음악, 미술 등 다방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와 기술을 구축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1세기의 대중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을 기대한다"고 협약 소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초심 잃지 않고 교구 안정에 최선"

마곡사 주지 후보 원경 스님



조계종 제6교구본사 신임 주지 후보에 원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천안 성불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마곡사는 7월 18일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선거인단 107명 중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투표는 2차까지 가는 접전으로 진행됐으나 원경 스님은 2차 투표 결과 57표로 최종 선출됐다. 태진 스님은 45표를 얻었다.

신중일 기자

세계여성불자 모임 '샤카디타' 한국지부 설립

7월 1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서 창립식 개최

여성불자들의 국제적인 모임인 샤카디타의 한국지부가 설립됐다.

한국 샤카디타 준비위원회는 7월 1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샤카디타 여성불자 국제협회 한국 지부(이하 한국 샤카디타)'의 창립식을 개최했다.

1987년 설립된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은 격년마다 지역을 바꾸어가며 세계여성불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제8차 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한국샤카디타 설립은 지난해 6월 샤카디타 전 회장인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과 현 회장인 크리스티나 장 박사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들이 전국비구니



샤카디타 한국지부가 7월 17일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회 회장인 명우 스님과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을 만나 샤카디타 한국지부 창립을 논의하면서 본격 진행됐고, 10월 본부로부터 공식 설립허가를 받게 됐다.

샤카디타코리아(Sakyadhita Korea)는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전 원장과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박선미 불교여성개발원 5차 108인, 조성자 강원대 법학대학원 교수, 오지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5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됐다.

한국 샤카디타는 △네트워킹 △교육 △사회활동 등 세 가지 주요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조은수 교수는 "각국의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자들이 소통하는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도울 것이다. 특히 젊은 불자들이 국제행사에 참가해 해외 젊은이들과 교류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밖에 한국샤카디타는 젊은 여성들이 영어와 자기 강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도 전념하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계 구현'이라는 샤카디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잇따른 노동자 죽음… 불교계 애도

조계종 노동위, 노량진 수몰사고 등 애도 논평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장 수몰사고와 현대차 아산 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자살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애도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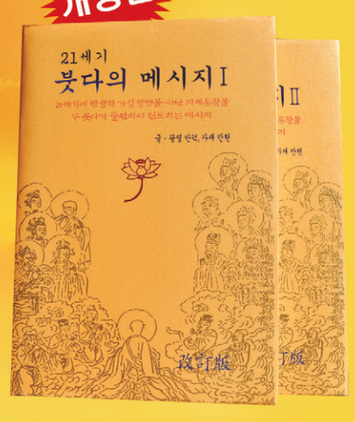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노동위)는 7월 18일 논평을 "잇따른 산업재해에 의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외주도급, 하청, 재하청 알바 등 저임금 노동자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원청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안전의무를 협력사 혹은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노량진 수몰 사고도 이런 관행과 밀접한 연관성에서 발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잇따른 중대 재해와 사망사고를 불식·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아산 공장 비정규직 노조 지회 사무장 박정식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된데 대해서도 노동위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노동위는 7월 16일 발표한 애도문에서 "올해 들어 노동자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비정규 노동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면서 급기야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고인의 죽음에 현대 자본은 커다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 주 문



37기 단기출가학교 졸업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제 37기 단기출가학교 졸업식을 7월 23일 문수선원에서 실시했다.



2013승시축제 참가자 모집

승시축제 봉행위원장 성문 스님은 7월 30일까지 2013승시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02)986-9575



복지재단산하 시설장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7월 18~19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재단산하 시설장연수를 실시했다.



초등 진로교육프로 '북드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은 7월 23~25일 복지관에서 초등학생 독서 · 진로교육프로그램 '북드림여행'을 실시한다. (02)2282-1100

"스님 가르침 종단 중흥의 경책 삼을 것"

도견 스님 영결 · 다비식 7월 16일 해인사서 엄수



前 조계종 원로의원 도견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7월 16일 오전11시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엄수됐다.

前 조계종 원로의원 도견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7월 16일 오전11시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엄수됐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영결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명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도견 스님은 가야총림에 수십성상을 용맹정진하시어 후학들의 지도에 여생을 바치신 대종사"라며 "그 빈자리가 크지만 슬픔과 애절함을 삭여 종단 중흥의 채찍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밀운 스님은 영결사에서 "도견 스님은 해인사와 대흥사 주지를 지내며 대중살림의 모범을 몸소 보였고 원로의원으로 계실 때는 곧은 기개와 위엄으로 한국 불교를 이끄는 사표(師表) 역할을 하셨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지난 70년의 성상 동안 실로 치열한 수행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추도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도견 스님의 법구는 만장 행렬을 앞세우고 해인사 연화대로 옮겨졌고 제자 스님과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식이 거행됐다.

도견 스님는 모친을 따라 절에 다니면서 출가의 발심을 품었고 세 차례에 걸쳐 출가에 도전해 결국 지월 스님을 은사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됐다.

월정사 강원을 졸업하고 한암 스님의 회상에서 참선수행을 시작한 도견 스님은 1965년 범어사에서 광덕, 일타 스님과 함께 동산 스님 회상에서 결사를 단행했으며, 1970년부터 3년 동안 송광사 구산 스님의 문하에서도 결사 정진했다.

종단 혼란기에는 행정력을 발휘해 종단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2, 5, 6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한 스님은 1980년에는 종회의장을 맡았으며, 199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도 활동했다. 스님은 성철 스님이 '부처님 밥값 좀 해라'는 권유를 받아 1980년부터 2년간 해인사 주지 소임을 살기도 했으며, 금성사와 관음암을 창건했다. 대흥사 주지 및 조실을 역임하며 후학들을 제접했다. 사찰 주지 소임을 살 때 도견 스님은 절을 보호하는 '보사(補寺)' 정신을 후학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조계종 원로의원, 명예원로의원을 지내며 수행자로서 평생을 산 스님은 7월 12일 해인사 극락전에서 법랍 70세, 세수 89세로 원적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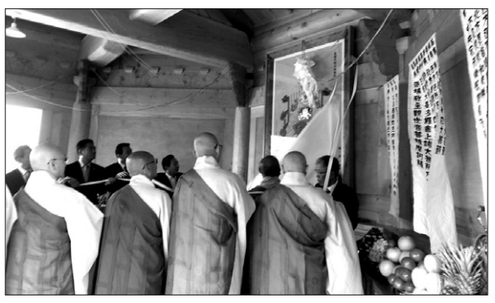
한편, 스님의 49재는 7월 18일 초재부터 6재까지는 대구 금성사, 막재는 8월29일 합천 해인사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사진=손문철 대구지사장

"호국종찰 의미 다시 새길 터"

논산 개태사 태조 왕건 어진전 낙성



태조 왕건의 한반도 통일 의지가 서려 있는 논산 개태사(주지 양산)에 왕건의 어진이 모셔졌다.

개태사는 6월 15일 고려 태조 왕건(877~943)의 어진(御眞 · 왕의 초상화)의 점안 및 어진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사진 위〉

이날 낙성식에서 주지 양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진 점안으로 위대한 통일을 완수한 태조 왕건의 대업을 이어받아 호국종찰로서 의미를 되새기려 한다"며 "태조 왕건 어진을 봉안한 것은 이곳 개태사가 삼국통일을 이룬 대업을 이어받아 앞으로 10년 안에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직무대행 선용 스님,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 새누리당 이인제 · 홍문표 국회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이기원 계룡시장, 이상구 논산시의회 의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박용필 KBS보도국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개성왕씨 종친회 왕윤현 총무이사, 김종국 화백 등 사부대중 100명이 참석했다.

태조 왕건의 어진은 한국화가인 수당 김종국 화백이 제작했다. 개태사는 왕건 어진과 관련해 1993년 개성에서 출토된 왕건 상과 고려사 등 역사서 고증작업을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문화재 잠에서 깨어나야

스토리텔링 기업 '얘기꾼' 남지심 대표



"우리 국보 문화재 중 77%가 불교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서술한 논문들은 많아도 진정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려면 또다른 변신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문화를 명쾌하게 설명할 이야기꾼이 필요하죠."

소설가 남지심 씨가 이끄는 불교문화재 스토리텔링 단체 '얘기꾼'이 문화재청 소속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얘기꾼은 남 대표가 이끄는 불교창작교육원 졸업생들로 구성된 기업으로 불교문화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너무 딱딱한 글들은 정보만 있지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는 연구논문을 기초로 해서 숨은 이야기에 옷을 입히자는 뜻에서 만들어졌어요."

불교창작교육원 졸업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불교문화 명쾌하게 풀어갈 인재 양성

탈북자녀 등 대중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새로운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불교문화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 작업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오랜 작업을 이어가려면 장기계획이 필요하죠. 이 기간 동안 작가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수입도 얻어갈 수 있으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앞으로 '얘기꾼'은 불교문화 행사의 스토리텔링, 서적 발간 등은 물론 스토리텔링 작가 및 문화재 해설사 등의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얘기꾼'은 또한 탈북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계절마다 사찰순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교문화가 잠에서 깨어나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남지심 대표. 그래서 불교적 글쓰기가 가능한 작가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불교창작교육원이 올 8월 2차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요. 불교 문학 작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불교문화재를 이야기화하는 단계를 거쳐 이들이 강의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는 3단계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정혜숙 기자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 신임 회장 선출

제7대… 임문우 변호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 제7대 회장에 임문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는 7월 15일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임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문우 신임 회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대학생 불자들을 적극 지원해 청년불교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홍 스님 민추본 본부장 재임명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 · 사진 오른쪽)이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에 재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8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잘 풀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지홍 스님은 "현재 남북 관계가 많이 답답한 상태에서 재임명이 됐다. 남북 관계가 잘 풀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풀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정혜숙 기자

영통복지관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7월 17일 이마트 흥덕점과 연계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그루터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영화 '미스터고'를 관람 저녁식사와 후식 등을 제공받았다.

정혜숙 기자

불이성 법륜사 일요법회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법회안내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세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네째주 : 천수경 강의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시 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문 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392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



조계종과 화천군에서 개최한 세계평화합동위령제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세계 평화의 종 타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합동위령제에서 스님들이 희생된 고혼을 위로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이 네팔에서 공수한 '평화의 불' 이운 · 점화를 위해 참석 내외빈들이 함께 자리했다.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 등이 희생 장병 영단에 헌화하고 있다.

10만 장병 고혼 위로하니 하늘도 울었다

조계종 · 화천군, 13일 세계평화합동위령제 개최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강원도 화천에 평화를 염원하는 대규모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조계종과 화천군은 7월 13일 세계평화합동위령제를 평화의 댐 일원에서 봉행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세계 28개국의 10만 여명의 젊은이들의 넋을 기렸다.

특히 이번 위령제는 피아구분 없이 이뤄진 세계 최초의 행사라 세간의 의목을 받았다.

강원도 화천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 한국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특히 정전 직전 화천 파로호와 백암산 일대에서 벌어진 공방전에서 양측은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사망자만 10만 여명에 달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스님의 천도 영산대재가 알렸다. 두 시간의 의식이 봉행되는 동안 하늘은 하염없이 비를 뿌렸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무고한 10만여 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듯이.

천도 의식이 끝난 후에는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이 네팔에서 가져 온 '평화의 불'을 화천으로 이운해 점화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선묵 혜자 스님은 '평화의 불'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마린코비치 주한외교사절 방문단장 등에게 전달했고, 불은 이내 점화대에 오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남북갈등 해소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이 불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평화의 댐에 영원히 봉안된다.

자승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은 세계인의 상처로 남은 6.25 한국전쟁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이 땅에서 산화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피면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고, 고귀하지 않은 이가 없다. 모두들 자신이 속한 나라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 이 땅에서 노력하다 전몰하였을 뿐"이라며 "각자의 입장을 넘어서 진정한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생명 하나하나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생명을 가진 미물 하나라도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온 몸을 희생한 까닭"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 땅에서 겪은 아픔을 우리가 함께 보듬을 것이니 이 땅에 얽힌 아픈 인연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며 "여기에 묻힌 젊음과 고귀한 생명이 영원한 평화가 되어 이 산하로 돌아오기를 모두의 정성으로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는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 희생 장병을 위한 살풀이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 화천 전투서 숨진
세계 28개국 영령 합동 추모

자승 스님 등 국내외 귀빈
5천여 명 참여… 평화 발원
세계평화 위령탑 건립 선포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치열했던 최대 격전지인 파로호와 백암산 굽이마다 국가와 민족과 이념을 떠나 이름 없는 수많은 용사들이 63년 동안 말없이 잠들어 있다. 총성이 멎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넋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애처로운 영혼들의 한을 풀어 드리고 아픈 역사를 결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철 화천군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를 도왔던 세계 각국에 보은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념?종교?인종 갈등을 넘어 세계 평화를 시작하는 곳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전국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주한외교사절단을 대표해 단상에 나선 슬로보단 마린코비치 세르비아 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해준 점에 대해 대신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슬로보단 대사는 정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세계평화를 위한 선언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연숙 세계평화합동위령제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평화선언을 통해 참가자들은 "분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를 괴롭혔다"며 "우리 인류는 평화를 누려야 하기에 더 이상 지구상에 갈등과 반목 그리고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전 인류를 향해 평화선언을 할 때"라며 "이번 세계평화합동위령제를 시작으로 나비효과를 타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가슴에 닿아서 세계평화가 깃들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위령제는 세계평화위령탑 건립 선포식과 세계 평화의 종 타종,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이날 위령제에는 재무부장 원범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사회부장 법광 스님, 호법부장 정안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을 비롯해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국가보훈처와 사회각계 주요인사, 참전용사 등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화천군은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참가국들로부터 평화위령탑 건립 기금을 전달받아 내년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민통선 북쪽 평화의 숲과 전쟁 무기를 조형물로 만드는 국제평화아트파크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 자료 제공= 화천군청

마야성 김종숙 노보살님의 수의왕생을 발원하옵니다

감사의 말씀

존경하는 큰스님과 사부대중께서 저의 큰 스승이신 석가산 장로님의 자모 마야성 김종숙 노보살님 다비 기간 중 왕림하시여 위로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6월 20일 11시 청주시 목련공원에서 다비(화장)시 마야성 노보살님의 진신사리 500여과가 오색찬란하게 출현하시였습니다.

사리는 옥색의 미륵반가사유상, 관음상 백색 뼈속에 솟아난 비취빛 홍색 우담발화, 연화 등 갖가지 형상은 습골하던 저희들은 놀라움과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방일하는 저희들에게 힘써 수행정진 하라시는 가르치심 이기에 슬픈 마음 갈무리하고 큰스님과 사부대중께 모든 공덕 두 손 모아 회향합니다.

마성. 해우. 마승. 마조. 마석. 해관. 마문. 종아. 마덕 마회. 묘현. 현국. 현석. 현령. 현용. 현종. 현초. 청공 청봉. 보현성. 광림성. 불도화. 대각성. 관음자. 니연화 환희해. 현령성. 다향성 합장





49재 모시는 말씀

저의 큰 스승이신 석가산 장로님의 자모 마야성 김종숙 노보살님께서 사바를 여의시어 마음 허허로움 여유도 없이 어연 49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제방의 큰스님과 사부대중께서 49재에 광림하시여 마야성 김종숙 노보살님의 수의왕생과, 영산회상에서 저희들이 다시 뵐수 있도록 축원하시고 발원하여 주시길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국내 증명대화상 : 세계불교회 부회장 석의현 대장로.
용성문도회 대표 석흥교 대장로.
각 종단 대표. 석정각 대장로.

국외 증명대화상 : 세계불교승가회 비서장 석혜웅 장로.
상해시 불교회회장 석각성 장로.
광동성 불교회회장 석명생 장로.

장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원융호국사
일 시 : 응화세존 3040년 양력 8월 3일 토요일 오전10시

찾아오신 길_ 네비게이션(전화번호 043-532-1875 또는 원융호국사

※ 큰스님은 종사복. 가사. 장삼 ※ 대덕스님은 가사. 장삼을 수하셔야 재식에 임석하실 수 있음을 양찰해 주시기 앙망 여불비예합니다.

포교 · 신행 소식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13~14일 일산직업능력개발원생과 진행



조계종 국제선센터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장애우 대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건식) 내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숨 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을 지닌 직업훈련생들은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명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직업훈련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스님은 "다문화 가정, 새터민에 이어 장애인까지 포용하여 마음치유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지난 6월 16일 장애우 훈련생들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자립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뇌병변 다문화 소녀에게 의료 지원금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7월 17일 '다문화가정 및 2세 의료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소녀 아리아나 레자이에게 목욕의자, 에어컨 등을 포함한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9살인 레자이는 이란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2세로 어머니 도움 없이는 기초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선천성 뇌병변을 앓고 있다.

다문화 소녀 레자이는 날마다좋은날이 협찬한 다문화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KBS오아시스에 출연했다. 당시 부족한 집안 형편으로 적극적인 병원치료가 힘든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아 큰 감동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선수행으로 사회구현 공로 인정

부산 무심선원, '제1회 심우문화상 수상'

수행중심의 재가선원인 부산 무심선원이 제1회 심우문화상을 수상했다.

심우문화상은 심우당문화재당이 제정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발전에 공헌한 인사와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무심선원은 2001년 개원 후 12년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차례 정기법회를 열고 선 공부에 필요한 법문자료를 전국에 보급, 다수의 선 체험자를 배출하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공헌했다.

시상식은 7월 25일 낮 12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 에머랄드홀에서 김맹석 심우문화상 설립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심우당문화재단은 학교법인 형석학원과 금강학원이 우리 사회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창립한 장학재단이다.

이나은 기자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귀농 포교' 해야

귀농 트렌드 변화, 실상사 · 마곡사 등 귀농공동체 눈길



다양한 기관에서 세대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근 '귀농'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귀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불교계가 귀농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귀농'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십여년 전 IMF 무렵 귀농은 사업에 실패한 이들이 도시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없게 돼 마지막으로 찾는 방안으로 인식되곤 했다. 도시에서의 경쟁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귀농은 단순한 도시탈출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귀농 · 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를 떠난 귀농가구는 1만 1220가구(1만 9657명)로 2011년 1만 75가구(1만 7464명)에 비해 약 11% 증가했다. 각 지자체의 귀농 자금 지원 등 5개년 계획이 시작된 2011년 86.4%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세다. 특히 귀농평균 연령이 52.8세로 전년 52.4세보다 0.4세 높아졌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8.3%로 가장 많았다. 단순한 귀촌 인구 만해도 2만 7000가구 4만 700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부터 미국 · 영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귀농 · 귀촌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귀농 · 귀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진행되는 불교귀농이론교육에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서울 신정동에서 진행하는 불교귀농학교 등에는 오히려 사람이 줄고 있다.

50대 귀농 · 귀촌 폭발적 증가

맞춤형 교육 인기…불교계 미흡

사찰지 활용 포교 겸한 접근 필요

이동호 불교귀농학교 팀장은 "예전에는 귀농관련 교육기관이 많지 않아 교육 때마다 사람들이 몰렸다"며 "지금은 다양한 기관에서 각 세대별 맞춤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교귀농학교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이고 있어 맞춤형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토지 100만평을 기반으로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소농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중인 공주 마곡사와 사찰 주도로 영농조합을 만들어 귀농을 지원하고 있는 당진 정토사 등 사찰 차원의 관심도 늘고 있다.

수지행 실상사 종무실장은 "자의적으로 귀농을 원하는 도시인들이 늘어나며 실상사 귀농학교가 배출한 귀농인이 1000여 명을 넘어섰다"며 "귀농학교 졸업생 일부가 실상사 토지에 의지해 마을을 이루는데 현재 산내면은 포화상태로 면단위로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토사 주지 선오 스님은 "사찰과 신도 농토를 기반으로 백련 농작으로 30명의 일거리를 창출했는데 15명이 불자로 전환했다. 지자체에서도 인구유입 등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반을 가진 사찰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8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제33기 불교귀농학교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정각원 각산 스님 초청 2차 강좌

초기불교-간화선 통합 '깨달음의 길 안내'

초기 불교와 간화선이 만나 대중들에게 심도 있는 수행법을 제시해준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각산 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강좌를 9월 2일~11월 18일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진행한다.

각산 스님은 아잔브람 스님의 명상법과 한국의 간화선을 통합한 정혜쌍수의 실참을 중심으로 실제적 깨침의 세계를 강의한다. 스님은 "수없이 난무하는 명상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명상일까? 인간의 영혼과 생로병사를 다루는 그 수행법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아잔 브람의 명상법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위빠사나와는 다른 체계의 부처님 당시의 정통 가르침인 호흡명상(안반선, A?n?p?nasati)을 과학적 명상체계로 복원한 부처님의 명상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강좌에서 스님은 세계 최고의 수행자들에게서 배운 수행법들을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을 주제로 초기불교의 수행 이론과 실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룬다. 각산 스님은 "한국불교수행의 근간인 간화선의 '이 뭣고?' 화두수행법은 부처님의 초기 수행법들과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초기경전의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간화선은 수행방법론을 조금만 이해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며 "간화선은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 방식의 위빠사나(관심법) 보다도 더 강력한 통찰로 이끄는 지혜와 선정의 내면관찰 수행법이다. 왜냐하면 간화선은 고요하고 깊은 삼매의 세계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사마타(평온)-위빠사나(관찰)의 진화 발전된 수행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와 고차원적 철학이 담긴 간화선을 아잔 브람 스님의 호흡명상과 융합한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은 향후 국내는 물론 한국불교와 간화선의 세계화에 지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77-369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8월 10~11일 인제 만해마을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8월 10~11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창립 93주년을 기념한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오라 강원으로! 꿈꾸라 평화통일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불청 창립 93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청년불자의 상을 정립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포스터

행사는 첫째 날인 10일 오후 7시에 전야제를 시작으로 △지구 · 지회 장기자랑 △초청공연(김현성, 이명우) △한반도 평화기원 핸드 프린팅을, 11일 오전 10시부터 △불청대상 시상식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불자 선언 △대회기 이양 등 본대회로 진행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 청소년 템플스테이'와 '불화그리기'를 비롯해 노숙자들을 위해 안 입는 옷을 모으는 '희망 옷 나눔' 전달식, 가족이 함께 하는 '야영장 운영' 등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8월 10~13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 등 인제군일원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기간 중에 열리며, 본대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예정이다.

전준호 대불청 회장은 "만해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청년불자들이 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738-1920

이나은 기자

공 고

(사)대한불교 법화종

제 19대 총무원장, 포교원장, 감찰원장 선거를 종헌종법 제32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불기 2557(2013)년 7월 17일 ~ 7월 26일 (10일간)
▣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 불기 2557(2013)년 7월 27일 ~ 7월 29일 17:00 (3일간)
▣ **후보자 자격 심사결과 통지** : 불기 2557(2013)년 7월 30일 ~ 7월 31일 17:00 (2일간)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홍보기간** : 8월 1일 ~ 8월 4일 오후6시 종료 (4일간)
▣ **선거일시** : 불기 2557(2013)년 8월 5일 월요일 오후 1시
▣ **선거장소** : 본종 총무원 청사 (사정에 의해 변경되 수 있음)
▣ **선거인단** : 중앙 종회의원
▣ **후보자 자격요건** : 년령 50세이상 법계 승정이상인 자.
▣ **후보자 제출서류** : 1. 후보등록 신청서(양식) 2. 이력서 3. 법계증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증명사진(2매) 6. 주민등록 초본1통 7. 승가단체 및 일반대학 석박사, 포교사 수료증(국가인증) 포상 등, 범죄경력 자료 조회서
▣ **후보자 등록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본인 직접 신청에 한함. (후보자 등록신청서 소정양식 총무원 청사비치)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766-2678. 팩스 02)766-2673

불기 2557(2013)년 7월 17일

대한불교 법화종 선거관리위원장 현담 합장
선거관리위원회 장소 :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

추신 : 입후보 심사 후 (선) 유선통보 (후)문서 발송함

홀로서기, 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교육·상담서비스 사업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16일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전국 한부모 가족 2500여 가구를 상대로 한부모 가족실태를 조사·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중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10.7%에 불과했으며, 총57만가구로 추산되는 한부모 가족의 3분의 2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모자가족'이었다. 또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253만원의 절반수준이었다.

그만큼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수입, 육아, 정신건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지난 1월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 이하 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한부모가족 전문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들. (사진제공=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유형별 맞춤지원, 한부모 디딤돌역할

센터는 한부모 학습지원, 정보제공, 인식개선 캠페인,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학습을 중단한 두리모(미혼모의 새 이름)와 미혼부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업공백으로 생긴 부족한 기초 학력을 갖추게 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한편, 상담이나 인성교육을 통해 한부모들의 정서가 안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검정고시 학습반과 정규 학습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임신이나 출산으로 출석이 어려운 미혼모들을 위해 지역별 거점기관에 검정고시 강사를 파견해 공부를 돕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학습반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측은 "성적장학금과 출석장학금 등의 장학 지원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업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센터는 이들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통합상담 서비스를 개설해 2011년 네이버지식인 지식파트너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부모가족 상담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의 조기 자립에 필요한 다각적 정보 지원 매뉴얼인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 길라잡이〉를 매년 발간·배포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정보와 주거·교육·양육·자립·위기 지원 등 한부모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생활영역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펼치는 인식개선 캠페인은 센터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통한 '비움의 동행', 재가 한부모의 심리적 위기 극복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힐링의 동행',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청구지원사업인 '절반의 동행'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센터는 한부모 당사자들을 '한부모가정 지원 생활 코디네이터'로 양성해 초기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을 운영, 아기를 스스로 키우고 싶어하는 미혼모·부들에게 초기에 겪기 쉬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육을 비롯해 자립에 필요한 것은 물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적 정서적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 해결과 가족관계에 힘이 되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부모가족복지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갖추는 일과 복지 강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 및 가족은 누구나 상담 가능

센터의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은 한부모·미혼모 당사자 및 가족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과 온라인상담(www.seoulhanbumo.or.kr), 내방상담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방이 어려운 경우 센터가 직접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희망한다. 살면서 삶의 무게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며 "센터가 한부모가족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2)861-302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찰음식의 지혜'로 건강 음식문화 만들자

선재 스님, 7월 미래복지포럼서 강연

"불교의 교리와 연결돼 있는 사찰음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서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사찰음식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7월 16일 전법회관에서 개최한 7월 미래복지포럼서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사찰음식을 활용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건강한 음식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한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의 형식이나 식재료, 음식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담겨져 있는 지혜"라며 "누구나 사찰음식을 통해 건강과 지혜,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불교의 교리와 연결돼있는 사찰음식의 궁극적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육류와 어패류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음 △오신채(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를 사용하지 않음 △약리작용이 있는 식재료 사용 △제철에 사는 식재료 사용 △음식 섭취도 수행의 하나 등을 사찰음식의 특징 5가지라고 소개했다.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또한 스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소식(蔬食)하고 채소를 주로 먹는 소식(蔬食), 적게 먹는 소식(小食)을 하라"고 삼소식을 강조하면서 "청결하게 조리하고 삼덕(청정, 유연, 여법)과 육미를 갖추고 생태리듬에 맞는 섭생과 제철음식 섭취 등 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나은 기자

복지 단신

독서로 세계일주 떠나자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에서 운영하는 신사어린이도서관은 7월 23~25일 책과 함께하는 연극놀이 '나도 잘 하는게 있어'를 주제로 독서세계일주를 진행한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레이스는 놀라워〉라는 책으로 자신의 장점과 꿈에 대한 생각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다. (02)376-4141

박홍우 법원장, 아름다운동행에 기금 동참

아프리카 학교건립에 정성 보태

박홍우 법원장(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건립사업 후원에 동참했다.

불자인 박홍우 법원장은 7월 16일 아름다운동행 사무실을 직접방문해 1백만원을 후원,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아프리카에 학교를 건립하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자비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남겼다.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건립 동참에는 벽돌 한 장 1만원, 책걸상 셋트 5만원, 땅 한평 10만원, 식수대 30만원, 컴퓨터 한 대 100만원, 교실 한 동 1,000만원, 법당 건립 5,000만원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학교건립을 위한 CMS 정기후원도 가능하다(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문의 02-737-9595).

은평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선풍기 지급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7월 5일 지난 어버이날 진행한 '제2회 행복드림 바자회' 수익금으로 독거어르신 50명에게 선풍기를 전달했다.

복지관은 은평구 관내 1300여 명 독거어르신을 독거노인돌보미 45명이 정기적으로 안전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에는 폭염 안전확인, 겨울에는 한파 안전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올 여름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중 선풍기 미보유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풍기를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이 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02)385-1351

중림복지관,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7월 2일 지역 내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는 종근당과 연계해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정서·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날 종근당 임직원들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 어르신들에게 전해줄 매실장아찌와 삼계탕 재료를 만들었으며, 여름철 벌레 퇴치를 위한 모기향을 준비해 어르신 10가정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02)362-3348

황송노인복지관, '행미가' 참여 어르신 나들이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7월 10일 행미가(幸美家)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10분과 즐거운 여름 나들이를 진행했다.

복지관은 "참여대상자의 대다수는 80세 이상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외부출입이 어렵고 문화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들이 경험이 많지 않다"며 "나들이에서 어르신들은 생태학습원 관람, 원예치료프로그램체험하며 무료한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과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행미가는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미소가 있는 집을 꿈꾼다는 의미다.



총 8회기로 우울척도검사, 자기개방을 위한 시간, 레크리에이션, 나들이, 일상목표세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031)602-3657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7월 31일

5. 문 의 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 및 사찰등록 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불교적 사유’ 미래 희망… 강력한 민주 원리

‘인문학으로 공감 힐링’ 진흥원 강좌

강신주(철학자)

가히 인문학 열풍이었다. 경제위기, 사회갈등 등 삶이 피로해질수록 사람들은 종교가 아닌 인문학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 했다.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었으며 보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깊이있는 통찰과 재치로 사람들과 소통해온 철학자 강신주는 7월 16일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마련한 ‘인문학으로 공감하고 힐링하기’를 통해 청중들과 만났다. 직설적인 언어로 현 사회의 문제를 캐낸 그는 우리 모두의 행위는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인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이분법을 희석시키는 데 불교의 역할이 중요해지리라는 것 또한 강조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강신주 박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장자철학에서의 소통의 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상상마당 등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출판기획사 문사철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삶의 핵심적인 사건과 철학적 주제를 연결시켜 포괄적으로 풀어낸 철학서를 다수 펴냈다. 동양철학 전공자이면서 서양철학의 흐름에도 밝아 쉽게 읽히는 철학을 지향한다. 주요 저서로는 〈철학이 필요한 시간〉, 〈철학, 삶을 만나다〉,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상처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인문학과 불교는 상통

오늘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출판시장에서 꾸준히 팔리는 책은 종교 책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당황스럽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깜짝 놀란 듯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실수를 해도 인간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문학 정신입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 가 그 예죠. 기독교에서는 신이 우리를 만들고 이 세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죽어야 인간이 역사를 꾸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부처를 ‘마른 똥 막대기’로 보라고 합니다. 부처를 숭배하면 내가 부처가 안 되니까요. 아버지가 없어야, 아버지와 다르게 생각해야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학생이고자 한다면 선생님은 못 됩니다. 선생을 죽여야 해요. 여기에 불교의 급진적인 면이 담겨있습니다. 대웅전에 있는 금부처, 똥 막대기입니다. 이 정도 기백이 돼야 깨우칩니다. 이것이 조계종 선종의 전통입니다.

세상을 분별있게 바라봐야

칸트는 세상을 보는 잣대를 참과 거짓, 선악, 미추로 나눴습니다. 칸트 이전에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은 채 진실된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칸트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세계도 있다는 분별력을 보여줬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말해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의 사안을 두고 진으로, 선으로, 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폭력영화인데 아름다울 수 있는거죠. 아름답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의사는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수술대에서 냉정해야 하기에 인간 몸이 기계로 보일 때까지 해부를 하니까요. 하지만 수술실에서 벗어나도 환자를 같은 시선으로 봅니다. 세상을 시체로 보는 의사는 분별력 없는 의사죠.

세상을 경제적인 것의 범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이롭냐 해롭냐는 이해관계로 보는 거죠. 또한 종교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성과 속. 어떤 사람에게 커피는 성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법당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편안하게 해 주니까요. 산책이나 밤에 촛불을 켜고 책을 읽는 것 등도 종교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을 참과 거짓, 선악, 미추, 이해, 성속이라는 잣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주를 구분하고 눈앞에 있는 필터를 갈아 끼우면서 사안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방법 중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칼 슈미트의 정치적 개념입니다.

적과 동지를 나누는 사회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이란 기본적으로 적과 동지라는 범주로 작동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단의 범주가 적과 동지로 이원화된다면 그건 이미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내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다 정치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정치행위를 합니다. 적과 동지를 나눈다는 건 누군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입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전국시대가 통일된 후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자 그를 희석시키기 위해 대외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내부대립을 외부대립으로 치환시키는 거죠. 적을 만들면 내부대립하던 세력이 한 동지가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판문점에 갑니다. 20세기에 이념적 대립이 없어졌는데 한반도에는 아직 존재하는 게 신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단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유발시킨 겁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국가대표를 왜 뽑습니까. 우리민족이라고 하면 모든 게 용인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프로축구는 안 보는데 월드컵은 봅니다. 붉은 악마가 돼야한다고 얘기를 하죠. 경기를 보며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는 순간 기뻐한다면, 적과 동지의 이분법에 말려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도 지역도 대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도 나눠져 있죠. 우리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인 나의 이익을 따져보면 자본가의 이익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맞물리는 관계 속에서 무소유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무소유는 소유하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지 않고 누구를 주는 겁니다. 무자는 없앤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보시입니다. 많이 소유하세요. 동시에 주려고 해야 합니다. 인간적 운동이든 자비의 운동이든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게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반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외국인 노동자들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운동이 됩니다.

‘적·동지’ 이분법 현상 현대사회 병폐
불교는 적을 만들지 않는 종교
성불의 원 세우면 화엄 세계 열려

우리나라 어머니는 어찌보면 탐욕스럽고 동물적입니다. 내 아이만 대학가라고 기도하죠. 이건 다른 아이보고 떨어지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서는 천일기도를 한다며 신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엄마는 자식만 생각하며 헌신하지만, 아이들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당당하죠. 부모 자식간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을 만드는 거에요. 앞집 아줌마와 격렬하게 싸우면 자식들은 엄마 편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갈등이 미봉책으로나마 수습되는 거죠.

적을 없애고 동지를 없애다

적과 동지를 구분짓지 않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적이 없으면 됩니다.

부처가 자비를 얘기했을 때 비불교도한테는 예외였나요? 아니죠. 아예 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공자가 보수적인 인물임에도 오늘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적이라는 개념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인자무적’. 어진사람은 하늘아래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적이 없는 사람만이 춘추전국을 통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선언이에요.

묵자는 모두 사랑하자는 겸애를 얘기합니다. 묵자가 가지고 있는 자비입니다. 진시황이 천하통일하면서 빨리 사장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묵자입니다. 전쟁을해야 하는데 적병을 껴안으라고 하니 위험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도 정치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예수를 지지했던 이유는 로마에 맞서 유태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유태인 쪽에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기독교가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과 동지를 끊임없이 내세우는데 있습니다. ‘우리 교인’ 하면서 서로 단합이 잘되죠. 이건 예수의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가족을 떠나는 의미도 동지와 적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탐욕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 내것과 아닌 것을 가르지 않고 홀로 있길 택한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않는 방법 중 동지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양주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천하는 통일되고 평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살되 동지로 안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촛불집회 가셔도 됩니다. 적과 동지의 이분법이 살아있는 현장아니냐고 하시겠지만, 가십시오. 가되 누가 다른 무언가를 하자거나 하면 안 움직이면 됩니다.

요즘 화두는 복지국가입니다. 이는 국가가 하나의 가족처럼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만 잘살자'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한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면 ‘우린 동지'라는 의식이 굳어집니다. 적을 설정해도 문제가 되고 동지를 강력하게 설정해도 문제죠. 동지를 만들면 배제된 사람이 적이 되어 버립니다.

성불은 사회 원융의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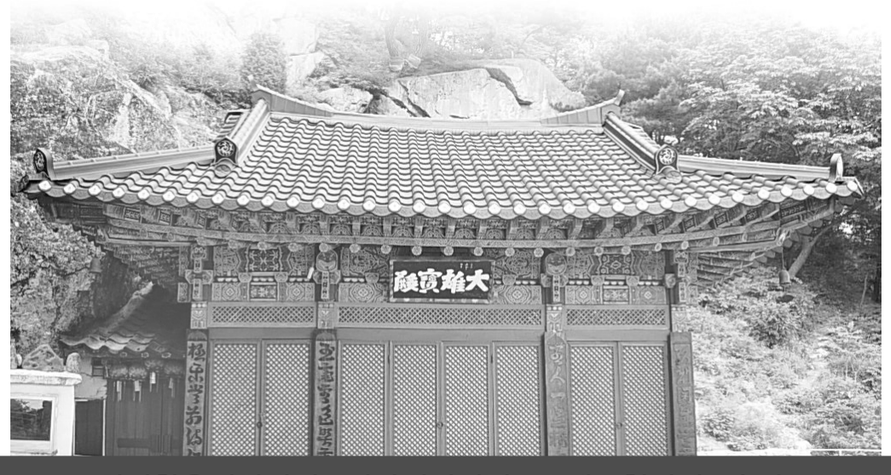
우리는 적과 동지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는 강력한 정신으로 가야합니다. 누구에 대해 자비를 가지라는 건지 개념이 잡히시죠. 적과 동지에 포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호승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읽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책들을 한권씩 읽어가며 느끼는 희열은 암벽등반에 비유할 수 있죠. 암벽등반을 하는 사람에게 바위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에게도 책이란 마찬가지죠. 나가르나의 〈중론〉과 〈대장경〉 등을 읽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불교를 알아가면서 불교적 사유가 미래 사회의 희망이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불교 안에는 강력한 민주주의 원리가 있으니까요.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성불을 할 수가 있죠.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은 그 세계가 화엄의 세계고 전체적인 민주적인 세계임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적과 동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듯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불교 역할은 큽니다. 불교가 근본 가르침에 충실할수록 앞으로 사회에서 불교가 할 일도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불교가 강해져야 합니다. 불교가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7월 24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보살사상은 조로아스터교 영향받아”

심재관 前금강대 HK교수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에서

불교의 보살 사상이 인도불교 초기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란 주장이 대두됐다.

심재관 前금강대 HK교수는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7월 19~20일 ‘보살과 미륵신앙’을 주제로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한 여름워크숍에서 ‘보살사상의 외래적 유입과 영향’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심 교수는 “불교의 보살사상에는 구도자로서의 모습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초월적 존재로 인간을 구원하는 모습은 조로아스터교의 구원자인 ‘샤오쉬얀트’ 사상과도 닿아있다”고 밝혔디.

심 교수는 “인간의 구원자로서 다음 세대에 인간의 세계로 다시 와서 종말의 시간에 인류를 이끌 것이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샤오쉬안트’ 개념은 불교에서 미륵보살의 존재와 매우 흡사하다”며 “불교가 나타나기 전 인도와 인접한 지역에 이러한 사상이 성행했다는 점에서 두 종교간 영향을 미쳐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원전 6세기 중반에서 4세기 초, 인도에서 불교가 교학적 발전을 거듭하던 당시 인도 서쪽에는 페르시아의 전신인 아케메니아 제국이 있었으며 이 제국에서 신봉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의 전신인 자라투스트라교이다.

심 교수는 이들 종교가 고대이란종교로서 초기 힌두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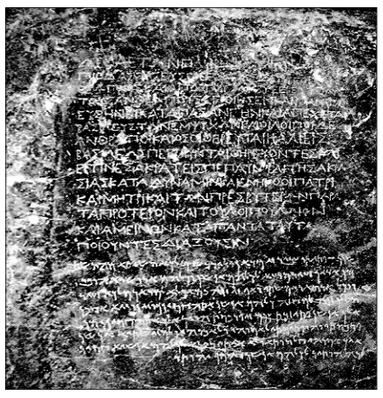
심 교수는 양 종교의 영향에서 초기불교계가 조로아스터교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심 교수는 “아쇼카 비문을 보면 조로아스터교인들에게 악신(惡神)을 뜻하게 되는 ‘데바(deva)’라는 단어를 배제하는가 하면 조로아스터교에 ‘좋다’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하는 등 표현상 배려가 보인다”며 “조로아스터교가 불교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보살사상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역설했다.

7월 19일 ‘보살사상의 외래적 유입과 영향’

조로아스터교 ‘샤오쉬안트’ 개념과 비교 고찰

중세 인도사회 위기 속에 보살 구원신앙 발전



아프카니스탄 칸다하르 지역에 있는 아쇼카 비문. 위쪽 은 그리스어로, 아래쪽은 아람어로 적고 있다. 이 비문에는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대거 실려있다.

심 교수는 이어 “이런 불교 내부의 내재된 보살사상은 당시 그리스인과 쿠샨왕조의 침입으로 인한 시대적 분위기로 외부로 발현된다”며 “당시 힌두교에서도 힌두교의 최고신들이 인격화되며 구원에 대한 믿음이 널리 팽배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의 여름 워크숍에서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살이란 누구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박광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진표와 미륵신앙’ 등이 발표됐다. 또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워크숍 후 최연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안내로 김제 귀신사와 완주 송광사, 화암사 등을 순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시 활성화 사원 경제 근간… 문화행사로 계승을”

2013 승시 세미나에서 목소리 모아져

고려시대 경제의 한축을 담당한 사원경제 이면에 생산불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불교계가 사원경제의 확대를 통해 사회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가 7월 19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개최한 2013 승시세미나에서는 생산불교를 통한 사원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날 ‘고려시기 사원의 수공업과 교역’을 발제한 손승안 경남대 교수는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달과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토대는 고려 후기 불교계가 수공업 생산 활동을 비롯하여 상업행위 등과 관련된 모든 사원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교계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손 교수는 “고려시대 사원은 국가 공적 기관으로 토지를 지급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원경제를 발전시켜 나갔다”며 “사원의 경제적 기반은 사원 운영과 승도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고 말했다.

손 교수는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 등의 간섭으로 국가차원의 공업이 쇠퇴하며 상대적으로 사원의 수공업이 경제활동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며 “사원의 경제적 기반은 여러 폐단을 낳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계가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이자 사회영향력의 단초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민수 중국 산동대 문사철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고대 사원의 시장기능 고찰’에서 남종선의 발달을 예로 불교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정교분리의 시작임을 주장했다.

고려불교 영향력은 승시에서 비롯

중국 남종선 발달 이면에 토지경작

오늘의 문화콘텐츠 개발 과제



승시는 ‘무소유’의 승가 전통을 되살리고 고대 사원경제의 축으로 자리한 승단의 전통 장터를 재현하는 자리다.

남 연구원은 “사원경제는 회창법난을 계기로 쇠퇴하는데 이중 자립기반을 갖춘 남방의 선종이 살아남는다”며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는 불교의 경제기반은 시간이 흐르며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불교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사원경제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동미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승시 축제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템플스테이 등 불교체험과 함께 ‘승시’란 문화콘텐츠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각 사찰의 장터 개발 및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상임연구원은 “승시는 재현을 넘어서 세대를 뛰어 넘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개발돼야 한다”며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가 승시의 계승과 보존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내전수함음속 목판 보물 지정

문화재청, 7월 16일…대승경전 음해석 담은 경판

‘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속 권490 목판’이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16일 해인사 내전수함음속 권490 목판을 비롯한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소 권490 목판’은 1245년(고려 고종 32) 대장도감에서 판각해 완성한 경판이다.

내전(內典)은 부처님의 설법을 담은 불경이고 음소(音疏)는 음에 대한 해석을 뜻하는 것으로, 대승불교의 6가지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을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야 스님이 한역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의 10권에 대한 음의(音義)를 내용으로 끝부분에 ‘을사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刊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태조 건원릉 신도비(보물 제1803호),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보물 제1804호),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보물 제1805호)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함께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美미술관과 고려불화 공동연구

7월 12일 프리어 · 쌔클러 미술관 MOU 체결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12일 미국 프리어 · 쌔클러 미술관(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관장 Dr. Julian Raby)과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고려불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재의 보존 · 활용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은 △미국 내 박물관 소장 고려불화 조사 · 연구 △프리어 · 쌔클러 미술관 소장 고려불화에 관한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과 연구자료 누리집(Web Site) 공개 △고려불화 보존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2014년 하반기에는 프리어 · 쌔클러 미술관의 누리집(www.asia.si.edu)에 한국어와 영어로 고려불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프리어 · 쌔클러 미술관은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계열 국립박물관들 중에서 특히 아시아 미술품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기관으로 한국문화재 전시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500여 점의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말레이시아大와 학술교류협정

천태종 종립 금강대는 7월 11일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과 학술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두 대학은 앞으로 매년 5명 정도의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교류 협력 사업과 함께 합동연구 활동, 학술자료와 출판물 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강대는 지금까지 8개국 26개 해외대학, 교육기관과 교류협정을 맺었으며, 2013년에도 미국 3개 대학과도 학술교류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유가사 불교유산 지정문화재 승격 나서

대구 유가사(주지 호암)가 사찰의 석탑 · 괘불 등에 대한 지정문화재 승격에 나섰다. 대구 유가사는 7월 17일 사찰 시망루에서 대학교수 등 문화재 관련 전문가 6명과 불교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사 보유 문화재의 지정문화재 승격 및 비슬산 명승지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유가사에는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용화전, 산령각, 범종루, 천왕각, 백화당, 나한전 등건축물과 낙암과 월호 등 15기의 석종형 부도 등이 온전히 보존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현 前문화재위원,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 홍광표 동국대 교수, 김용기 성균관대 교수, 엄기표 단국대 교수,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등 석학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가사 주지 호암 스님은 “유가사가 보유한 각종 성보(聖寶) 문화재의 관리환경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개강 :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내홍 앓던 광주불교계, 본격 재정비 나선다

조계종 승보회장 연광 스님 선출

그동안 내홍을 앓던 광주불교계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광주지역 스님들의 모임인 광주 조계종 승보회(이하 승보회)는 7월 10일 정기모임을 열고 2년 임기 회장에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그동안 광주불교계는 대표단체인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의 수장 자리가 2년 동안 공석이었다. 이로 인해 201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에는 봉축행사 자체가 봉행되지 못했다. 광주불교계에서는 대표단체인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빠른 시간에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지역 불교계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승보회는 신임 회장 연광

광주불교협의체 구성

재가단체 구성원 포함

중흥 프로그램 진행

스님의 선출과 함께 불교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광 스님은 "지난 2년간 광주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역 불교행사가 2년째 파행적으로 이뤄지거나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불교 중흥을 위해 종단과 계파를 불문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찰과 재가단체가 연합하여 명실상부하게 광주를 대표하는 불교협의체를 세우고, 그 속에서 광주불교 중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승보회가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를 대표할 수 없어서, 승보회를 중심으로 광주지역에서 오랫동안 불교활동을 함께 해오



신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 스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와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연광 스님은 "광주전남신도회, 포교사단 등 재가단체와 함께 실질적으로 광주불교발전을 위한 대소사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재가단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임을 밝혔다.

연광 스님이 밝히 광주불교 정상화 방안은 가장 먼저 승보회 회원사찰이 선도하고 광주지역 중요종단 스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통해 참여하며, 여기에 재가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광주지역 대표 불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 후 광주불교를 선양하는 문화사업을 열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회장의 공석이 2년째 이어온 가운데, 상근자가 없는 사무실은 방치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승련사 석산개발로 수행환경위협

하안거 결제 대중, 발파 진동과 먼지 소음으로 고통받아

전북 대표 비구니 선원인 만행산 승련사(주지 경훤)의 수행환경이 사찰인근 석산개발로 침해를 받고 있다.

만행산 석산개발 장소는 승련사와 불과 750m정도 떨어진 사찰 뒷편 산에 자리하고 있다. 석산이 개발되며 하안거 결제중인 스님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

승련사 측은 6월 중순 마을주민대표, 남원시 경실련 위원장, 불교신행단체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산동면 석산피해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환주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사태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만행산의 석산개발로 인해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오전 11~12시 오후 5~6시 사이에 4차례의 버섯구름을 연상하는 대규모 분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변 생태하천의 수질 오염 및 빈번한 대형 골재

허가 말소상태서 골재생산

폐수처리시설 신고 없어

운반차량 운행으로 도로파괴가 진행돼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남원시에 지난 5월 재허가가 난 A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B업체의 재허가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주민 공청회 등 적법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석산개발 두 곳 중 한 곳이 2010년 허가가 말소된 상태에서도 쇄석기를 설치해 골재를 생산했으며 폐수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석산운영을 제3자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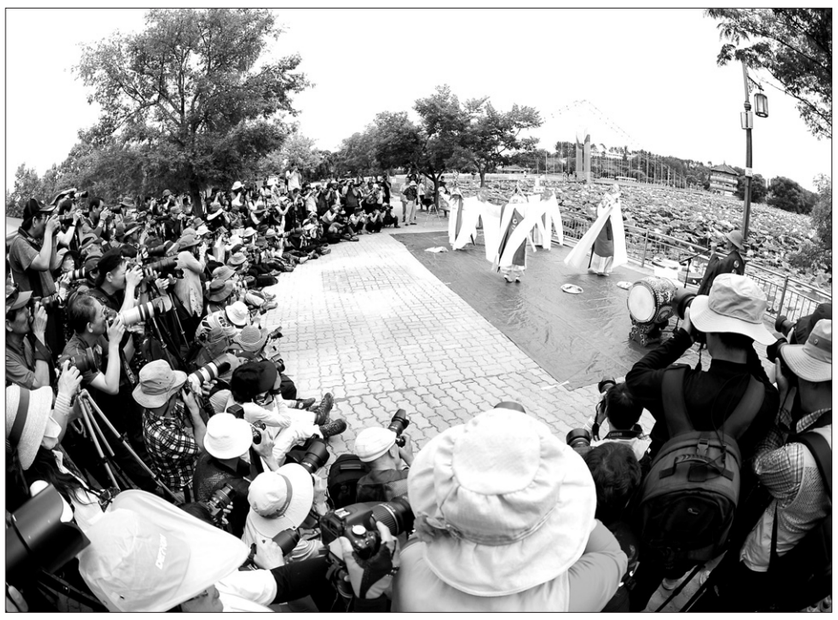
현재 대책위는 승련사를 중심으로 석산개발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주민들과 불자들의 석산개발인허가 취소 촉구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대책위는 2007년 이미 개발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6000여 명의 서명이 남원시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선학원 소속 승련사는 고려 홍혜국사와 송광사 16국사 중 한명인 각진국사의 제자 졸암선사가 37년에 걸쳐 건립한 고찰이다. 현재 비구니 선원인 승련선원에서 20여 운수납자가 수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련사 주변 항공 지도.



연꽃 명소, 전주 덕진공원 연꽃 촬영대회

전국에서 가장 큰 연꽃자생지인 전주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한 '연꽃 촬영대회'가 7월 14일 덕진공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지부장 허광)가 주최하고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 우리문화연구원, 화엄불교대학이 후원한 덕진공원 연꽃 촬영대회에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에서 300여 명의 사진작가들이 동참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가 접수를 마친 사진작가들은 4만㎡의 공간에 피어난 연꽃과 함께 전북 영산작법보존회(무형문화재 18호) 스님들의 작법 시연, 장성 해인사 동자승들을 대상으로 작품 촬영에 임했다. 특히 일반 작가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전북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의 바라춤, 나비춤등의 시연은 작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불교사암聯, 순천교도소 수계법회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범일)는 7월 8일 순천교도소(소장 구지서) 대강당에서 수형자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범일 스님, 정환 스님(순천 흥선사), 순천 가릉빙가 합창단을 비롯해 130여명의 수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계사로 나선 진옥 스님은 법문에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은 억만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삼귀의와 오계의 다짐을 잊지 말고 계율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14명의 수감자가 계를 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 내장사, 자비나눔 효(孝) 의료봉사

단풍의 명소인 정읍 내장사(주지 지선)와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경희대 의료원)가 한마음으로 정읍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제 4회 내장사 자비나눔 효(孝) 의료봉사'를 개최했다. 7월 14일 경희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10개 병원 50여명의 불자 의료진이 내과, 통합의학과, 한방과, 치과, 진단방사선과 진료와 발마사지, 이 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내장사가 주최하고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주관 한 이번 행사는 정읍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점심공양을 제공했다.

또 경내에서는 민요, 가야금 병창등의 국악공연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참여하는 즉석 공연도 열렸다.

지선 스님은 "내장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게될 것이다"며 "단순한 관광사찰이 아닌 수행과 효행을 실천하는 지역중심도량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장사는 이날 행사를 위해 정읍시내에서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며 정읍 파라미타 학생들과 내장사 신도회, 청년회, 선양차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한편, 내장사는 2012년부터는 정읍시민들에 한해 무료입장을 시행해 매년 3억여원 상당의 입장료 혜택을 정읍시민에게 돌려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주 세지중 야구단 전용 야구장 탄생

2012년 호남 최초의 종립학교 야구부로 출범한 나주 세지중학교가 전용 야구장을 마련했다.

나주 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 나주 미륵사 주지)는 7월 12일 옛 세지초등학교에서 원일 스님,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선수와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야구장 개장식을 가졌다.

세지중학교 야구부는 2012년 11월 김성한 現한화 수석코치를 총괄감독으로, 김태원 前 LG트윈스 감독, 김인권, 장승욱 등 프로야구 출신 코치를 포함해 선수 20여명으로 야구단을 창단한 바 있다.

이번 세지중학교의 전용야구장 마련은 세지중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금성이엔씨(주)의 나성범 대표가 폐교된 옛 세지초등학교를 지난 99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활용해오다 후배들을 위해 무상임대해주며 이뤄졌다.

원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선수들이 전용구장이 없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못해 안타까웠는데, 전용구장이 마련돼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 됐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성훈 시장도 축사에서 "세지중 야구부가 야구 불모지인 나주에 새싹을 틔우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보면 사찰입장료 50%

10월 20일까지 열리는 순천 정원박람회 입장권을 잘 활용하면 순천시내 관광지 무료입장은 물론 인근 화엄사, 송광사, 선운사 등 7개 유명 사찰은 입장료의 50%를 할인받는다.

7월 15일 순천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순천시내의 자연생태공원, 낙안읍성 등 순천 대표 관광지 5개소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순천과 전남지역 일부 14개 시도의 관광·명승지는 무료 또는 50%할인 된 가격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타지역 시군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입장·관람료 또한 30~50% 할인이 가능하다.

정원박람회는 개막식 이후 1일 평균 3만 3333명이 입장하는 등 개장 60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해 목표관람객 400만명의 50%를 달성한 상황이다.

박람회 입장권 연계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 홈페이지(www.2013expo.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3년 동산불교대학 4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10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1년차	과 목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대승불교,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교수진	무진장대종사(본대학장), 정엄스님, 김형준교수, 종석스님, 주명철교수 보각스님, 최종석교수, 백도수교수, 윤열수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2년차	과 목	근본불교, 유식사상, 반야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교수진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김형준교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박종교수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3일, 불교미술학과 9월5일, 선·명상학과 9월5일]
✻ 불교 대 학 원 개강 [9월2일, 9월3일, 9월5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7일, 범패의식반 9월4일]

■ 모집인원(불교학과) | 18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3년 7월 1일부터 ~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청소년 포교, 엄마 마음이면 '충분'

반송 원오사 꿈나무 공부방

"반송지역 방과 후 학교를 다니던 초등학생들이 졸업이후 중학교를 가면서 방과 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더군요. 학교를 마친 뒤 떠돌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 차방을 개조해 급히 공부방으로 만든 게 지금의 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7월 17일 롯데 사직구장에는 롯데와 LG의 시합으로 응원 열기가 뜨겁다. 그 사이로 유독 시선을 끄는 이들이 있다. 반송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과 방과 후 공부방의 중학생들이 야구경기 관람을 나온것이다.

오늘 야구장 관람은 특별한 초대가 있었다. 롯데 4번 타자 강민호 선수가 초대를 한 것이다. 강민호 선수와 지금은 일본의 오릭스에서 활동하는 이대호 선수는 반송 원오사 공부방 청소년들과 오랜 인연을 쌓고 있다. 특히 이대호 선수는 정관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2012년 설립한 명정장학재단의 이사이고, 공부방을 설립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동짓날이면 원오사를 방문, 장학금 지급과 볼사인회로 지역 꿈나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원오사는 부산 반송지역에 위치해 있다. 반송지역은 부산사람은 다 알만큼 경제적 여건히 녹록지 못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조손 가정, 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 홀로 집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한창 성장기와 사춘기를 함께 맞이하는 중등과정의 청소년들에게는 이 시기의 멘토링과 정서적 유대는 매우 중요하다.



원오사는 2008년부터 공부방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다. 사진은 사직야구장으로 야구관람을 나간 주지 정관 스님과 학생들

2008년부터 공부방 운영
이대호 강민호 선수 등 응원 '큰 힘'
공간 협소…2층 건물 불사 발원

꿈나무공부방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배현정 선생님은 " '엄마 같은 마음이면 충분하다' 는 스님의 말씀에 시작하게 됐다"며 "운영하는 중간에 큰 위기도 있었지만, '엄마 같은 마음' 이 통했는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다."며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정관 스님은 "2008년 30여명의 후원자가 어느덧 850여 명으로 늘고, 자원봉사 선생님도 10여명이 됐다. 이런 외적인 변화만큼이나 아이들의 경계심, 마음의 문도 넓고 커지는 모습을 보는게 가장 감격스럽다"며 "학생들이 때로는 저를 친구처럼, 큰 형처럼 문자나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내올 때면 서로간의 정서적 교감이 지금을 만든 것 같다"고 운영의 철학에 대해 전했다.

이어서 스님은 "아쉬움이 있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에 비해 공부방이 협소한 것이다.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 반송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공부방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발원하고 있다"며 포부를 전했다.

반송 원오사는 방과 후 공부방은 물론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유아와 아동들의 언어치료장학사업, 독서골든벨 행사 후원, 북한어린이돕기, 승려장학금지급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영호남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훈훈'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7월 12일~13일

지역간의 소통과 문화교류를 위한 영호남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인 '영호남 청소년어울림 출범식' 이 부산에서 개최됐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신라대학교 백양생활관에서 머물며 팀별 게임, 어울림 마당, 출범식, 부산관광 등으로 1박2일동안 화합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에는 여수 중앙여고 120명, 부산 대덕여고 120명, 총 240명의 영호남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7월12일 열린 출범식에는 박수관 본부장을 비롯, 이호근 여수부시장, 백운현 부산정무부시장, 김수병 부산MBC사장, 박태학 신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박수관 본부장은 "영호남의 지역간 소통과 문화교류를 위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교류를 맞이한 게 어느덧 9년째를 맞이한다"며 "짧은 만남이지만 좋은 벗이 되어 나라와 기업의 일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7월22일부터 7월25일까지 여름방학 청소년 특별프로그램으로 '나눔+배움, 부산사랑이 자란다' 사업을 진행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주최한 영호남 어울림 한마당

2013부산연등축제 회향법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는 7월17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3 부산연등축제 평가 및 회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회향보고, 표창 및 시상, 하반기 주요사업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시상에는 종합우승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최우수상에 진각종 부산교구가 차지했으며, 창작등 경연대회 대상은 여래사불교대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한마음선원 종합우승 수상 장면

몽골 이주민 위한 '나담축제'

마하이주민센터 주최 7월 14일 잔디광장서

몽골 전통축제 '나담축제' 가 대구의 불교단체 주관으로 열렸다. 국제 불교교류 단체인 '함께하는 세상' 산하 단체 '마하이주민센터' 는 7월 14일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 잔디광장에서 '제2회 몽골 나담축제' 를 개최했다.

몽골 이주근로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축제는 몽골씨름과 팔씨름, 줄다리기, 달리기 등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몽골 춤과 음악 공연도 마련돼 몽골 이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즐거운 한마당이 되었다.

마하이주민센터 지도법사 덕현 스님(아미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몽골 이주민들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힘든 타국 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전통사찰의 냉난방기 설치

기후변화 때문인지 이제는 한국에서 여름나기가 쉽지 않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허덕거리기도 하고, 계속 비가 내린 탓에 대기가 습해지면서 주변이 온통 짜증부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어린시절에는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해도 요즘 같지는 않았으며, 덥다고 해도 계류에서 탁족을 즐기면서 수박 한 덩이를 나누어 먹으면 더위가 저만치 달아나곤 했다. 이것을 보면 최근 들어 기후가 달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위를 맞이하는 방법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고 더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올 여름은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있다. 국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는 전력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관공서나 대부분의 기업체, 심지어는 학교나 학원까지도 정부의 전력사용제한조치에 따라 실내온도를 27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근무환경이나 수업환경이 최악의 상태이다.

거기에 비하면 산사는 속세와는 동떨어진 별천지이다. 산사에 가면 공기가 맑고 바람이 시원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식으면서 청량하고 소쇄한 기분이 든다. 그러하니 산사에서 여름을 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선의 세계에서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 몇몇 사찰에 가보면 건물 후면이나 측면에 에어컨 실외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산사에도 에어컨이 필요한 시절이 온 모양이다. 산사에 사는 스님들도 산문을 나서면 에어컨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산사에 다니러 온 불자들도 에어컨 바람에 익숙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산사에서 보는 에어컨은 왠지 어색하기만 하다.

이번 여름 들어서면서 조계사에서 에너지절약에 동참한다는 선언을 하고 사부대중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에너지절약을 하는 사찰이 조계사만은 아닐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역시 우리 스님들이야!" 하며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실로 보살행과 자비행을 스님들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일이어서 불자로서는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여름 모든 이들이 에너지 절약 정신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전력대란이라는 부끄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불교계가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선다면 불가에서 전통적으로 실천해온 절약하는 모습을 세간의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냉 · 난방기용 실외기는 전통사찰에 어울리지도 않고 에너지절약과도 맞지 않는다. 경기도 ㅂ사찰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눔투어모집]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 · 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무더위 속 '하안거 현장' 서 좌선 삼매

의왕 청계사 제4회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

대승사 대승선원 · 용문사 · 직지사 천불선원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7월 18일 문경 대승사 · 대승선원과 예천 용문사, 김천 직지사 · 천불선원를 참배하는 제4회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 를 봉행했다. 이날 순례에는 순례단 단장 성행 스님을 비롯해 43명의 순례단원이 함께 했다.

문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움도 잊은 참선현장. 대승선원에서 순례단장 성행 스님과 순례단원들이 좌선 삼매에 들었다. 수좌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 기운이 순례단에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다.

7월의 무더운 열기가 온몸을 휘감는 하루. 의왕 청계사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 순례단' 은 문경으로 네 번째 발걸음을 디뎠다. 바깥의 더위야 아랑곳하지 않고, 내면에 숨 쉬는 욕망이란 불길을 끄기 위해 순례단은 바삐 길을 청했다.

울창한 숲속 금강송을 벗 삼아 꼬불꼬불 올라간 산 중턱에는 아담한 사찰 대승사(大乘寺)가 순례일행을 맞았다. 대승사가 위치한 곳은 해발 600m. 사람이 수행하기 가장 좋다는 높이여서일까. 시원한 바람이 주변을 서성인다. 서울에서 먼 길을 재촉하느라 느꼈던 조급함도 바람과 함께 날아간다.

이번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 순례' 에는 새로운 단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늘어난 인파로 인한 소란이 혹여 수행에 방해가 될까봐 순례단장 성행 스님은 누누이 정숙할 것을 당부했다.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순례를 고하는 순간 왼편의 대승선원(大乘禪院)에서는 청량한 기운이 느껴졌다. 수행의 치열하고도 맑고 기운이다. 안거에 들어선지 2달째, 벌써 한소식이 들려오는 듯하다. 이번 하안거에 대승사 대승선원에는 비구계를 갓 받은 스님부터 법랍이 30년을 훌쩍 넘긴 스님까지 모두 25명의 납자(衲子)들이 방부를 들였다.

대승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수행처로 이름이 높았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사불산을 사이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만나 서로의 수행을 점검했다고 하며, 고려시대의 대선사 나옹혜근도 대승사에서 출가했다. 성철, 월산, 청담, 자운 스님 등 내로라하는 선지식이 수행처로 삼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성철 스님은 당시 3년간 눕지 않고 앉아 수행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계속했다. 봉암사 결사의 논의도 대승사에서 이뤄졌다.

근대 불교의 거목들이 거쳐 간 곳이어서인지 대승선원의 수행은 치열하다 못해 혹독하다. 대승선원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정진하는 여느 선원과 달리 하루 14시간씩 가행 정진한다. 해우소에 가는 10분조차도 지체가 있다면 방석을 치워 버리는 곳이다. 수면시간도 3~4시간에 불과하다.

진짜 3시간여만 자고 수행을 3달동안 할 수 있을까? 선원장 철산 스님의 답은 명쾌했다.

"보살님들, 아이 낳을 때 하늘이 노래지죠? 그런데 둘째 아이는 왜 낳습니까? 후손을 남긴다는 일념 하나 앞에는 아이 낳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는 고생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대승사에는 산철결제 3 · 7일간 용맹정진을 합니다. 잠을 안자도 잠을 많이 잔 사람보다 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다보니 스님의 낯빛이 참 깨끗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리부리한 눈썹은 짙은 검은색이다. 스님은 선원장과 주지 소임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선원 스님들보다 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도 눈에서는 정광이 흘러나왔다.

스님들이 점심공양을 올리러 간 사이 순례단은 잠시 대승선원 선방에 앉아 입정에 들었다. 스님들이 떠난 후 잠시 선방에 앉아 선정에 든 순례단원들의 모습은 자못 진지했다. 혹여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될까봐 입정은 짧게 끝났다. 순례단원들은 조용히 선원을 빠져나왔다. 어느 순례단원은 선방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사색에 잠겼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성불한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스님들의 큰 원력으로 선원을 찾은 모든 이들이 함께 성불할 것 같은 기분이 절로 들었다. 다시 대웅전에서는 선방 수좌 스님들에게 공양물이 전달되고 참된 신행활동을 펼치겠다는 수계의식이 진행됐다.

참배를 마치고 나온 길, 성행 스님은 대승사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월산 스님이 대승선원에서 수행할 때의 일화였다.

"월산 큰 스님께서 대승선원에 계실 때 간간히 스님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스님께서 수행 중에 자주 살피시던 소나무 한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열반 하신 후 그 소나무가 점점 말라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스님의 법력이 서린 나무여서 스님을 그리워하는 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승사에 올 때마다 큰 스님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선원 찾아 의약품 등 공양물 전달
안거 수좌 용맹정진 따르길 서원

대승사를 나선 순례단은 구불구불 호반길을 따라 예천 용문사로 향했다. 호반길의 호젓한 분위기와 산사 특유의 향취가 가슴 속 깊이 전해졌다. 용문사는 양평 용문사가 용의 머리, 예천 용문사가 용의 몸통, 남해 용문사가 용의 꼬리란 말이 전해지는 곳이다. 예천 용문사 참배는 한반도를 가로 누운 용의 진신을 살핀다는 의미도 있었다. 여기서 순례단은 용문사 대장전에 보관된 윤장대를 돌리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용문사 윤장대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불경 보관대로 이를 돌리면 한 가지 소원이 이뤄진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1984년 대형화재 때도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던 대장전은 불에 타지 않아 영험함이 더욱 유명해졌다. 조심스럽게 윤장대를 도는 순례단원들은 각자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궁금함도 잠시 용문사를 되돌아 나와 각자 향을 들고 소원지를 소지하며 순례단은 김천 직지사로 발길을 옮겼다.

해는 어느덧 중천을 지나 직지사가 위치한 황악산 자락 끝에 걸리고 있었다. 김천 직지사는 신라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인 신라 19대 눌지왕 2년(418) 고구려 승려 아도 화상이 포교 전진기지로 쓰기 위해 창건한 신라 초전법륜지다.

절 이름이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의 선종 교지에서 나왔다는 설과 아도 화상이 우리나라 최초 사찰이라고 하는 구미 도리사를 짓고 나서 황악산을 가리키며 저 산 아래도 좋은 절터가 있다고 해 직지사가 되었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직지사에 들어서서 병풍처럼 둘러싸인 황악산 자락을 마주하니 온몸에 청아한 기운이 감돈다. '동국제일가람황악산문(東國第一伽藍黃岳山門)' 이란 웅장한 산문 양 옆으로는 짙은 녹음이 알싸한 숲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귓가에 양쪽 길섶으로 소담스럽게 파인 골도랑의 콸콸거리는 물소리가 도시에서 일상생활에 지쳐있던 순례단의 머리와 가슴을 확 트여주며 행복감에 젖게 했다.

순례단은 직지사 설법전 왼쪽으로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도피안교(到彼岸橋)를 건넜다. 다리를 건너자 피안 세계 천불선원이 펼쳐졌다. 천불선원에서는 하안거를 맞아 스무 명이 넘는 스님들이 불철주야 정진하고 있었다.

천불선원 선원장 성고 스님은 "저 스님이 참 맑다 해야 불심이 사는데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맑은 미소를 뗬다. 순례단은 선원 이름처럼 현세 천 분 부처님이 나투도록 두 손 모아 기도 올렸다.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린 자연 순례단 회장은 "기름을 물위에 떨어뜨리면 한 방울이 여러 방울 흩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처음의 한 방울처럼 모여든다. 오늘 우리 인연이 언젠가는 성불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무더위에도 끝까지 함께한 순례단원들을 격려했다.

성행 스님은 "내가 한발 한발 디디는 그 순간이 참 나를 알 수 있는 경계가 돼야 한다. 삼보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 스스로가 함께 행복해 한다면 그 것이 진정한 공양이라 할 수 있다"며 "순례단과 그 행복을 찾기 위해 힘들지만 함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순례 회향을 알렸다.

정갈한 산사를 등지고 나오는 길, 천불선원에서 마신 시원한 차보다, 길옆을 흐르는 시원한 냇물보다 더 갈음을 해소하는 시원함이 느껴졌다. 깊고 깊은 산속 선원을 찾아가는 여름 나들이가 향기로운 해거름이었다.



대승선원에서 참선에 열중하는 순례단



대승선원장 철산 스님이 용맹정진을 주제로 법문하고있다.



천불 선원 공양물을 성고 스님에게 전달하는 자연 순례단장



예천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리는 순례단원들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순례를 회향하는 장면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출발일 : 2013년 8월 24일, 8월 31일 (단, 2회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출발일 : 2013년 8월 28일

■ 마하연 실속 팩 상품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4인이상 출발가능)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7일 요금문의

■ 김해공항 타이항공 – 베트남 항공 출발
양곤 / 바간/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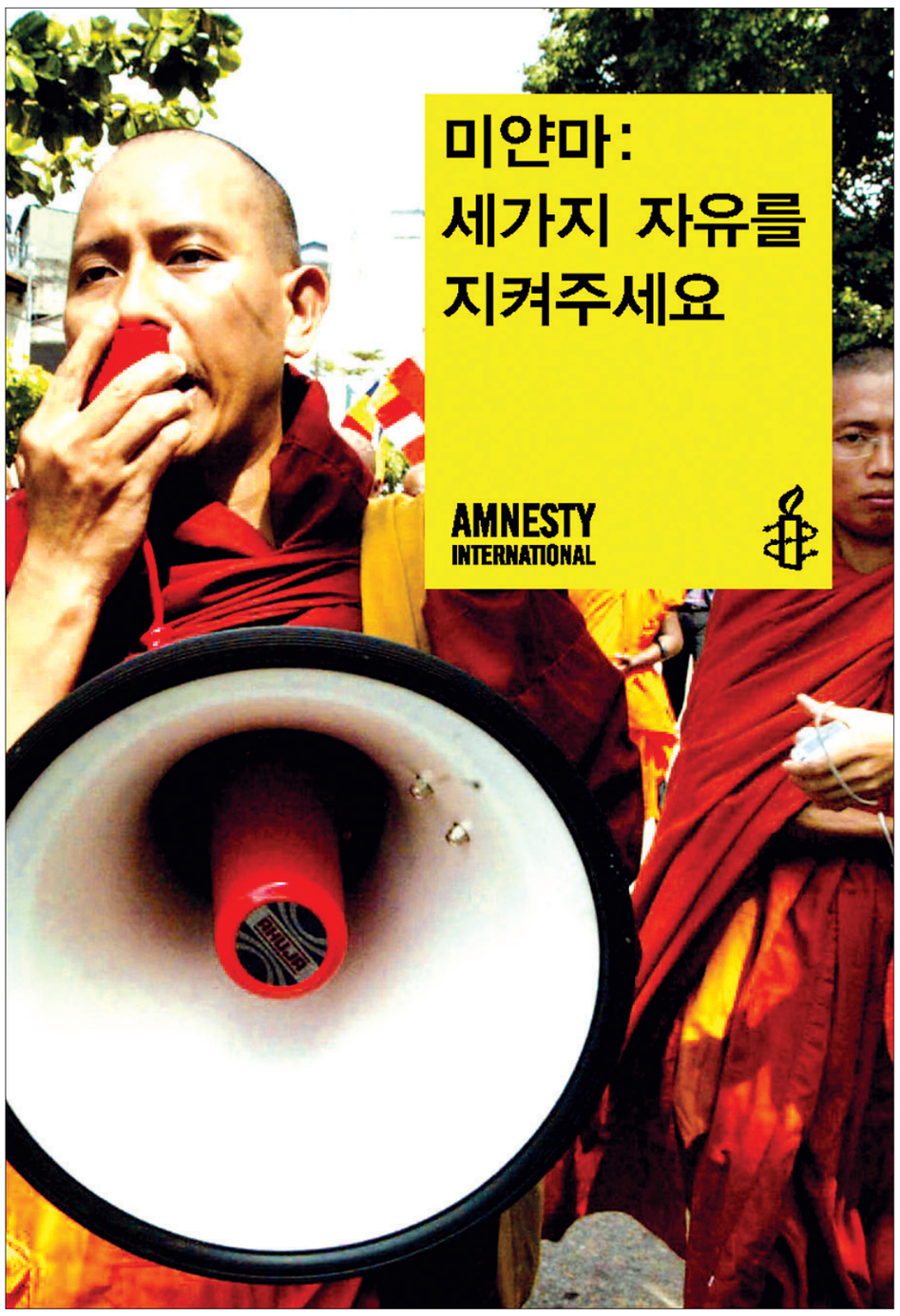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

미얀마 불교 이야기
8. 미얀마 불교민족주의

대의 앞에 총칼 두려워하지 않는 승단의 힘



2010년 10월 국제엠네스티 캠페인 자료에 실린 미얀마 스님들의 민주화운동 시위 모습(상)과 1988년 8월 8일 열린 민주화 항쟁 당시 스님들의 모습(하)





최근 미얀마 서부에 이어 중부지역에서도 불교와 무슬림 간의 폭동이 일어나 세계 주요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미얀마 서부에서는 200여 명이 죽고 14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지를 잃었다. 최근 중부에서는 약 44명이 사망했다. 중부는 영국지배기간에 인도로부터 이주한 무슬림들이 많다. 미얀마에서 반무슬림 현상은 영국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배양된 불교중심의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

미얀마를 여행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학자들은 불교와 미얀마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학자들은 불교가 깊이 생활화돼 있는 미얀마에 대해 놀라움을 표한다.

저명한 미얀마 연구자인 실버스타인 교수는 "미얀마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야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미얀마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다"라며 불교가 미얀마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까지 평하기도 했다.

과거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얀마는 불교, 국가, 승가, 국민이라는 네 요소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 네 요소의 긴밀한 상호 관계로서 사회적 통합력을 유지하며 내려왔는데 바로 영국식민지배기간에만 이러한 관계가 깨져버렸다.

즉, 영국식민정부에 의해 국가와 다음 3가지 요소인 불교, 승가, 국민의 긴밀한 관계는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식민정부는 불교의 후원자나 보호자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거부하였다.

이전까지 불교의 주도 하에 또는 불교를 구심점으로 미얀마는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다. 영국 식민정부가 불교를 후원하지 않은 것은 이후 식민지배 실패 원인으로 꼽혔다. 식민지배를 거치며 미얀마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얀마 민족주의 운동이 가속화됐다. 불교를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또는 반식민주의 운동이 전개, '불교 민족주의'로 발전했다.

사찰 착화 항의 계기로 민족주의 전개

미얀마 민족주의를 이끈 스님들로 먼저 우 띠라 스님이 이야기된다. 그는 동굴이나 묘지 등의 노천을 전전하면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금욕적인 수행에 미얀마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여 많은 물품을 스님에게 보시하였다. 스님은 이러한 시주물을 바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시 회향하였다.

이 같은 모습이 사람들을 뭉치게 하자 영국식민정부는 그를 체포했다. 하지만 어떠한 죄목도 적용할 수 없었다. 그의 이 같은 두타행과 시주물의 회향은 미얀마 사람들이 같은 민족임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다음으로 미얀마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했던 스님은 앞 호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레디 사야도 스님이다. 그는 신발을 신고 사찰에 들어오는 유럽 관광객들의 무례를 비판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에도 위빠사나 수행의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는 인도로 성지순례하면서 불교의 중심 가르침인 연기법에 관한 저술과 함께 빠알리로 된 부처님의 생애를 미얀마어로 옮겨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렸다. 마을을 돌면서 불교모임을 열고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설명해 주는 설교자로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불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인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낳았다. 결국 미얀마의 청년불교도연맹(YMBA)이 스리랑카 청년불교도연맹과의 교류 속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였다. 1906년에 창립된 청년불교도연맹은 향후 10년 운동의 방침을 종교 문화에 대한 문제가 중심임을 천명하여 영국식민정부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연맹은 전국에 불교학교를 개설하여 불교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때 식민정부로부터 50%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영국정부는 미얀마 국민의 세금으로 기독교 미션 학교에 50%의 지원을 하고 있었기에 불교 측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미션학교가 성경을 가르치듯이 불교학교에서도 불교교육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시행하였다.

불교사찰 내에 유럽인의 착화사건을 계기로 착화를 항의하는 스님들이 체포되고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결국 식민정부는 사과와 함께 탈화를 공식화하였다.

영국식민정부, 조직체로서 승가 견제
불교 주축 독립 운동 민족주의 발전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의 선례로 남아

민족주의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스님 옥사

스님들의 민족주의 운동 과정에서 우 위자라(U Wissara) 스님과 우 옥뜨마 스님이 정치적 또는 대중적 지도자로 역할을 하였다. 1921년 우 옥뜨마 스님은 불교적 민족주의를 담는 대중연설로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흔히 출가자의 정치적 사회참여는 계율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계율 전통이 온전한 미얀마에서 출가스님의 사회참여 논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는 불교대의(大義)를 통해 역사대의(大義)와 사회대의의 모두를 실현하려는 보살도는 앞으로도 계속 음미될 것이다. 특히 불교의 궁극적 구원이 현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역설한 부분은 더욱 그렇다. 그는 불교의 비폭력 정신에 의거하여 영국식민정부와 투쟁에 있어 비폭력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그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불교적 투쟁 방법으로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은 자타카(本生經)를 인용하여 대중들을 깨우쳤다.

우 옥뜨마 스님은 영국정부에 세금납부 거부와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펼치다 옥사했다. 그는 투옥 당시 죄수복 대신 가사를 입도록 해줄 것을 주장했으며 형무소에 수감돼서도 보름 마다 포살을 펼쳐야 한다며 166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단식농성으로 인해 그는 옥사했지만 그의 사상은 미얀마 국민들의 반영사상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정부는 다른 스님들이 투옥되었을 때 가사 착용과 포살 거행을 인정했다.

이후에도 수많은 스님들은 영국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지도자가 돼 반영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스님들이 투옥되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군부독재에도 민주화 운동 펼쳐

불교 지도자인 스님들이 외세에 의한 식민주의 저항하는 민족주의 운동의 선봉이 됐고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스님들이 밤색 가사를 입고 정연한 대오를 형성하는 대규모 비폭력 시위는 외국인들에게는 장엄하게까지 느껴지게 했다. 2007년 9~10월 진행된 민주화 시위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화제를 낳았다.

당시 군사정부가 일방적으로 유가를 대폭 인상해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자 스님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시위 참여 스님들이 군사정권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발우를 거꾸로 뒤집는 복발(覆鉢)을 하고 행진했다.

부처님 시대부터 스님들이 재가자들 앞에서 발우를 뒤집어엎는 것은 작복(作福)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다. 복발은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로부터의 보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행위였다.

현재에도 미얀마에서 스님들은 사회문제에 있어 지도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미얀마 스님들이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불교정신으로 역사와 사회의 대의를 실현하려는 이러한 희생적인 보살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앞서 말한 대로 미얀마에 있어 불교가 국민들과 사회에 깊이 생활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교와 떼어서 미얀마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과 같은 여섯 이유는 한국불교에도 큰 시사점을 던진다. 미얀마에 있어 외세지배 상황에서 스님들의 역할은 우리의 과거에 있어 임진왜란 때의 승병의 활약과 비교할 수 있다. 승병은 외침과 환란 속에서 살육을 당하는 중생의 처참한 현실을 방관하지 않고 출가자로서 계율에 어긋나게 칼과 창을 잡았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조선왕조가 결국 승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승가라는 조직체였기 때문이다. 승가는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독살이의 세상에서 대의(大義)에 따라 가공할 만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합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했다. 미얀마에서도 군사정부가 가장 견제했던 조직체가 승가인 이유도 그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계는 이러한 화합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보다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碧巖錄
전 5권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신국판 | 145,000원(세트)



석지현 역주 해설본 《벽암록》의 특징
① 국내 최초 《벽암록》 완역 해설본!
② 수시 · 본칙 · 착어 · 평창 · 송 · 송착어 · 송평창을 모두 번역하고 해설한 책!
③ 벽암록 전문(全文)의 원문 수록과 현토 작업 완료!
④ 벽암록 네 개의 이본(異本) 대조!
⑤ 벽암록 100칙 공안 하나하나마다 활구(活句, 참구할 부분)와 사구(死句, 이해할 부분)를 일일이 구분하여 제시한 책!
⑥ 장장 10년에 걸친 역주 작업, 출판기간 3년!
⑦ 벽암록 속어 낱말사전 완성!

8월 초 출간 예정!
무비 스님의
《서장—이것이 간화선이다》
《벽암록》과 함께 간화선 교과서의 쌍벽이라 할 수 있는 《서장》, 무비 스님의 강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월 초 출간 예정! 예약판매 중.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더운 여름,
마음의 휴식을 주는 책을 선물하세요.



탄허 허공을 삼키다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 자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과 함께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스님의 친절한 해설
■ 보경 스님 지음 | 376쪽 | 15,000원 | 무선(신국판)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지혜와 자비를 열어준다.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불교경전 《숫타니파타》. 《숫타니파타》 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보경 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
■ 정승석 지음 | 232쪽 | 10,800원 | 무선(4×6판)
행복의 법칙! 무아 · 무심 · 하심, 나를 버리면 정말 행복해질까?
우리는 무지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바라는 강도가 셀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도 간단하다. 바라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다양한 실례를 들어 일깨워 주고 있다.

Tel. 02)732-2403~4 민족사

“나의 ‘道 정신치료 이론’ 탄허사상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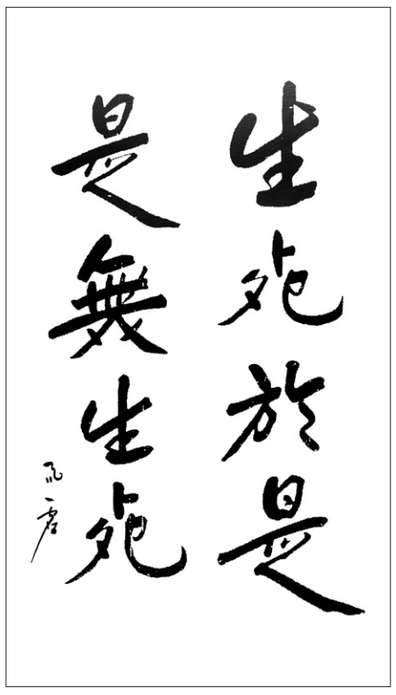
方山老의 無影樹 〈22〉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이동식



이동식 이화여대 · 경북대 교수
정신치료학회 회장. 신경정신의학회 회장 등 역임
현재 정신과 의사

〈서장〉공부, 불교가 ‘정신치료’ 확인
스님 만나는데 2년 걸려
가르침 핵심 ‘유불선은 하나’
“비굴하지말고 자존심 가져라” 강조
스님 정체성 한마디로는 어려워



生死於是 是無生死 巽庵

생사어시 시무생사(生死於是 是無生死) “생사가 이것이요, 이것이 생사가 없는 소식이다.”
탄허대종사께서 쓰신 부안 내소사 해안선사 비문에서 발췌.

-일제 말기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가치를 느끼셨군요. 미국에 갔다 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요?

내가 미국에 정신분석을 공부하러 1954년에 갔는데, 앵커리지에서 기름을 넣는다고 할 때 72세 된 캐나다 사람이 내 옆자리에 탔어. 그 사람이 날보고 “어디로 가느냐”고 그래. 그래서 뉴욕에 간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엇하러 가느냐”고 해서, 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미국은 기초가 없는 고층건물이라고 그랬어.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붕괴된다고 하였단 말야. 그러면서 장차 미국은 도(道)가 프리베이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구. 그런 말을 듣고서 미국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해 보니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야. 시간이 너무 걸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원래는 뉴욕대학에 3년 있으면서 공부하려고 하였는데 마지막 1년은 계약 취소해 버리고 1958년에 그냥 와 버렸어. 돈도 많이 들고, 배울 것도 없어서 2년 있다가 돌아왔지. 돌아오면서 구라파를 돌아보고 왔는데, 그때에 베니스 섬에서 열린 세계 제1회 철학자대회에 참가해서 서양 일류 철학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 보니, 이게 뭐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야. 나는 귀국해서 생각하기를 한국 전통문화가 세계 최고이다, 한국인이 최고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 그러나 이런 생각을 얻어도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왜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깐.

-그러셨군요.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불교에 관심을 가졌는가요?

내가 1962년부터 성북동에 동북의원이라고 해서 정신병원을 냈어. 그것이 언제인가? 그런데 역경원에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걸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로 보냈어. 그 사람은 역경위원인데 대처승이고, 대전 보문학교의 교장이었어. 이 사람이 여기 2층에 입원해서 있었는데 처음 1주일은 아무 말도 없다가, 그 이후에는 〈서장(書狀)〉을 꺼내서 보더라구. 그 사람이 그 책을 보면서 나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더라구.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답을 하다 보니 불교라는 것이 완전히 정신치료라는 것을 알았지. 불교가 순전히 정신치료다 이거야. 불교의 근본은 집착을 없애는 것이야. 나는 애응지물(碍膺之物)이라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정신분석으로 말하면 핵심감정이지. 그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날보고 그 책을 한번 번역해 보라 그러는 거야. 그때에는 지금보다 한문 실력이 더 있었어. 그렇게 답을 하면서, 불교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런 인연으로 불교를 알게 되었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래서 나는 동국대 조명기 총장을 찾아갔지. 조명기 총장은 일제 시대에 경성제대 종교사회학과 조수로 있었거든, 나는 정신과 부수(副手)로 있었으니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동대 총장실로 찾아갔지. 그래서 만났지. 그게 1965년이야. 그래 조명기에게 우리가 불교를 배울 터이니 강사를 소개하라 그랬어. 그래서 소개받은 이가 죽은 이희익과 조계종단 교무부장을 하던 숭산 스님이야. 숭산 스님은 그때에는 행원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희익은 찾지 못해서 우리들은 행원 스님에게서 서장을 배우기 시작했어.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곳은 서울대병원에 학생심리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작했어. 그런데 그 연구소의 조교가 방해를 해서 철학교수 연구실에서 했어. 방해한 조교는 서울 문리대 교수를 하다가 은퇴했지. 그런데 숭산 스님하고 시작하다가 숭산 스님이 많이 바빠서 두 번인가를 하다가, 자기 후임으로 넘긴 사람이 월운 스님이야. 월운 스님에게서 끝난 거지. 〈서장〉을 다 떼었거든. 그때 배운 사람이 서울대 철학과 교수와 심리학과 교수, 대학원생들이었어. 정신과 교수는 나중에 들어왔어. 김규용이라고 동국대에 있다가 서강대로 간 그 친구도 들었어.

-그러면 이제 탄허 스님과의 만남을 들려주시지요.

나는 그렇게 동양사상을 공부하면서 정신분석과도를 결합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누가 그랬나? 동양사상의 도에 대해서는 탄허 스님이 많이 안다고 그래. 세월이 오래가고, 내가 금년부터는 기억이 좋지 않아서 소개해준 사람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학회에서 초청하려고 하였는데 잘 안 되었어. 그래 2년이 안 되어서 탄허 스님이 동국대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갔거든. 탄허 스님이 바쁘다고 하면서 기회를 안 주어서 간 거야. 동국대에 참선하는 데(대학선원)를 가서 나도 참선을 한 시간 이상을 하고서 그때 만났는데, 만나는 데 1~2년 걸렸지. 그게 아마 처음이지. 그 이후로는 자주 만나게 되었지.

-참으로 어렵게 만나셨군요. 그것이 1966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만난 장소가 주로 어디였나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고려대 옆의 대원암이야. 대원암에서는 단 둘이 많은 이야기를 서로 하였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탄허 스님이 나를 초청해서 월정사에 같이 간 적이 있어. 동국대학 불교대 승가학과 1기생의 첫 연찬회를 월정사에서 5박 6일 하였는데, 그때 나하고 동료 교수인 박홍규 교수, 서울대에서 플라톤 철학을 전공한 그 교수와 김규용이라고 중세철학을 한 우리 또래인 그 교수도 같이 갔어. 그러고 또 내 제자들 상담하고 심리학하는 교수들도 갔거든. 교육 프로그램을 하니깐,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것이지. 그래 그런 연찬회를 하니, 나도 강연해 달라고 해서 갔어. 고속도로가 나지 않았을 때, 울퉁불퉁하는 길을 버스를 타고 갔지. 그때 탄허 스님이 월정사 조실로 있었거든. 그때 내 나이가 사십대였을 거야.

-탄허 스님이 고려대에 가서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하였어요. 이런 강의에 이박사님이 관여하신 것이 없나요?

그거는 탄허 스님의 부탁으로 내가 만들어 준거야. 월정사에서 연찬회를 마치고 내가 서울로 돌아올 때에 탄허 스님이 버스 타는 데 와서 지식인들을 모아서 뭘 강의하도록 해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어. 그래서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게 됐지. 그때에 배운 책이 아직도 여기에 있어. 그리고 화엄경을 번역해서 낸 몇 십 권 책도 그때 돈 50만 원 주고 산 것도 있어. 하여간 그래서 내가 고려대 교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강의를 듣도록 하였어. 그래서 외부인도 오고 그랬어. 강의한 것은 장자와 영가집 등이었지.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 많아서 좌석이 모자랐거든. 그래 서서도 듣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에는 학생 데모가 심해서 휴교령이 자꾸 내리고 그래서 사람수가 자꾸 줄고 그랬어. 또 탄허 스님이 고대 철학과 교수인 손명현 교수를 자주 놀리고, 수도 줄어서 30명밖에 안 되니 탄허 스님이 재미가 없어 그만 하려고 여러 번 그랬어. 하도 그러기에 탄허 스님이 나보다 나이가 여덟 살인가 더 많았지만, “스님이 불교를 더 잘 아나, 내가 불교를 더 잘 아나 한번 해 보실까요” 그랬어. 대종사(탄허 스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구(이 대목에서 이박사는 ‘허허’하면서 웃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깐 탄허 스님도 웃으셨지. 운허 스님은 강의를 할 때에 한 사람만 있어도 했거든.

-탄허 스님과 박사님은 만나면 서로 좋은 기분이었겠네요?

나와 탄허 스님은 만나면 서로 좋았지. 탄허 스님은 풍전호텔에서 몇 백 명에게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모임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깐 제일 좋아했지. 그리고 참 탄허 스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사람이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스스로 남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지도 말고 남을 너무 높이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했어. 이 말은 비굴하게 살지 말고, 자존심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그러니깐 자존심과 도는 같은 것이야.

-탄허 스님에게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탄허 스님에게서 제일 크게 얻은 것은 유불선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지. 내 생각과 완전히 같은 거야.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아. 내가 주장하는 도정신치료라는 것은 서양의 정신분석하고 동양의 도가 같다는 것이지.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가 결국 하나라는 것,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깐 박사님의 도정신치료는 탄허 스님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군요?

영향이 있지. 누가 나하고 의견 일치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 딴 사람은 없었어. 내 말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자신이 생기지 안 그래? 내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은 탄허 스님밖에 없지. 나의 이론은 탄허 사상에서 시작된 거야. 유불선이 하나라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탄허 스님의 첫인상이라고 할까, 느낌은 어떠하셨는가요?

그때 탄허 스님이 50대였지. 탄허 스님에게서 들은 것이 직지인심 자심반조인데, 그것도 핵심이지. 서양의 정신분석, 정신치료에서 공감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일치해. 직지인심 견성성불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은 동서양이 일치해. 내가 주장하는 도정신치료는 개념이 아니고, 경험이야. 경험만이 진리라는 것이지. 서양에서도 이론과 지식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탄허 스님도 입산 이전부터 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찾다가 불교에 입문하셨지요?

나도 그런 것은 본인에게서 들었어. 입산 이전에 유교와 장자를 통달하였다고. 그래서 딴 사람과 달리 내가 탁 들어왔지. 그래서 나하고는 기분이 좋게 만났을 거야. 그리고 탄허 스님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 날보고 정치교수라고 농담을 하고 그랬어.

-박사님은 탄허 스님 이외에도 경봉 스님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봉 스님을 만난 것은 1972년 근처일 거야. 탄허 스님을 만날 때에 비슷하게 만났어. 내가 만난 스님 중에서 선이 제일 깊은 스님은 경봉 스님이야. 그 스님은 순수 도인이지. 탄허 스님은 유불선 회통을 주장하여서 경봉 스님과는 약간 달라. 그리고 도선사에 있던 청담 스님과도 만났지. 청담 스님이 거처하는 절에서 4박 5일간 있으면서, 먹고 자고 그랬어, 심리학 · 철학 교수들하고. 청담 스님도 정신분석을 이용해서 법문을 하고 그랬는데, 정신분석과 불교에서도 자존심과 정신건강이 핵심이야. 정신분석에 투사라는 말이 있어.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마음을 밖에서 본다는 것이지. 청담 스님은 바른 마음을 설명할 때에 그림도 그렸는데, 그런 것이 정신분석과 완전히 통하지.

-박사님이 지켜본 탄허 스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탄허 스님의 정체성은 학승으로는 최고이지. 물론 탄허 스님은 내가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인 힘이 있지. 그러나 학승보다는 도(道) 쪽에 정체성이 많지. 탄허 스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려워.

-얼마 전 박사님께서는 도(道)정신치료를 개척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정신치료가 후학들에게 계승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의 사상에 불교의 영향이 있다는 것도 더욱 분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 지금은 미국 친구가 많이 하고 있어. 내 철학에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어. 도 치료를 정립한 것, 내 사상에 불교가 있다는 것은 후세에 참고가 될 것이야.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이런 것을 한 것도 50년 넘게 공부한 결과야. 지금은 나처럼 한 분야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 예전에 학자들은 독립정신이 많았다구. 요즈음 학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운허 스님도 그렇고, 이상은씨도 그런 말을 했어. 그 전의 학자들은 독립정신이 있었다구. 운허 스님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절에 숨어서 스님이 되었다고 그러잖아.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한국전통채색학교 – 수강생모집

□ 모집기간 : 7월 ~ 9월(90일간) /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 개강 : 10월 6일(5개월 20회)
• 한 탱화과(후불탱, 신중탱, 지장탱, 여래탱, 일로왕탱) 지원자격 – 사찰 스님
• 기초기반(도안)과 지원자격 – 전문가 • 민화과 지원자격 – 전문가
• 수강장소(선택) – 서울 목동 / 경북 경주 / 부산 서면

• 경주 054)774-0988 / • 부산 051)332-0045, 010-9388-0988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알음알이’로는 생로병사 해결 못해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3〉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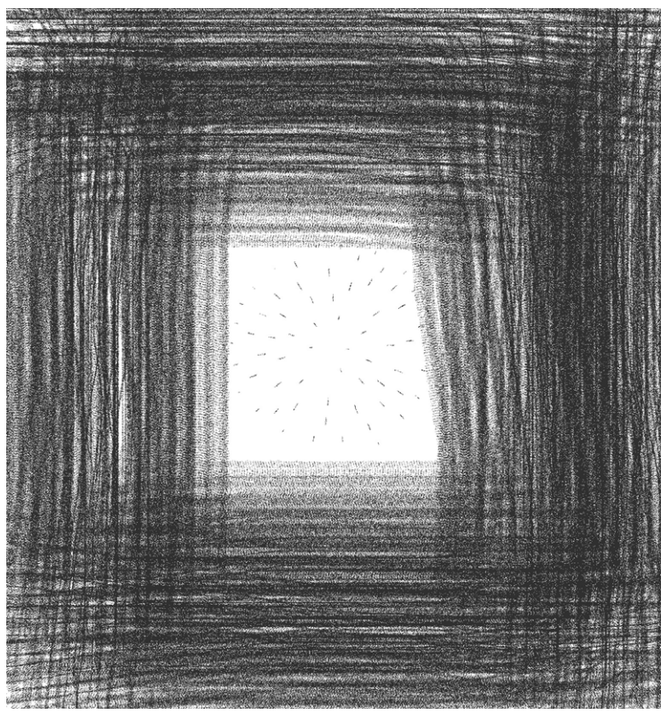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4. 마음과 성품은 다르지 않다

배휴가 물었다.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육도만행을 다시 닦아야 합니까?”

배휴 정승은 “마음 알았으면 그만이지, 왜 또 육도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하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알음알이로는 생로병사 같은 인생의 근본문제로 인한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배휴 같은 지식인들은 자꾸 머리로써 풀려고 하는 습이 남아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으로, 육도만행과는 상관이 없다. 육도만행이란 그저 교화의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변사(邊事)일 뿐이다.

육바라밀이나 보살도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마음 깨닫는 데는 상관없다. 천년만년 육도만행을 닦는다 하더라도, 다만 그런 업을 익히고 마는 것이다. 깨달음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다. 나머지 일체 행은 부수적인 변사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아예 입문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런 이들을 피안으로 건네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선업을 쌓도록 가르쳐서 믿고 들어와 공부할 수 있는 입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문 연각이 어떻고, 보살이 어떻고, 벽지불이 어떻고 하며 차제로 설명해준다. 이러다보니 배휴 같은 경우에도, 눈을 연 뒤에는 그런 배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뭔가 배운 게 남아있어서 그 찌꺼기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가고 있다.

소위 지식이란 것은 한 번 배워 놓으면 알음알이가 되게 마련이다. 조금 배운 사람은 조금 배운 사람대로 호기심이 생겨 더 갈증을 내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써먹으려고 하니, 체득되지 않은 지해는 알음알이의 독이 되어 공부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크게 깨달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다 떨어지고 묵연히 계합되지만, 배휴는 아직 꼭지가 덜 떨어져 자꾸 물어오고 있다. 선사(禪師)의 자비는 직격탄을 날려 딱 끊어주는 것이다.

설사 보리 진여와 실제의 해탈 법신과 나아가 십지(十地) 사과(四果) 등의 성위(聖位)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교화 제도하는 방편문일 뿐 불심(佛心)과는 상관이 없다.

모든 차제의 지위는 근본 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런 방편문은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은 될지언정, 오도(悟道)의 근거를 지니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한 생각 돌이켜서 부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과 일체 중생의 성품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음에 달린것
육도만행과 상관없어
육도만행은 교화의 방편
피안행 징검다리 놓기위해
선업쌓고 공부하도록 유도

눈을 뜬 뒤 지식 내려놓아야
체득되지 않은 지혜는
알음알이 되어 공부 장애
크게 깨달으면 묵연히 계합

십지 · 사과 등 성위 도달해도
오도의 근거 지니지 못한다

부처님 · 나 · 일체중생 성품
전혀 다르지 않음 깨달으면
진여 · 법성 · 해탈 · 보리 · 열반

달마대사는 ‘불심’에 대해 〈이입사행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심은 차별이 없으므로 이름 하여 진여(眞如)라고 한다. 그 마음은 바꿀 수 없으므로 이름 하여 법성(法性)이라 한다. 그 마음은 속함이 없으므로 이름 하여 해탈이라 한다. 그 심성은 장애가 없으므로 이름 하여 보리라고 한다. 그 심성은 적멸하므로 이름 하여 열반이라 한다.”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니, 교화 제도하는 모든 방편문 가운데서 불심이 으뜸이다.

배휴는 과거 황벽스님을 만나자마자 깨달음을 눈 뜬 바가 있다. 하지만 아직 미진한 것이 남아서 이런 질문을 자꾸 해온다. 그래서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근본을 일러주는 것이다. 황벽선사는 배휴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꾸 분별하여 속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해준다. 이런 가르침도 그나마 배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하니까 일러주는 것이지, 일반 사람이라면 아예 다른 방편을 썼을 것이다.

이런 질의응답의 구조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해주시는 《금강경》과도 유사하다. 《금강경》의 질의응답을 한편으로 ‘수보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부처님께 여쭌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는 수보리도 배휴처럼 아직 미진한 것이 남아있어서 부처님께 여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보리는 배휴와 같은 입장이고, 부처님은 황벽선사와 배대된다. 결국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비록 혜안(慧眼)을 열었지만 아직 상이 남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수보리가 어떻게 하면 상을 여읜 보살처럼 법안(法眼)을 눈뜰 수 있겠느냐고 물어오자, 부처님께서 혜안을 넘어 법안을 여는 법을 일러주는 것이다.

다만 생사나 번뇌 따위의 마음만 없으면, 보리 등의 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 어디에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인연 따라서 비춰 오니까 비춰지는 대로 드러날 뿐이다. 선이든 악이든 또 다른 것이든 예외는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드러나 것은 다 허망한 그림자다.

생사나 번뇌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 속아서 없애려고 애쓰다가, 한 생각 돌이켜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알아채면 마음이 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사나 번뇌뿐만 아니라 열반이나 보리도 같이 쉬게 된다. 이쪽이나 저쪽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라서, 한쪽이 멸하면 다른 쪽도 같이 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의 법은 내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시기 위함이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인가.”

위의 말은 육조혜능 대사가 하신 말씀이다. 내게 병이 없으니, 약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 정도의 자신감 위에 선법(禪法)이 당당히 서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이어서 임제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선(禪)은 자유인이 되는 지름길을 일러준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⑨



혹은 더럽고 울퉁불퉁한 불국토도 있다. 중생들의 번뇌 때문에 그런 불국토를 보게 된다.

〈화엄경〉

연꽃이 있는 풍경

우리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는 늘 연꽃을 만난다. 연못이라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곳에, 연꽃이 피어있다. 물이 흐른다 할까, 고여 있다 할까. 어떻게 보면 늪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뻘 같기도 한 곳이다.

아마도 생활하수가 흘러들어가는지도 모른다. 도저히 깨끗한 물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런 곳에 연꽃이 핀다. “더러운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청정하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이다.

이곳에는 4월에 왔는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수련(睡蓮)을 만났다. 홍련과 백련이다. 수련이 향일성(向日性)임은 처음 알았다. 아침이면 꽃이 문을 열어준다. 그 자태를 드러낸다. 한낮이 절정이고, 저녁 무렵이면 어느덧 꽃잎을 다시 닫는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그 자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는 수련이며, 연꽃을 보는 재미로 남국(南國)의 봄을 보냈고, 또 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얼마나 큰 복인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꽃같이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거듭거듭 하게 된다.

연꽃 속의 불국토

연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묻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불교의 상징이기에,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그런데, 나는 〈화엄경〉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을 읽다가 또 다른 의미를 만날 수 있었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온 누리에 가득찬 연꽃세상(蓮花世界海)은 더러움을 떠나서, 널리 (모든 것을) 장식하며, 허공에 머무르고 있다.”

허공에 머무르고 있다, 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긴 줄기에 의지한 채, 연꽃은 허공에서 한들한들 춤추고 있지 않던가. 또 공(空)을 의미하는 것도 같다.

“부사의한 세계는 연꽃에 의지하여 머무르고 큰 광명이 그물처럼 펼쳐져서 모든 것을 비춘다.”

연꽃은 ‘부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도 가득차 있지만, 부숴지지 않는 ‘부사의한 세계’ 역시 연꽃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불국토는 연꽃과 같다는 비유적인 표현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연꽃이, 도대체 연꽃이 무엇이길래, 오히려 “부사의한 세계는 연꽃에 의지하여 머문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저 연꽃의 그물 가운데 불국토의 그물이 존재하고, 갖가지로 미묘하게 장식되어서 중생들이 머물게 된다.”

불국토는 연꽃과 같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꽃 속에 불국토가 존재한다는 말씀이다. 연꽃 속에 불국토가 존재한다니, 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실마리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혹은 더럽고 울퉁불퉁한 불국토도 있다. 중생들의 번뇌 때문에 그런 불국토를 보게 된다.” 더러운 불국토라니? 울퉁불퉁한 불국토는 요철(凹凸)의 불국토이다. 이 말들은 무슨 뜻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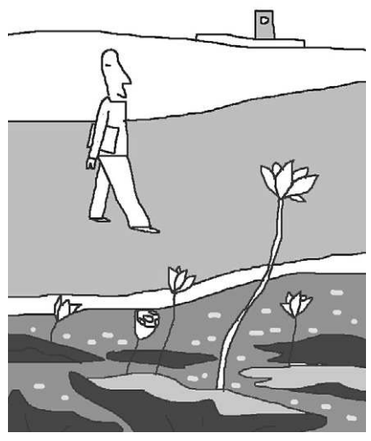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연꽃을 보는 사람들은 불국토를 보는 사람들이다. 평평한 불국토, 아름다운 불국토 말이다. 그렇지만 연꽃을 보지 못하고 연못의 더러움을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더러운 불국토’를 보는 사람들이고, ‘울퉁불퉁한 불국토’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연꽃 속에 불국토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연꽃 속에 존재하는 불국토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 역시 연꽃같이 아름다워야 한다. “부처님의 국토를 보고서도, 그것이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화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연꽃은 내 마음 속의 화가다. 그러므로 불국토 역시 연꽃 속에 존재하고, 내 마음 속에 존재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기뻐서 막힌 속 확 뚫리는 듯…”



추사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나가묵연첩X영해타운첩〉에 수록된 편지.

초의 스님, 초파일등·편지·종이 보내
제주에 온 두 아들 한양 가는 길에
스님 찾아 뵙도록…代 이은 교유

1846년 4월 18일 추사의 편지에는 벗의 안녕과 해배를 일심으로 기원했던 초의의 성의가 돋보이는 선물, 즉 초파일등을 제주에 보냈음이 확인된다.

〈완당전집〉 ‘여초의’ 25신과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첩〉, 아모레 퍼시픽박물관 소장본인 〈영해타운첩〉에 함께 수록된 이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본에는 간지가 없어 어느 시기의 편지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가 요행히 〈영해타운첩〉에 의해 그 연대가 밝혀진 것. 이 편지에는 쓸쓸한 유배지 제주에서 풍화의 고통을 겪던 추사에게 아들 상무(1819~)와 상우(1817~1884)가 찾아와 작은 기쁨을 선사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추사에게 있어 긴 가뭄에 만난 단비 같은 것이었으리라.

이런 반가운 격정에도 추사는 “우리 집 아이가 멀리 큰 바다를 건너 와서 조금 위안이 되었다”고 담담히 말하였으니 대유(大儒)의 속내는 이런 대목에서 빛난다. 이어 “지난 해 섣달에는 배가 막히고, 봄이 지난 후에도 병이 심하여 일체 소식이 모두 끊어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초의의 편지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초여름이 막 시작될 즈음에 보낸 추사의 편지에는 덩달아 싱그러운 초여름의 풋풋함이 묻어나는 듯하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前臘之船阻 春後之病甚 一切聲聞俱泯 頃從金君便 收到鐙宵梵[械] 並惠佳紙 欣開如桶脫 即又徐胥來致禪函 信息甚大 彈指之頃 春已夏矣 想山中綠陰日厚 禪誦清淨 輕安自在 爲之遙遙耿溯 此狀衰頹比甚 仍成病窠 到底苦業 但家兒遠涉大海而來 稍以慰存 今又送歸 欲尋寶棲 似當一笑相[遇]也 眼花比添 艱此申覆 縞禪欣衲 無以另具 並照是企

不宣 那山老人 丙午 四月十八日

지난 해 섣달에는 배가 막히고, 봄이 지난 후에도 병이 심하여 일체 소식이 모두 끊어졌었습니다. 마침 김군 편에 초파일 등과 편지를 받았고, 아울러 좋은 종이까지 보내주시니 기뻐서 막힌 속이 확 뚫리는 듯합니다. 또 이어서 서리가 와서 스님의 편지를 전해주어 자세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봄이 지나고 이미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산중의 녹음은 날로 짙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선송이 청정해 가볍고 편안하여 걸림이 없으시겠지요. 멀리 멀리까지 마음이 치달려갑니다. 이 몸은 더욱 쇠약해지더니 병집까지 생겼으니 결국 고통스런 업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집 아이가 멀리 큰 바다를 건너 와서 조금 위안이 됩니다만 지금 또 돌려보냅니다. 스님의 절을 찾아 가려고 하니 응당 웃으며 서로 만나리라 여겨집니다. 눈곱이 더 끼여 간신히 이만 적습니다. 호의 스님과 자흔 스님에게 답장을 못하니 모두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나산노인 1846년 4월 18일

초파일등과 초의의 편지 그리고 남평의 책지는 추사의 마음을 “기뻐서 막힌 속이 확 뚫리는 듯”하게 했다. 남평의 종이는 초의에게 단단히 부탁했던 것, 종이는 그의 회한과 자임(自任)을 마음껏 천명(闡明)할 이상 세계였다. “명선”과 “일로향실” 그리고 “다삼매”, 세한도, 부작난(不作蘭) 등, 그가 남긴 유묵에는 그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평심(平心)이 서려 있는 듯하다. 이러한 웅지의 소유자도 그에게도 자식에 대한 안부가 걱정이 되었던가 보다.

이 해 5월 25일. 집으로 보낸 편지에 “나주 이후의 소식을 다시 듣지 못했다. 상우는 이미 출발하였을 터인데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여 몹시 우울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라는 추사의 뜻을 이은 아들들이 “스님의 절을 찾아 가려고 하니 응당 웃으며 서로 만나리라”고 하였으니 이들의 대 이은 교유를 짐작케 한다.



추사는 자흔과 호의에게 안부를 전해 이들의 종유를 돈독히 이어갔다. 자흔(1804~1875)은 초의의 제자요, 호의는 초의와 법 형제간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복지·포교·환경운동 대중과 함께하는 수행”

현각 스님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이사장)

1986년 원주시 명륜동에 성불원 개원
논밭만 있는 곳 신도 수 줄어들까 걱정
봉고차로 신도 태우며 묵묵히 전법매진
성불복지회 법인 세워 13곳 복지관 운영
자연학습원 이끌며 환경운동에 매진
“공동체정신 실천할 수 있는 도량 만들 것”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1900년대 초부터 이 단어를 사용한 서구에 비하면 80여 년이나 늦은 시기였지만, 당시 한국의 개신교, 천주교 등 이웃종교 단체들은 의료기관, 양로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불교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다.

그만큼 ‘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일반화 돼있지 않았던 시절인 1980년대 후반, 강원도 원주라는 작은 중소도시에서 20여 년간 자비사상을 실천한 스님이 있다.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이다.

열 여덟 살에 불가에 귀의한 스님은 20여 년이 넘게 강원도 지역의 불교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복지뿐만 아니라 포교, 어린이교육, 환경운동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면서 온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논밭만 있던 곳에 지하법당 세워 포교

1985년 영월 보덕사 주지로 있던 현각 스님은 소임을 내려놓고, 월정사에서 겨울을 보냈다. 당시 낙산사 주지를 역임했던 故 진철 스님도 함께 있었다. 강릉자비복지원을 운영하던 진철 스님은 현각 스님에게 말했다.

“앞으로 스님들이 사회복지를 별도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포함돼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하든 자신의 역량에 맞는 만큼 사회복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현각 스님은 평소 불교 안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일을 하는 스님들이 있어도,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철 스님의 조언은 그런 스님의 생각에 보태어졌고, 현각 스님은 복지를 통한 포교를 이루어야겠다고 발원했다. 절 안에서보다 절 밖에서 불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각 스님이 복지·포교활동을 처음 시작한 곳은 원주시 외곽의 명륜동이다. 지금은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현각 스님이 1986년 성불원을 세울 때만 해도 주위가 전부 논밭이었다.

“어렵게 땅을 마련해 1층 건물을 올렸지만 지상은 세를 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지하에 모셔진 법당은 방수가 잘 되지 않아 여름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이 차 방석이 떠다니곤 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법당의 외양에 신도들의 발길이 줄기도 했다. 그래서 스님이 직접 신도관리(?) 차원에서 법회가 끝나면 봉고차로 신도들의 집까지 데려다 줬다.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현각 스님은 불교가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전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활개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나와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틀 안에서는 큰 소리치면서 밖에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역사가 1700년이라고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입니다. 개신교는 학교와 병원, 천주교는 사회복지현장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불교 역사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어요. 스님들은 전부 성불(成佛)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현실을 부정한 성불은 없습니다. 현실을 꿰뚫어보고 그 삶이 편한 것이 열반이자 니르바나인데, 그 삶을 따로 놓고 열반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3년 쯤 포교활동을 하던 1990년, 2층에 건물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 올린 다음 1층에 성불유치원을 개원했다. 올해 24회 졸업생을 배출한 유치원에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12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물질복지보다 정신복지 지향

유치원을 개원한 이듬해인 1991년, 현각 스님은 노숙인과 행려자를 위한 시설인 원주시립복지원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정신질환자, 지체 부자유자, 연고가 없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등 100여 명이 좀 넘게 생활하고 있다.

행려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삶의 존엄을 지켜가기 어렵다. 처음 이곳을 맡은 스님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만큼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물질적 지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존엄을 챙기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을 얻고 그들 중심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에게 첨단기계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눈을 맞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이런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수용자들의 정신적 영역을 채우고 보살피면서 스님 자신도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성불원도 전통적인 불교의 뜻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운동으로 연계되는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펴는 곳이 되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이듬해인 1992년 원주시에서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세웠고, 현각 스님에게 운영을 위탁해왔다. 성불원에 가까이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정 가구 이상의 영세민 주거 단지 속에 의무적으로 마련된 복지관이었다.

20여 년간 불교계 복지관으로서 자리를 지켜온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부처님 도량이나 다름없다.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어린이집, 독서실, 노인 대상무료 급식, 노인대학, 목욕탕 등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교실, 청소년 강좌, 주부 영어 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현각 스님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새터민과 결혼이주여성,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특별한 신경을 썼다. 그래서 명륜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회장을 맡아 다문화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스님은 새터민을 위한 정착지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지난 2005년부터 원주시에 거주하는 새터민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맨손으로 차근히 강원도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펼친 스님은 복지법인인 성불복지회를 설립해 아동시설 진여원, 원주시립복지원 등을 비롯해 시·군·관에서 수탁 받은 복지관까지 현재 1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만 200명을 두고 있다.

상담가이자 환경원력보살로서 활동

월정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거쳐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한 현각 스님은 일찍부터 대불련 지도법사를 맡으면서 불교 학생 단체를 창립시키기도 했다.



현각 스님은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원주환경운동연합을 이끄는 등 환경운동에 매진, 최근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현각 스님은 … 1951년 원주 출생. 1970년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 탄허 스님을 수계법사로 수계받았으며, 1974년 해인사 승가대와 1982년 동국대를 졸업했다. 영월 보덕사 주지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호법부장,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이사장과 성불유치원 원장, 강원도 자연학습원 원장,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회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최근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그리고 2005년 당시 철오 스님과 선우도량 공동대표를 맡으며 수행을 위한 스님들의 공부 방식인 선우논강 법석을 개설하고 스님들이 자유롭게 수행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또 선거관리 위원 및 투표 관리 위원장, 원주 시사종사 편찬위원 등의 제도권일도 도맡았으며, 공선협,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 성향의 단체에 이르기까지 두루 참여했다.

이런 덕택인지 스님은 불교뿐 아닌 갖가지 사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각적이다. 또한 스님의 말은 일반 사람들도 알아듣기 쉬워 듣기에 편하고 친근하다.

이처럼 현각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녔으며,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날마다 원주와 서울을 오가며 1993년 당시 불교방송에서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살며 생각하며'를 3년간 열정적으로 진행한 일이 그렇다. 스님은 매일 밤 12시에 쉽게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의 속상한 얘기와 고민거리 등을 들어주며 즉석에서 고민상담을 해줬다. 스님의 활동영역은 복지 · 포교 · 신행 뿐 만이 아니었다. 현재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원주환경운동연합을 이끄는 등 환경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각 스님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에서 학생과 일반인 등 매년 1만3000여명의 사람들에게 환경보호 실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며 수경 스님, 도법 스님과 지리산과 북한산, 새만금과 사대강을 살리기 위해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등을 펼쳤다. 최근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한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은 1998년 강원도 자연학습원 원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펼쳐왔다.

"어릴 때는 개울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런 물을 쓸 때도 어른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승가의 노스님들도 세숫물을 한 번만 쓰고 버리면 혼을 낼 정도로 자연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선조들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현대인들이 배우고 생활습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기본이라 생각한 스님은 "환경은 곧 생명이라는 인식이 배제된 채 자행됐던 인간의 파괴적 행동들이 현재의 환경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생활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불교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질 오염, 대기오염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부터 습관을 고쳐나간다면 기관이 바뀔 것이고, 기업들도 바뀔 것입니다. 개개인은 돌이켜보지 않고 기업이나 국가만 탓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의 망이 뚫리면 망 전체가 뚫리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옷을 샀는데 올이 하나 터지면 그 옷의 값어치가 떨어지듯 말이죠. 실 한 올의 가격이 전체 옷값과 맞먹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공동체 마을 만드는 게 목표

불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웬만한 분야에서는 혁혁한 공을 이룬 현각 스님에게도 서원이 있다. 바로 공동체 마을을 세우는 것이다.

"마을이 됐든, 모임이 됐든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나 단체가 늘어나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역량이 있어도 전체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활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각 스님은 기도와 수행 그리고 전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 자기 것으로 체화 한 뒤 전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처님은 반드시 안거가 끝난 뒤에 전법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인 요즘 승가도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흔히 토굴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의 토굴생활은 스님들이 전법하기 전 역량을 비축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성불을 위한 수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원력이 없는 생활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그때그때 환경과 변화에 휩쓸려 부평초 같이 이리저리 떠돌기만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성실하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충주 아동생활시설인 진여원의 아동들과 현각 스님.



스님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며 생명의 강을 위해 4대 종단 대표로서 활동했다.

전법일기

세계불교 '붐' 한국불교 '위축'

한국불교의 미래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떨까? 나이를 먹을수록, 승람이 들어갈수록 나는 이 문제가 염려스럽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우려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2005년 우리나라 종교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50대 이상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할 경우, 불자는 32명, 개신교와 천주교를 더한 기독교는 29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불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20세 미만의 연령층을 100명으로 볼 경우 기독교 인구는 31명이지만 불자는 그 절반인 16명에 불과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불자라고 대답하는 아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나마 100명 가운데 16명이라도 불자임을 표방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응답자의 희망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노령층으로서 자신의 자식이나 손자 · 손녀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불교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고, 이 기대감이 통계에 반영돼 있을 거라고 나는 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의 50대가 상당수 사망하는 30~40년 후인 2035~2045년의 불교계는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을 것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불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 개신교는 이미 90년 이후부터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그 인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 천주교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할 것이다. 1995년 295만 명이던 신자의 수가 2005년에는 51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과 천주교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두텁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그림 · 박구원

젊은 세대일수록 불자수 감소

"한국불교 변하지 않으면

박물관서 과거 흔적만 보게 될 것"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교인구의 수가 많은 데 대해 "불교는 교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믿게 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1995년에 10대와 20대가 10년 뒤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살펴보면 대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1995년에 139만 명이었던 10대 불자는 10년 후에 141만명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164만 명이었던 20대는 161만 명으로 줄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불교를 믿게 되고, 불교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나의 이 같은 전망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순전히 감에 의한 분석이지만 이미 2012년 초에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2044년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 내놓은 전망과 별로 다르지 않다.

누군가가 그랬다. 불교는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죽을 쑤고 있다고. 왜 그럴까?

우리 축구팀이 상대방에게 지고 있다면 둘 중 하나다. 우리 팀이 잘못하든지, 상대방이 잘 하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한국 기독교를 상대하는 한국 불교는 어떤 상태일까? 둘 다겠지.

나는 한국불교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박물관에서나 화려했던 과거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불교가 영원히 이 땅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읽어야 하고 동시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의 역할은 2,600년 전에 끝났다. 지금 남은 것은 우리의 역할일 뿐이다. 나는 그 중 아주 작은 일부를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오늘도.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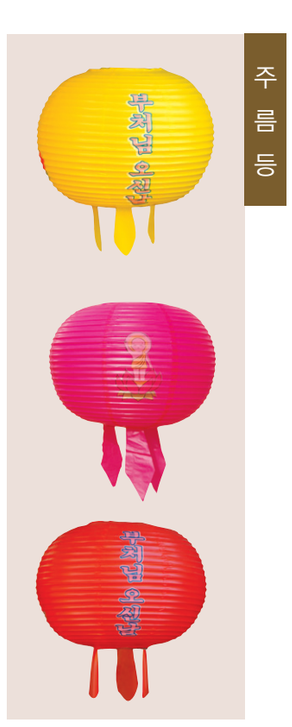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공단등 /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



왕생극락접등 / 영가등 / 극락왕생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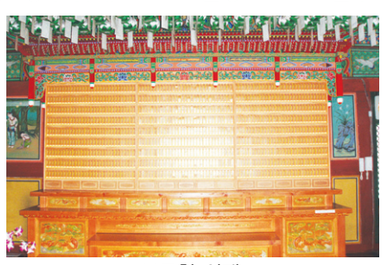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美 오리건, 선불교·기독교 '대화의 장'

매년 2회 포트랜드서 개최, 겸손·관용으로 종교간 소통

다문화 다종교 사회, 미국에서 종교간 벽을 허물기 위해 9년째 '불교와 기독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곳이 있다. 노스웨스트 뉴스(Northwest News) 지는 17일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 멀트노머(Multnomah) 대학에서 직관적인 불교도와 보수적인 기독교도 사이의 대화가 2005년도부터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달마레인젠센터(Dharma Rain Zen Center)와 문화신학연구소(Institute for the Theology of Culture, Multnomah 대학)가 나서 매년 2차례 1박 2일간 진행하는 이 대화의 장에는 스님과 신학자, 불교도와 기독교도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종교 및 사회 제반 이슈를 토론 주제로 정하고 있다.

이 자리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달마레인젠센터의 교겐 칼슨(Kyogen Carlson) 선원장이었다.

"2005년 조지 부시와 존 케리 후보가 격돌한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재선되었을 때, 미국인 중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이들이 적잖았다"고 설명한 노스웨스트 지는 교겐 칼슨(Kyogen Carlson) 스님의 말을 인용,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새로운 변화를 갈구했던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에 직면하자 스스로를 성찰할 자리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교겐 칼슨 달마레인젠센터 선원장(우)과 폴 루이스 매쳐 멀트노머대 문화신학과 교수(좌)가 종교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종교·낙태·사형' 등 사회적 이슈·윤리문제 토론
상호 공격적이던 첫 만남 후 점차 서로 이해

이때 교겐 칼슨 스님은 폴 루이스 매쳐 교수에게 '선불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 9년간의 대장정이 이어질 수 있었다.

"달마레인젠센터 회원들과 처음 저녁을 먹을 때 기억이 새롭다"는 매쳐 교수는 "복음주의자들의 식단과 선불교도의 식단이 전혀 다른 것을 모두 신기해 했다"며 "식탁에 오른 '샐러드(복음주의자)'와 '무차(선불교도)'의 차이에서 서로의 다름, 그로인해 생긴 '벽'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매쳐 교수는 "그 '벽'은 대화의 주제를 바로 보는 '눈', 그것을 풀어내는 '말'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너무 다른 서로의 모습에 서로가 놀랐다"고 덧붙였다.

선불교도와 복음주의자의 첫 대화는 그들만의 수사학으로 점철됐다. 두 종교간 장벽이 높았던 셈이다. 대화의 주제도 '종교' '낙태', '사형', '전쟁', '동성 결혼' 등, 사회적인 이슈이면서 종교적 관점에 보아야 할 문제로만 선정했고, 질문의 방법도 "당신은 동성애자, 타종교인들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합니까?"와 같이 '도발적'이었었다. 그러나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 장벽은 점점 낮아졌다.

매쳐 교수는 "이러한 주제는 논쟁을 위한 게 아니다"며 "논의 과정에서 종교를 떠나 인간의 근원적인 진리에 다가가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슨 스님은 "두 종교의 대화는 '겸손'과 '관용'이라는 소통의 길을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며 "만남이 쌓여가면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영역에서 선불교도나 복음주의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종교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세우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는 뜻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방식으로 진보적인 선불교와 윤리 문제로 씨름을 한다는 게 스스로 놀랍다"(론 엘진가 · Ron Elzinga · 기독교), "신념에 찬 투쟁이 아닌 서로를 진정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종교적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크락 한센 · Clark Hansen · 선불교) 등의 말을 인용한, 노스웨스트 뉴스 지는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임에 앞서 항상 '주제'를 설명하는 뉴스레터를 보냈던 것도 갈등만 있는 대화가 아닌 화해가 있는 대화로 나아가는 데 일조했다"며 "이는 스스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에 앞서 먼저 의문점을 갖게 했고, 이는 관용과 소통이라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풀이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성직자,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 록밴드 결성

기타는 스님이 보컬은 목사가

스님이 록음악을 한다? 마을잔치에서 볼법한 어설픈 장기자랑이 아니다. 육중한 기타 리프를 현란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요시노부 후지오카(Yoshinobu Fujioka) 스님. 3개월 전 다른 여섯 명의 승려들과 'Boxi'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놀랍게도 밴드 보컬은 '목사님'이 맡았다. 특색 있는 구성 덕분에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된 건 두말할 것 없다. 이제 막 '데뷔'한 밴드지만 벌써 여러 차례 공연을 가졌다.

종교를 떠나 이들이 의기투합한 이유는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10대 젊은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록음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종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고 그들이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지길 바랐습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카즈히로 세키노(Kazuhiro Sekino) 목사가 밴드 결성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평화와 조화의 메시지를 노래 속에 녹여낸다. 일상 속 명상에서 비롯된 통찰이 담겨있는 자작곡이다.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에 있는 효린지사에 있는 후지오카 스님은 "스님이 항상 조용해야 한다는 건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스님들도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활발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본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이는 선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말한다.

성직자들의 이같은 일탈에 젊은이들의 반응 또한 우호적이다. 공연을 보고난 한 소녀는 "그동안 스님이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됐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본 것 같아서 인상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현진 기자


음악이 아니면 어린 세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힘들 것 같아 록밴드를 결성했다는 요시노부 후지오카 스님. 카즈히로 세키노 목사와 의기투합해 종교의 벽을 허물고 고리타분한 인습을 벗어던졌다.


휴 잭맨


티나 터너

해외스타, 불교로 제2의 삶 찾아

잭맨, 평정심으로 … 배우 자질 다져
터너, 부처님 가피로 … 결혼 피로연 열어

불교와 명상으로 제2의 삶을 찾는 스타들이 있다. 영화 '엑스맨'에서 울버린을 열연한 휴 잭맨과 인기 팝스타 티나 터너 등이 바로 그들이다.

허핑톤포스트(Huffington Post UK) 지에 따르면 휴 잭맨은 "명상은 일상에서 벗어나, 나의 참 모습을 보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배우로서 몸을 다듬는 일에 소홀할 수 없는데, 단순한 다이어트 보다는 명상으로 신체 리듬을 가다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마음의 평온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데 명상은 최고의 방편이다"고 말했다.

그래미상을 8번이나 수상한 티나 터너도 부처님의 가피에 기대 제 2의 삶을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얼마전 결혼한 티나 터너는 결혼식 피로연을 '불교식'으로 진행했다. 티나 터너는 "불교에는 특정한 단어들이 있고, 이들을 특정한 리듬에 맞춰 노래 부르면, 무의식이 의식한테 의사소통을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열렬한 불교 신자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불교 대학 첫 졸업생 배출

22명 생불 포함 150명 졸업…아이패드로 경전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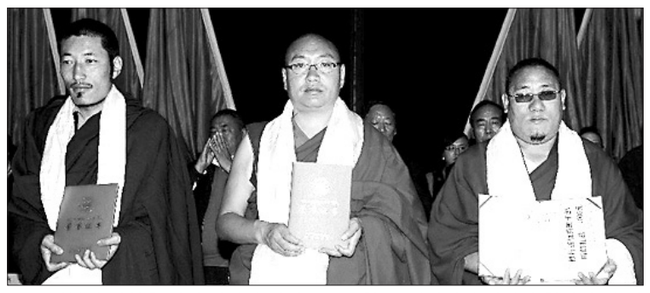
티베트 자치구 라싸 곡수현 네탕에 위치한 불교 종합 대학에서 7월 15일, 150명의 승려가 졸업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스님들은 아이패드를 이용해 경전을 공부하며 불교공부 외에도 TV를 시청하는 등 다양한 여가 생활도 즐겨왔다. 학교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1천 6백만 달러의 돈을 투자해 지난 2011년 개교했다.

주강 툽단케첩(Zhukang Tubdankezhub) 티베트 불교 대학 학장은 "티베트 전통불교 교리와 현대적 교육을 결합한 커리큘럼에 유명 교수진을 초빙,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학교도 착공할 예정이며 분교도 설립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60년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전만 해도 티베트 여러 사원에는 승려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강제 진압 당시 이러한 사원들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 후 티베트 불교는 네팔, 인도 등에서 계승되며 명맥을 유지해 왔다.

배현진 기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티베트 불교학교.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간 불교교육을 받으며 '천천히' 스님이 되어가는 티베트 전통 가풍과는 달리, 티베트 불교대학은 2년간의 경전 교육에만 집중한다.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738-868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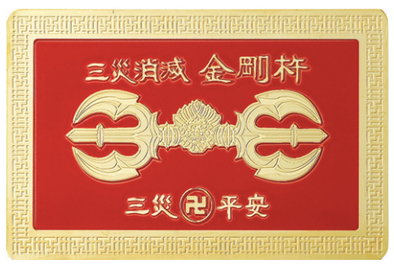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동안 **CJ택배**로 배송해 왔으나
택배회사의 횡포(파업·배송지연·미배송·불친절)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거듭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현대택배·우체국택배**로 변경 출고됨을 알려드리며
최대한 신속·정확·친절한 배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전사경 ※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100% 순수 자연그대로 백련사 국내산 산삼

장長 뇌腦 삼蔘



건강이 최고!

평생 최고의 선물을 불자님들께 공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 백련사'에서 직접 재배한 국내산
장뇌산삼을 최저가격으로 현불샵에서 공급해 드립니다.
한뿌리 한뿌리에 사찰의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각종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에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련사에 직접 방문 하시어 산삼을 채취 할 수도 있습니다.

7~8년근 3뿌리 15만원 ➜ 특가 12만원 / 7~8년근 5뿌리 25만원 ➜ 특가 19만원

장뇌삼의 효능

◇**항암효과**
장뇌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회복**
장뇌삼에 함유된 말톨 성분은 간기능이나 심기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면역력 증강**
만성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허약체질을 개선해 주고 면역력 증강의 효능이 있습니다.
◇**노화방지**
항상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으며, 피부노화 뿐만아니라 몸 속의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예방**
장뇌삼에는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장뇌삼 먹는방법

◇**생으로 장뇌삼을 먹는방법**
장뇌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뇌두를 제거한 후 아침 공복이나 취침하기 전에 30분이상 오래씹어서 복용하세요.
장뇌삼을 먹기 전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지어 먹는방법**
장뇌삼과 함께 밥을 지어서 먹으면 기력이 없는 분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소화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이용해서 밥을 짓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약으로 먹는방법**
장뇌삼 1주당 1리터의 물을 붓고서 쎈불로 달이다가 끓기시작하면 중불로 반으로 졸인다음 아침저녁으로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술로 먹는방법**
유리병에 장뇌삼과 술을 부어 밀봉시킨 다음 숙성시켜서 소주잔에 한잔씩 마시면 됩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개구리는 인간사 '희노애락' 노래하네

김양수 작가 '유년동행'… 8월 2일부터 갤러리 한옥서


김양수 작가의 유년동행

자신의 역할 묵묵히 해내는 개구리
인간군상 다양한 모습 비유

개구리는 연밥 위에 올라 피리를 불었다. 또 한상 흐드러지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늘어진 모습을 보였고 탈춤을 추며 한 바탕 인생을 즐기기도 한다. 연못 위 개구리는 인간의 희노애락 그 자체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김양수 작가의 유년동행(幼年同行)이 8월 2일~9일 종로구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어린시절 추억의 개구리에서 시작된 개구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유년동행'을 만들어냈다.

"개구리나 두꺼비는 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중적인 의미를 담기도 했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의 한 자락을 개구리의 모습에 담아보았습니다"

작가는 전남 진도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년시절 새벽이슬에 옷깃을 적시며 소에게 풀을 먹였고 풀숲에서 숨어 있는 개구리와 벗이 되곤 하였다. 하지만 당시 몸이 많이 아팠던 작가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다. 또 그로 인해 병이 나았다고 한다. "개구리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늘 참회를 했죠. 내가 먹은 개구리를 그려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가는 개구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전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과 다름없는 개구리는 우리들에게 법문을 하는 듯한다. "한낱 양서류에 지나지 않는 개구리는 평생 빛을 보지 못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고귀함에 감사할 줄 아는 안목을 지녀야 비로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개구리는 말해주는 듯해요."

어느 한 사람 눈길 주는 이 없어도 개구리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구리는 우리에게 더 없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김양수 작가의 화폭 위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티베트와 네팔을 돌며 여행을 하고싶다는 작가는 오늘도 묵묵히 명상을 통한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고 있었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찰라의 순간 담으면 또다른 역사가 된다

문화재전문 사진작가 오세윤의 '신라를 찾아서' 展

석굴암십일면관세음보살 율동마애여래삼존입상 남산열암곡마애여래입상 등 불교문화유적을 사진에 담은 전시가 눈길을 끈다. 오세윤 사진전 '신라를 찾아서'가 7월 16일~21일 종로구 통의동 류가헌에서 열렸다.

'경주가 곧 신앙'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20년 넘게 경주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왔다. 경주 남산에서부터 천마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석탑, 석불, 고분, 토기와 장신구 등은 천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도 옛 신라를 증거하고 있다.

"1900년대 초 유물 사진 대부분이 조선총독부의 일본인들이 작업한 〈조선고적도보〉 사진들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고요. 후대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의 기록은 내가 남기고 전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문화재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주의 풍경, 유적발굴 현장, 토우 등으로 구성됐다.


석굴암십일면관세음보살

작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문과 재학시절 〈삼국유사〉를 강독하는 과정에서 옛 신라에 매료되었고, 그 흔적들을 찾기 위해 오로지 지도 하나 들고 답사를 다녔다.

사진을 찍을 때는 문화재와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고 말하는 오세윤 작가. 그는 대학 졸업후, 박물관의 의뢰로 유물과 문화재를 사진에 담는 일을 맡게 되면서 경주 〈남산도록〉 등 도판도록 168권 등에 참여했다. 사진을 찍다가 죽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앞으로도 문화재 사진을 찍어가며 경주의 모습을 담아나갈 것이다. **정혜숙 기자**

108 번뇌 벗어나면 텅빈 비움의 충만이…

통칙 스님의 목판화전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8월 8일까지


통칙 스님

"짧지 않은 시간 공들인 작품들을 햇빛 속에 내어 놓았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동안에도 분명 나는 선(禪)으로 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때론 무아의 경지를 말하고 싶었고 때론 우리 삶의 형태 역시 부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은 수행의 연장임에 분명합니다."

2013년 통칙 스님의 목판화전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이 8월 8일까지 양평용문사 친환경농업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열 여덟으로 가는 세상'을 비롯해 '사랑하는 마음도 쌓아두면 무겁다네' '몸은 습관이다' 등 52점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스님의 전시 제목이기도 한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은 두 개의 원과 9개의 점으로 중생의 번뇌를 이야기한다.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이 더해지면 18경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분별이 생겨나고 삼생으로 이어지면 108번뇌가 됩니다. 이런 인간사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욕의 또다른 발음이기도 하죠."

스님은 이를 통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꼬집으며 모든 것을 비워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니 너도 나도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육근 육식 등에 끄달려 사는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성형수술이 아닐까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번 작품은 이런 얽메임에서 벗어나 비움의 삶을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담은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네'도 서정적인 색감이 매우 인상적이다. "민들레 홀씨를 판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민들레는 씨앗이 낙하산처럼 오묘하게 퍼져나가잖아요. 바람 비 눈 모든 자연이 민들레를 키우죠. 이처럼 세상에는 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꽃 하나에도 심오한 자연의 뜻이 담겨져 있죠."

'보이는 것' 집착하는 대중에게
몸·마음 살펴 명상에 이르길 '발원'
18경계 메시지 목판화에 담아

그렇다면 스님이 목판화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뭘까? 스님은 작품을 통해 명상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밥 먹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걸을 때도 온전히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계속 망상을 하죠. 그렇게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 보내죠. 제 작품들은 몸과 마음을 살펴 자신을 돌아보라고 대중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쌓아두면 무겁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나 자신임을 일깨워준다. 사랑도 스스로에 대한 연민도 선으로 귀의하면 한낱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보면 분별의 세계를 넘어 사랑도 미움은 어떤 형체를 갖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

마음의 흐름을 살피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늘 명상하며 살아갈 것을 권한다. 그래서 단순한 삶이 곧 도이며 깨달음이라고 강조한다. "명품 가구나 의류를 잘 관찰해 보면 디자인이 단순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단순해지면 명품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곧 선이죠."







통칙 스님의 목판화전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이 8월 8일까지 양평용문사 친환경농업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을 비롯해 등 52점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스님은 앞으로 통칙목판화 미술관을 설립해 명상과 판화를 동시에 가르치는 작업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명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또 스님의 작품으로 표현해 가고자 한다. 한편, 스님은 이번 전시와 더불어 30년 동안의 작품을 기록한 책 〈열여덟로 가는 세상〉 발간하기도 했다. (070)7715-379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삼광사 사진전 수상자 선정

금상에 조희주 씨…시상식은 7월 25일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제2회 부산의 아름다운 3명소 전국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 금상은 조희주씨의 '삼광사의 꽃'이 선정됐으며, 은상은 홍정표씨의 '관욕'과 윤성국씨의 '해수욕장의 해무', 그리고 동상 3명, 가작 5명, 특별상 12명, 입선 12명이 각각 선정됐다.

본상인 금상은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가작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지며, 특별상에는 부산광역시장상, 구청장상, 언론사 사장상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삼광사 지관전에서 개최하며, 이어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부산진구청, 부산시청, 수영구청, 해운대구청에서 순회 전시도 열린다. 한편, 삼광사는 시상식에 앞서 찾아가는 자비나눔 힐링봉사활동을 펼칠 '힐링광장' 발대식도 함께 진행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금상 수상작 조주희 씨의 '삼광사의 꽃'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고구려 백제 문양에 종려나무 등장?… 오류 잡아야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팔메트와 반 팔메트→제3영기싹 영기문 ㊦



'반 팔메트' 개념이 혼란 부추겨

지금까지 '인동당초문'과 '팔메트'를 다루고 있는데 어차피 용어가 틀린 것이지만 결국 두 가지가 한 가지 영기문, 즉 '제3영기싹 영기문'을 다루고 있음을 아시겠지요? 이상한 것은 우리 학계가 따르는 일본의 문양집을 보면 같은 문양을 다루면서 주제어(主題語)의 항(項)은 따로 있다는 점이다. 인동을 팔메트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우대칭의 팔메트'가 있고, 그 팔메트를 절반을 나눈 '반(半) 팔메트'라는 것이 있다. 모든 학자들은 좌우대칭(左右對稱)의 팔메트를 절반으로 자르면 반 팔메트로 된다고 믿고 있다. 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반 팔메트(half palmette) 조형은 서양에는 매우 드물지만, 동양 3국에는 좌우대칭 팔메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변화도 많다는 것이다. 좌우대칭의 형태는 동서양이 각각 영기문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인 '확산'을 표현하려면 그와 같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반 팔메트란 무엇인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이 '반 팔메트조차 인동문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 오류에 빠지면 계속하여 오류에 빠지는 법이다. 그러면 반 팔메트란 무엇인가? '반 팔메트도 제3영기싹 영기문'이다. 반 팔메트의 조형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그림①) 언뜻 보면 좌우 대칭의 팔메트를 수직으로 절반 자르면 반 팔메트 같이 보인다. 그러나 내가 그린 조형의 전개원리를 보면 두 가지는 별도의 영기문으로 각각 제3영기싹임을 알 수 있다. 즉 좌우대칭(左右對稱)의 팔메트는 '좌우대칭의 제3영기싹'이며, 반 팔메트는 '비대칭(非對稱)의 제3영기싹'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오회분 4호 묘의 벽화에는 다음과 같은 도상이 있다.(그림②-1) 그 유려한 곡선의 6각수문(六角水文) 안에 제2영기싹이 생기며 그 갈래 사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하는 형태가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팔메트라 부르는데 왜 하필이면 고구려 벽화에 서양의 팔메트 즉 종려나무가 표현된다는 말인가! '영기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확산하는 영기를 구상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즉 제3영기싹의 조형임을 새로이 채색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그림②-2)

그런데 그 벽화에 다른 도상을 보면 마치 그것이 갈라져서 사이에서 신선(神仙)이 화생하는 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벽화에서 하얀 연꽃만 보여서 연화화생(蓮花化生)만을 볼 뿐이지, 근원적으로 제3영기싹 양 갈래 사이에서 영기화생(靈氣化生)하는 광경을 보지 못한다.(그림③-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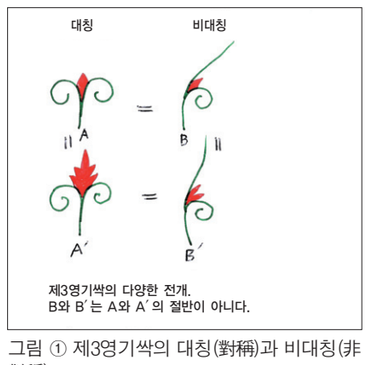
즉 양 쪽의 것을 반 팔메트라고 부르는 한, 아무 것도 읽어낼 수 없다. 그것을 내 방법대로 채색분석해 보면, 그 두 갈래 조형은 '독립적 제3영기싹 영기문(靈氣文)'이므로 갈래 사이에서 두 개의 잎 같은 만물 상징(주홍색)이 나오고, 자체에서 빨간 색을 칠한 영기싹 즉 생명의 싹이 나오지 않는가. 그 두 개의 제3영기싹의 갈래 사이에서 비로소 연꽃이 화생하고 그 연꽃에서 신선이나 여래가 화생하고 있는 도상임을 알 수 있다.(그림③-2)

강력하게 발산되는 에너지의 표현

전체를 살펴보면 유려한 곡선이 상징하는 '물'이란 근원적인 생명생성의 근원에서, 신선이나 여래가 화생하는 광경이다. 나의 많은 논문에서 이미 불화(佛畵)의 주인공인 여래나 보살이 물에서 화생한다는 기본 틀을 발견하여 논증한 바 있다. 바로 그런 도상을 가장 압축하여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림②-1이나 그림③-1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림②-1과 ③-2의 조형에서 각각 절반을 잘라서 살펴보면 서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④-1을 보면 절반의 조형은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나, 그림④-2는 절반으로 잘라도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7세기 일본의 백제관음의 보관을 살펴보자. 그 유명한 백제관음의 보관은 단지 머리에 쓰는 모자가 아니다.(그림⑤) 보관은 여래나 보살로부터 발산하는 영기를 그렇게 갖가지 영기문들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도 이미 논문들에서 밝힌 바 있다. 그 도상을 채색분석해 보면 제1영기싹과 제3영기싹의 다양한 조형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팔메트가 아니다. 어찌하여 백제 관음의 보관에 종려나무가 있단 말인가! 보관 정면 가운데에 화불이 있고 아래로 제1영기싹이 좌우로 나와 다시 위로 오르며 화불은 감싸고 있는데, 그 모두가 제1영기싹이 연이어 있는 조형이다. 그 좌우로 제3영기싹들이 힘차게 뻗쳐나가지 않는가! 화불과 관음은 하나다. 근본적으로 관음보살로부터 강력하게 발산하는 영기를 그런 만물생성의 근원인 제3영기싹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관 좌우에서도 제1영기싹과 제3영기싹들을 찾아 채색하니 반 팔메트가 더욱 어처구니없는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동양의 영혼을 서양의 오류로 더럽힐 수 없다. 보관 띠의 영기꽃마저 로제트라 부르고 있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제3영기싹의 다양한 전개.
B와 B′는 A와 A′의 절반이 아니다.

그림 ① 제3영기싹의 대칭(對稱)과 비대칭(非對稱)



그림②-1 회분 4호묘, 6각의 양 변에서 영기가 강렬하게 생겨나고, 중앙에서는 제3영기싹이 생겨난다.



그림②-2 채색분석



그림 ③-1 5회분 5호묘, 신선의 영기화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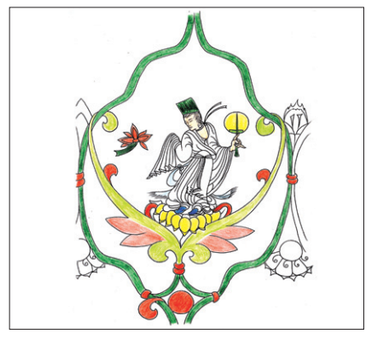


그림 ③-2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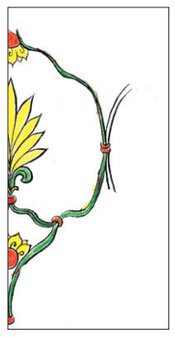


그림 ④-1 절반은 자르면 독립된 조형으로 존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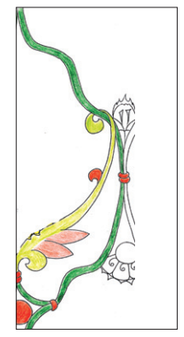


그림 ④-2 이번에는 절반으로 자르면 독립된 조형으로 존재할 수 있다.



백제관음보관의 전개형 팔메트, 보관띠에 로제트 法隆寺 飛鳥(아스카)시대

① 영화된 연꽃에서 제 1영기싹(面) 좌우로 뻗치고
② 거기에서 각각 제 1영기싹(線) 연이어 올라감
③ 그 양쪽으로 긴 제 3영기싹 영기문이 발산. 길게 뻗침.
⑧ 보관 좌우에서 제1 영기싹과 제3 영기싹을 찾아 채색해보니 좌우대칭이 아니다.

그림 ⑤ 백제관음 보관 채색분석.

藥이 되는 사찰음식

쫄깃한 면발 생각나면 콩국수 한그릇 '후루룩'



세 가지 맛 콩국수

△재료(4인 기준)

○ 완두콩물 - 완두콩 2컵, 물 8컵
○ 흑임자콩물 - 대두 1컵, 흑임자 1/2컵, 물 4컵
○ 잣국물 - 잣 2컵, 물 4컵
○ 삼색소면, 오이, 청홍피망

△만드는 법

① 완두콩물 - 말린 완두콩은 깨끗이 씻어 2~3시간 불린 후 껍질을 벗긴 다음 물을 붓고 10분 정도 삶아 뜸을 들인 후 식혀서 제물에 곱게 갈아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② 흑임자콩물 - 대두는 깨끗이 씻어 2~3시간 불린 후 껍질을 벗긴 다음 물을 붓고 10분 정도 삶아 뜸을 들인 후 식혀서 흑임자를 넣어 제물에 곱게 갈아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③ 잣국물 - 잣은 껍질을 제거한 후 마른 수건으로 곱게 닦은 다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물을 부어 곱게 갈은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④ 소면은 끓는 물에 삶아 얼음물에 헹궈 사리를 지어 놓고 오이, 홍피망은 곱게 채썰어 고명으로 얹는다.

열무오이소박이 물김치

△재료(4인 기준)

○ 오이 4개, 열무 200g, 무 100g
○ 김치양념 - 소금 1큰술, 국간장 1큰술, 고춧가루 3큰술, 홍고추 3개, 배 100g, 다진생강 1/2큰술, 찹쌀풀 5큰술



○ 김치국물 - 물 3컵, 다시마 1장, 소금 1/2큰술

△만드는 법

① 오이는 5cm 길이로 잘라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은 후 소금물에 살짝 절인 후 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② 열무는 4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소금물에 절인 후 헹궈 물기를 뺀다.

③ 무는 채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수분을 뺀다.

④ 김치국물은 다시마를 넣고 연하게 우러나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끓인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식힌다.

⑤ 김치 양념의 재료는 모두 곱게 갈은 후 찹쌀풀을 넣어 잘 섞는다.

⑥ 양념에 속재료인 열무와 무를 넣고 버무린 후 오이에 채워 넣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식힌 국물을 붓는다.

콩국수에 열무오이소박이면 '진수성찬'

시원한 국수가 입맛을 당기게 하는 요즘, 맛도 영양도 좋은 여러 가지 콩물에 쫄깃한 면발을 넣어 한 그릇 말아 먹게 되면 더위가 저만치 달아나는 느낌이다. 게다가 잘 익은 열무오이소박이 한 입 베어 무는 그 맛은 잘 갖춘 진수성찬에 비할까 싶다.

여러 가지 콩물의 재료로 쓰이는 대두나, 잣, 완두콩, 흑임자 등은 단백질과 양질의 불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면요리가 갖는 영양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단, 콩물을 만들 때는 콩을 너무 오래 삶으면 메주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10분 정도 삶은 후 뚜껑을 열지 않고 10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식혀 제물에 갈아서 먹어야 고소한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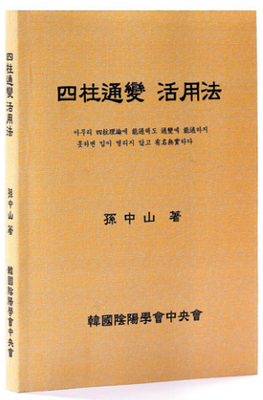
열무오이소박이는 오이와 열무가 주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좋은 제철 김치로 오이는 이뇨효과로 부기를 빼고 몸을 맑게 해준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화제의 신간!

新刊 四柱通變 活用法

(四柱는 理論보다 通變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주이론에 능통하다해도, 사주를 놓고 통변에 능통하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하다. 옛날부터 통변에 관한 해설이 다양하게 전해져 왔지만, 이를 바르고 쉽게 설명한 책은 드물다. 논어를 읽고도 논어를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명리학을 공부하고도 통변을 몰라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본서는 사주통변의 핵심을 수록한 것으로 십신통변의 활용법과 통변의 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운명과 성격, 육친관계, 직업 및 건강에 미치는 인사전반의 작용을 질서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정독 이해하게 되면, 역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사주감정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 자부하는 바이다.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孫中山 著 (316쪽 / 값 30,000원)

책자 신청 053)324-2468 / 010-9391-5699

아래계좌로 입금하시면 우편물 속달로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2-0585-5250-53 (예금주 손상용)

"투병 중에도 염불 · 독경하던 아흔의 엄마는 나의 선지식이자 관세음보살님이었다"



우란분절 법보시 특별할인!

나의 선지식 엄마의 사계절

도정 지음

신국판 | 2도칼라 | 152쪽 | 10,000원

정념선원 도정 원장이 쓴 우리 시대의 '부모은중경'

'우리 시대의 효경이자 부모은중경'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된 가족의 의미를 되살려 효도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_정병국 국회의원

도정님이 쌓아온 수행의 길 25년, 아흔의 엄마를 향한 효 실천 수행의 3년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참 수행의 길, 생활 속의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다. _민병두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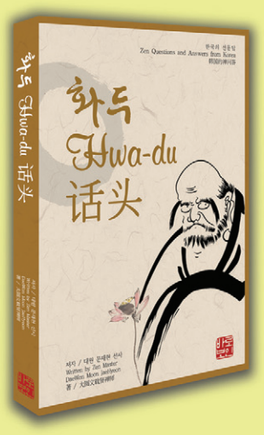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31-534-3373 / 010-9043-1016 바른법

원측의 사상적 전모를 엿볼 수 있는 기회

〈해심밀경소〉 제1서품, 제2승의제상품, 제3심의식상품 · 제4일체법상품 총3권

원측 지음 | 백진순 옮김 | 3권 합 7만원



신라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 주석서다. 해심밀경은 유가행파의 소의경전으로서 유식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교설들이 설해져 있다. 광본(廣本)과 약본(略本) 두 종류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책은 약본을 옮긴 것이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의 결과물 3권이다. 책 〈해심밀경소〉는 탄생 1400주년을 맞이한 신라 유식학의 한 축이었던 원측(圓測 · 613~696) 스님의 〈해심밀경소〉 총 8품 중 4품까지에 해당한다. 책은 현재 전해지는 원측의 저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작으로서, 신구 유식학을 섭렵했던 원측의 사상적 전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철학적 성과들을 담고 있다.

원측 스님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당으로 건너가 많은 유식학 경론에 대한 주석서를 찬술했고, 규기(632~682)와 더불어 법상종 양대 학파의 시조로 추앙받은 사상가였다.

원측 스님의 해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교하고 세분화된 과목표에 의거해서 경문을 해석

정교하고 세분화된 완성도 높은 주석
인용문 출전 일일이 대조 교감 거쳐

했다는 것이다. 경전 해석에서는 과목의 세부적 설계 자체가 그 주석가의 원전에 대한 독창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전의 문구를 어떤 단위로 분절하는가에 따라 그 경문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측 스님의 과목 설계는 삼분과경(三分科經)의 학설에 따라 경문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원측 스님이 설계한 〈해심밀경소〉의 과목 표만 따로 재구성해 보면 다른 주석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교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그 과목들 간의 관계가 매우 정합적이고 체계적이다. 이 과목 표에 의거해서 경문들을 읽어 가면, 마치 하나의 경전이 본래부터 그렇게 정교한 체계와 구도에 따라 설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발간된 3권의 역주 작업에서는 모든 원문에 대한 철저한 교감과 상세한 역주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의가 크다. 더구나 모든 인용문들의 출전을 찾아 일일이 대조하고 전후 문맥 등을 살펴 비판적 교감을 거쳤으며, 또 품별 해제를 통해 각 품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철학적 주제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1서품은 경의 종체에 대한 논의 등과 '서품'의 경문 해석이다. 책에는 옮긴이가 '원측 사상의 백미 중의 하나'라고 일컫는 교체론이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다. 이 교체론은 '성전의 언어', 즉 '교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원측 스님이 소승과 대승의 다양한 교체론들을 어떤 원리로 회통시키고 종합해 가는지를 자세히 추적하는데, 원측 스님이 언어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또한 원측 스님의 상세한 해석들을 통해 정토에서 법을 설하고 듣는 하나의 사건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2 승의제상품'은 유가행자들이 관찰해야 할 경계 중에 첫 번째로 승의제(勝義諦)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이 품에서는 승의제, 즉 궁극적 진리라는 단일 주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네 번에 걸쳐 각기 다른 문답자가 등장하여 길고도 논증적인 설법을 펼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이역본들에서는 이 품을 네 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이 품만 따로 별행시킨 경우도 있다. '이언(離言) · 무이(無二)' 등 승의제의 다섯 가지 상을 설하는데, 문장은 난해하지만 사실상 궁극적 진리는 '언설될 수 없다(不可言說)'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 이러한 궁극적 진리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 파악되지도 않고 또 언어의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한 될수록 많은 외적인 해석과 간접적 진술들을 택해야 한다. 원측 스님의 해석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대 · 소승의 중요한 학설들이 총망라되는데, 이를 통해 불가언설의 진리에 대해 불교 내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철학적 지성에 의해 정의된 개념과 범주를 통해 언어를 넘어서 있는 궁극적 진리의 가장 깊은 뜻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3 심의식상품과 제4 일체법상품은 심의식(深意識)의 비밀과 일체법상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 품은 모두 유가행자들이 관찰해야 할 경계들에 해당한다. '심의식상품'은 진(眞) · 속(俗)의 경계 중에 속제를 설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승의제상품'과 한 짝을 이루고, '일체법상품'은 유성(有性) · 무성(無性)의 경계 중에 유성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뒤의 '무자성상품'과 한 짝을 이룬다. 심의식의 비밀이란 윤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생을 받을 때 일체종자식의 수행하는 비밀스런 기능을 가리킨다. 원측 스님의 해석에서는 이 '식'을 새로운 육체를 출현시키고 증장시키는 내적 동인으로 간주했던 초기 유식학의 기본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원측 스님의 해석에 내제된 철학적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옮긴이의 해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옮긴이는 이 경에서 설한 일체종자식은 '업력의 담지자'에 대한 사유의 연속선상에서 도출된 것이고, 심의식의 비밀의 초점은 식과 몸의 비밀스런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떠나고, 보내고 깨달은 것들



오대산 가는 길
박용열 지음
아동문예 펴냄
9천원

탄허 스님을 모셨던 박용열 시인이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 영전에 올리는 시집이다.

시인은 한국전쟁을 겪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맸다. 한쪽 발은 절었고, 피까지 토하면서 그가 찾아간 곳은 오대산 월정사였다. 그리고 부처님 품에서 탄허 스님의 제자가 됐다. 옥수수, 감자와 쌀겨로도 두 끼니 밖에 먹지 못하는 배고픈 생활이었고 의복은 돌아가신 분의 옷을 얻어다 먹물을 들여 입었다. 스님이 역경한 〈기신론〉, 〈영가집〉, 〈육조단경〉, 〈노자〉, 〈도덕경〉, 〈남화경〉, 〈화엄경〉을 책으로 만들며 스님을 모셨다. 그렇게 흘러가던 세월 속에 고무신이 다 떨어져 도저히 신을 수가 없어 헌 신짝 벗어들고 "제자 고무신 하나 사주지 못하면서 무슨 도제 교육입니까?"며 은사한테 대들었다. 그 때 "야! 이 멍청아, 버리는 공부를 하려고 중이 되었으면 모든 것을 버리면 되지 않느냐."며 스승은 죽비를 들었다. 제자는 만행에서 돌아와 모자란 자신을 또 스승에게 떠넘기며 응석을 부렸다.

생활은 항상 서민같이 하되 생각만은 귀족같이 살아야 하며 중이 돼지같이 살이 찌면 정신적으로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선승은 안광이 빛나고 메마른 법이라고 말씀하셨으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 훔쳐먹던 철없던 제자. 끝내 속세로 돌아온 제자는 높고 높은 스승 곁에 있었으면서도 열심히 배우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시를 썼다. 망나니 제자 어떻게 사나 궁금하여 들여다보시던 스승의 쓸쓸한 모습 떠올리며 시를 썼다.

오대산 가는 길

구름처럼 떠돌아다녀도
얻는 것이란
하나도 없었다네.

오대산 가는 길 옆에
5백년 묵은 전나무들이 빽빽하여
대낮에도
어두움 침침
캄캄하구나.

찬바람 불고 서리 오기 전에
어디로 갈까
걸망 메고 망설이다가

가부좌 틀어 눈 감으니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내 어찌하여 그렇게도 몰랐을까.



떠나고, 보내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 시가 됐다. 부끄러운 제자가 떠나간 스승께 올리는 음성공양이다.

박재완 기자

아흔의 노모는 선지식이자 관세음보살

나의 선지식 엄마의 사계절

도정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원



정념선원 도정 원장의 불교 수행기이자, 구순의 노모를 돌아가실 때(93세)까지 정성껏 모신 시봉기이다.

책은 저자가 불교와 처음 만나게 된 인연담을 비롯해 불교에 몰입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겪으며 깨달았던 신행담과 수행담이 한 축을 이루고, 역시 저자의 어머니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아흔의 노모가 불교에 젖어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자의 모습들이 또 한 축을 이룬다.

저자는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참선정진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한 후 10여 년간 참선과 염불수행에 전념해왔다. 2010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흔의 노모를 3년 동안 모시고 정진했으며, 2011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에 정념선원을 설립해 재가 수행공동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학창시절 우연히 친구를 따라 서울 종로 조계사에 간 것이 인연이 되었고, 그렇게 만난 부처님 법은 그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놓는다.

처음 모시게 된 아흔의 노모는 몇 달간 금강경을 수시로 읽으시고 감탄했다. 이것이 부처님이 해놓은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 엄마" 하면 "한문에 의미가 있으니 알지." 그러면서 "수보리 제자 우리 위해 질문이 많구나!" 한다. 늘 힘이 되어주신 엄마. 2년간 금강경, 법화경, 아미타경, 49일 여행, 지장본원경, 하루도 안 보신 적 없으신 엄마. 불교에 빠진 노모는 식사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손에서 경전을 놓지 않았다. 아흔의 엄마는 저자에게 선지식이자 관세음보살이었다. 92세의 노모는 치매와 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했지만 막내아들(저자)의 집으로 옮기고 난 후부터는 화학성분 약을 모두 버렸다. 아들은 노모와 놀아주고, 들어주고 드실 수 있게 음식 해드리고, 목욕 자주 시켜드리고 스킨쉽 해드렸다.

집집마다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모시는 문제로, 또는 고부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효'에 대한 인식이 줄어드는 시대에 저자의 애틋한 사모곡은 그 가치와 의미를 넓히고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0 ~ 7/1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궁리
4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7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8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탁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9	슬프고 웃긴 사진관	아잔 브람	김영사
10	벽오동 (백봉 김기추 선시집)	김기추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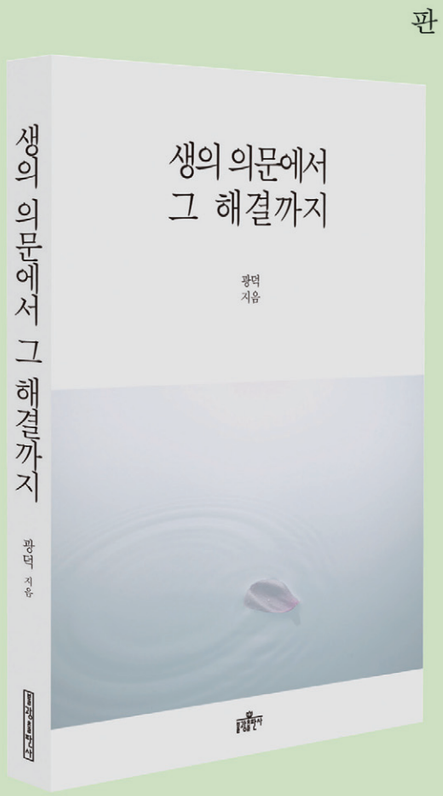


금하광덕 스님의 구도문답집
초심 불자들을 위한
〈불교입문〉의 결정판!

개정판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금하광덕 지음
352쪽 | 12,000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시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 부처님, 보살, 교리, 수행, 보시·전법, 생활, 기도, 참선,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200여 종의 문답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지혜, 용기를 불어넣어 삶의 등불이 되는
〈불교 입문의 결정판!〉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금하광덕 스님의 책들

- 경전 강의서
  반야심경 강의 | 보현행원품 강의
- 경전 번역서
  금강반야바라밀경 | 천수관음경 | 부모은중경·관음경
  지장경 |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 선어록 번역서
  육조단경 | 선관책진 | 무문관
- 법어집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구도 문답집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 삶의 빛을 찾아서
- 삶의 지혜를 여는 칼럼집
  행복의 법칙 | 빛의 목소리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봄·여름·가을·겨울(전 4권) |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
- 불교 의식집
  우리말 법회요전 | 현화의식문 | 불자 수행일과요전 | 지장기도집
  지송 금강경 | 지송 보현행원품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수행속 얻은 맑은 기운들 書畵로 펼쳐

서화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한다

허허당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1만3800원

사막은 사람을 푸르게 한다
풀 한 포기 없는 사막에선
사람 스스로 푸르더라
두려워마라
그대가 지금 황량한 사막에 홀로 있어도
온 세상을 푸르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다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로 파괴되고 상처 입은 뭇 생명들을 위로한 산골마을 선화가허허당 스님이 이제 보다 자유롭고 통쾌하게 자신의 삶을 살라며 우리들을 일으켜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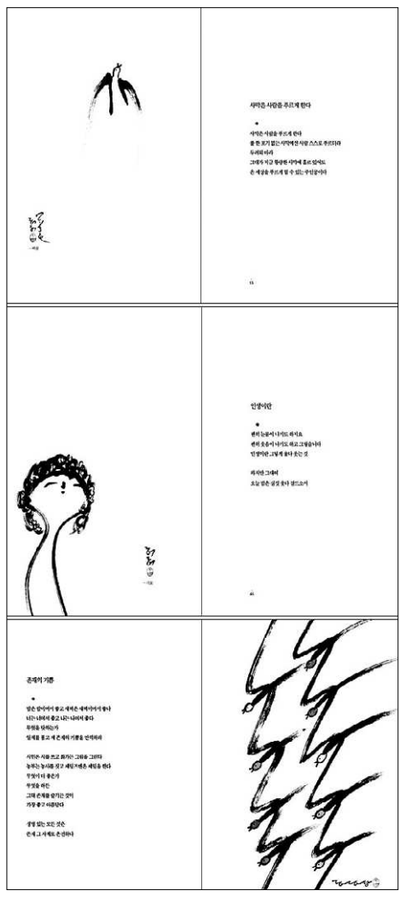
두 번째 그림 잠언집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네 멋대로 가라 한다〉는 누가 나를 구제해 주길, 위로해주길, 이끌어주길 바라는 나약한 마음에 경종을 울리며, 우리들이 이미 스스로 일어날 힘을 충분히 갖는 온전한 존재임을 일깨우는 시와 그림들로 채워졌다.

고되고 힘든 나날이지만 아이처럼 순수하고 재밌게 살라는 의미에서 '소녀'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주로 실었던 전작과 달리, 이번 책은 홀로 수행하는 휴유암 주변의 '자연 벗'들을 소재 삼아 보다 간소화되고 종교색을 벗은 그림들로 꾸몄다. 더불어 이미 스님의 수만 트친(트위터 친구)들이 공감한 짧은 시구에 살을 더하고 이야기를 더한 시들은 더욱 풍성해진 의미와 깊은 울림으로 읽는 이의 마음을 툭툭 건드린다.

자기 존재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1장 '존재의 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게 되는 2장 '인생의 길',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눈뜨게 되는 3장 '행복의 길',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삼 되돌아보게 되는 4장 '사랑의 길', 홀로 훌쩍 여행길에 오르게 만드는 5장 '여행의 길', 자연 속에서 '참 나'의 길을 찾게 되는 6장 '자연의 길' 등 총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허허당 스님의 글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쓴 한 트위터리안의 말처럼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마음 저 밑바닥에서 조용히 눈뜨는 삶의 진리와 마주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허허당 스님은 트위터에서 "삶을 보다 자유롭고 통쾌하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삶의 주인이 되어)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번 그림 잠언집을 출간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 이 책에는 '자유롭고 통쾌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길'로 안내하는, 마음을 빼앗는 시와 그림들이 가득하다.



허허당 스님의 글들은 잠언형식이라 읽고 이해하기가 쉽다.

쫓아버려라 먼 훗날의 생각일랑, 지금 무조건 행복하라. 사랑하고 사랑해라 그대 존재의 가엾음을,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슬픈 것이다.

마음을 오므리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자리 없고 펴면 하늘을 덮고도 남는다. 만약 그대가 빛이라면 쫓아다니며 뿌리려 하지 말고 고요히 앉아 번지게 하라. 뺨을 스치는 바람소리 네가 있어 행복하다, 세상 하나의 진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너는 너여서 좋고 나는 나여서 좋다, 무엇을 하든 그대 존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고 아름답다.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벗어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도 걸림 없는 것을 말한다. 때론 멀리서 들려오는 반가운 사람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편안하다, 그리운 사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한세상 살만하다. 이 세상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대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마음껏 뛰고 놀라는 것이다…….

30년간 산중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며, 있으면 있는 대로 세상과 나누는 집착과 소유를 떠난 길 위의 삶. 자유로운 삶의 표상으로 비워 사는 기쁨을 노래하는 허허당 스님. 저자는 산속 명상에서 얻은 맑은 기운을 시와 그림에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삶의 길을 찾고 있는 뭇 사람들의 타오르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갈해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입법계품' 속에 나타난 치유 메시지 소개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 스님 | 운주사 펴냄 | 1만8천원



저자가 자신이 2010년도 박사학위 논문인 〈화엄경 입법계품의 문학성연구〉을 수정한 책이다. 불교경전은 빼어난 문학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경전에 담긴 교리적 내용의 측면만 파악·연구되어지고 있을 뿐 문학적 표현방법과 기법등 문학과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이 책은 불교의 대승경전인 〈화엄경-입법계품〉에 담긴 수승한 불보살의 경계를 선재동자와 53선지식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선재동자가 어떤 선지식을 만나면서 점차 깨달음으로 승화돼는지를 문학적 접근을 통해 살폈다. 경문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법의 의미들을 문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저자의 노력과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다.

이 책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힐링'에 내포된 치유의 개념과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동일선상에 놓고,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타난 핵심사상이 어떻게 화엄사상과 소통되는지를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화엄경〉과 불교문학에서는 먼저 〈화엄경〉의 내용구성과 '입법계품'이 어떻게 조직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결과 〈화엄경〉의 구성은 대경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특히 제 3장에서는 '입법계품'의 서술적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성상의 특성으로는 소설적 구성과 희곡적 전개 양상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장르상의 전개방식은 운문과 산문의 형식을 사용해 저자가 드러나고자 한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주의 질서에는 빈부귀천 유정무정이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치유메시지임을 이 책은 문학적 방식으로 설득력있게 풀어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사찰음식 레시피

우리집 사찰음식

정재덕 지음 | 레시피팩토리 펴냄 | 1만5800원



전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식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채식이 바로 사찰음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우리 고유의 채식인 사찰음식을 집에서 즐길 수 없었다. "사찰음식은 어려울 것 같다", "채식은 맛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채식인 사찰음식을 쉽게 그러면서도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를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쉽고 맛있는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저자의 이력이 특이하다. 원래 6성급 호텔의 한식당 조리장이었던 저자 정재덕 셰프. 그는 요리사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찰음식에 매료되어 미련없이 호텔을 떠나 절로 들어갔다. 그렇게 절에서 생활하며 사찰음식을 화두 삼아 수행하는 자세로 두루 배웠고, 사찰음식의 대가인 대안스님에게 사사했다. 이후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의 헤드셰프로 일했고, 2010년에는 대한명인회에서 최연소 사찰음식 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은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학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 책의 모든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있어 사찰음식의 기본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메뉴, 재료, 양념, 조리법 등을 현대화했다.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다른 음식들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메뉴를 골랐고, 마트나 시장에서 보아왔던 친숙한 식재료와 양념을 썼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조리법을 접목시켰고, 맛 또한 요즘 입맛에 잘 맞도록 일부 조정해 아주 맛있게 만들었다. 또한 2~4인 가족에 맞춘 정확한 가정식 레시피를 소개하기 위해, 출판사이자 메뉴 개발회사인 ㈜레시피팩토리의 테스트키친팀과 함께 모든 레시피를 철저히 검증했다.

김주일 기자

고려석불은 불교와 재래신앙 결합의 증거물

고려석불의 조형과 정신

김진숙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8천원



이 책은 고려 석불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현장 답사기다. 굽타 시대의 불상들은 인도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얼굴이며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불상들이 많다. 이 시기의 불상은 동아시아 불교미술의 모델이 되었다. 불교 미술은 불교 발생 그 이전부터 있었던 토속신앙을 불교가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불교 미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의 석불이 조성되기까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그 독특한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는 주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시대마다 특징 있는 불상들이 조성되었고 자연암석을 살려 그 바위면에 불상을 새겨 토속 신앙을 흡수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은 재래 신앙과 결합하는 좋은 예이다.

이 책에서 다룬 고려 석불은 미술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종교 예술로서 나아가 재래 신앙과의 결합을 보여준 가장 한국적인 양식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저자가 산과 들에 외로이 남겨진 석불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일본 유학시절 이노우에 다다시 선생의 고려 석불 찬탄이야기를 듣고 발심하게 되면서 부터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려 석불의 아름다움과 작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려니 국내에는 전문적인 자료나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공부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석불이나 마애불은 산과 들에 많이 남아 있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 있다.

주로 폐사지에 남아 있고 산의 큰 바위나 바위 면에 조성하여 관리가 되지 않아 문화재의 중요성 면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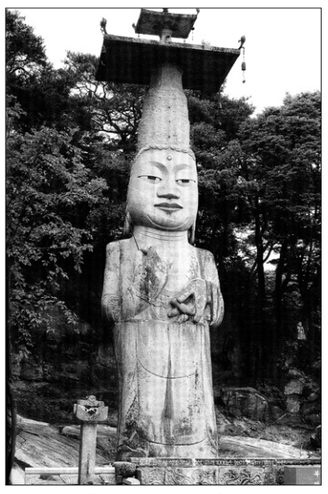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고려 석불이 조성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수 년 간의 현장 답사로 이루어 낸 결과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기도 하고, 해발 7~800m가 넘는 산을 수없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우선 제 1장 불교의 수용과 재래신앙 편에서는 삼국시대에 전래되는 습합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 2장은 고려 석불을 고찰하기 위한 작업으로 삼국과 통일신라불상과 재래신앙과 습합된 불상으로 나누어 특징을 열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장 고려시대의 불교 조각으로 특징과 조성 된 배경, 석불과 마애불을 망라해 중요하게 생각되는 중심으로 다루었다.

고려 석불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미술사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와 옷깃의 주름 선들은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과 옷 주름선…예술극치
석불·마애불 방치된 것 많아

일본 불교대학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세상에 내어 놓기가 부끄럽다는 저자의 겸손함이 석불의 수줍어하는 미소를 닮았다. 토지에 뿌리내린 조형의 무게는 서구적 미술 평가와는 다른 세계라고 확신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충남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저자 김진숙은?

동국대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다시 동 대학 불교학과에 편입해 학사과정을 졸업한 뒤 일본 불교대학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불교대학 종합연구소 연구원 및 교토국립박물관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삶의 쉼표, 불교미술산책〉이 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⑭ 1930년대 선원의 증가와 활성화

중흥하는 선학원, 선 수행 대중화 초석 다져

선학원이 초창기의 재정적 침체를 겪고 재건된 것이 1931년의 일이다. 중흥주 김적음(金寂音) 스님을 비롯한 선학원의 대중들은 창설 당시의 선풍진작과 선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불교의 깃발을 다시 내세웠다. 대승경전에 대한 강설(講說)과 법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불교의 근본정신을 일깨워주었다. 아울러 쇠락한 중앙선원을 쇄신하여 안거수행에 전념하였다. 당시 신행단체였던 부인선우회(婦人禪友會)는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신앙(祈福信仰)에서 벗어나 수행을 통해 무위진인(無位眞人)이 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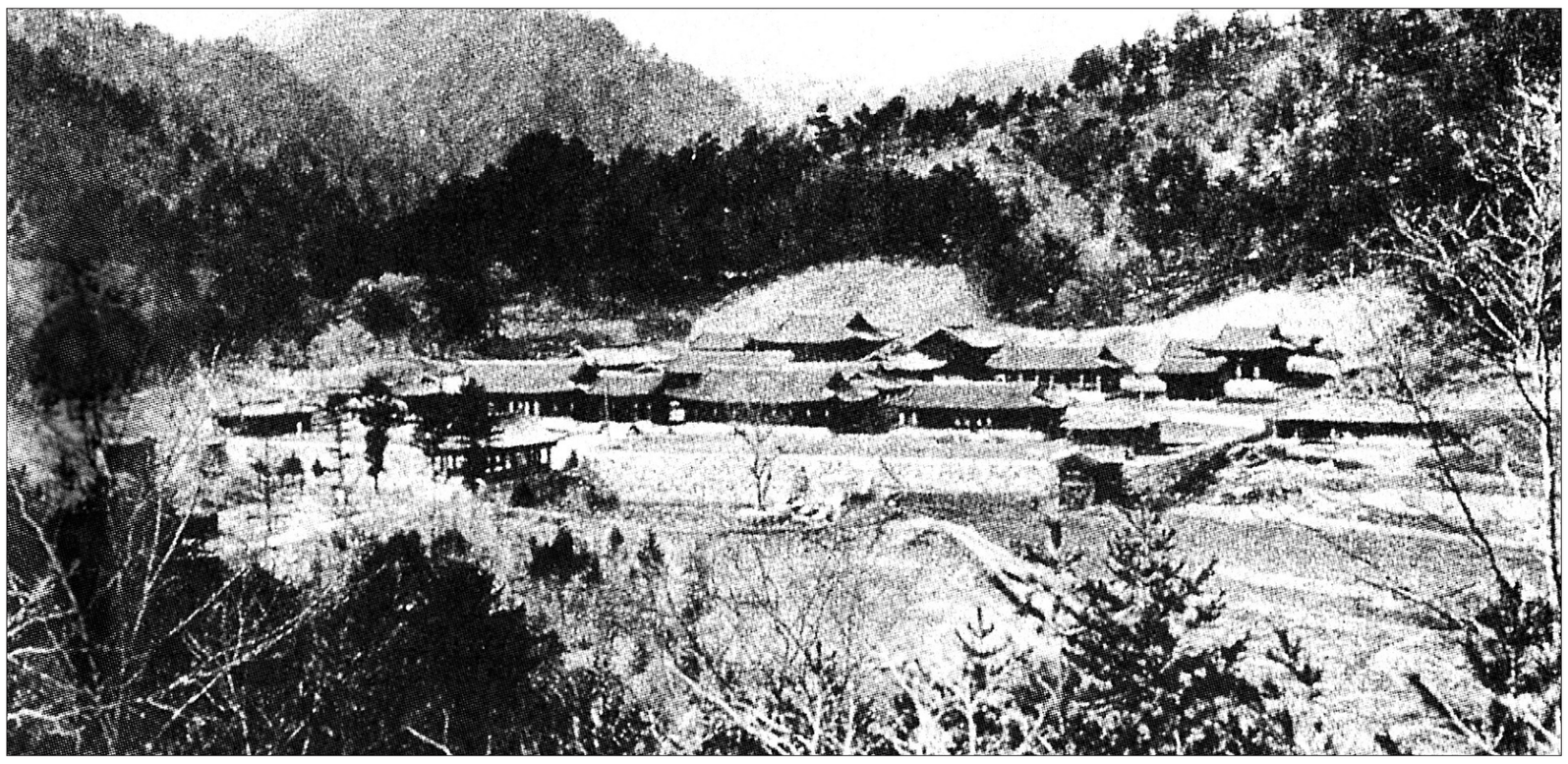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선학원의 질적 변화는 그동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지방선원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표는 1931년부터 1935년 사이에 간행된 〈선원(禪苑)〉지에 소개된 지방선원과 안거대중 수를 정리한 것이다. 선학원이 재건된 해인 1931년까지만 해도 4곳에 불과하던 선원 수가 1935년에는 22곳으로 늘어났으며, 안거 대중 수 역시 1932년에는 212명, 1935년에는 329명이나 되었다.

1930년대 지방선원의 증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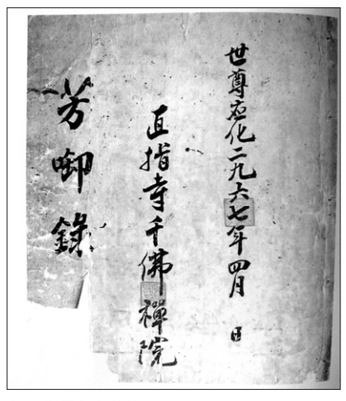
1931년	유점사선원(70) 오대산상원암(30) 표훈사선원(15) 직지사선원(20) 대승사선원(37)
1932년 2월	은해사금락선원(창설) 석왕사내원선원 정혜 · 수덕선원(40) 직지사천불선원(20) 표훈사선원(20) 유점사선원(20) 도리사산원(15) 건봉사선원(12) 범어사선원(8) 오대산상원선원(10)
1932년 8월	봉은사망월선원(10) 백양사선원(13) 화엄사탑전선원(5) 해인사퇴설선원(10) 범어사선원(15) 범어사내원암선원(7) 범어사마하사선원(5) 경성안국동선학원(23) 통도사내원암선원(27) 은해사운부선원(5) 은해사금락선원(10) 김용사대승사선원(11) 도리사선원(15) 유점사비로선원(15) 표훈사부인선원(10) 신계사미륵선원(7) 월정사상원선원(15) 석왕사선원(15)
1935년	석왕사내원선원(17) 통도사백련선원(16) 승가사선원(11) 양주망월사선원(14) 고은사선원(9) 금강산마하연(37) 도리사태조선원(22) 직지사천불선원(12) 범어사사자암선원(9) 월정사상원선원(20) 대승사선원(11) 김용사선원(12) 불영사선원(12) 동화사금당선원(11) 범어사금어선원(15) 범어사내원선원(21) 송광사삼일암(14) 경성중앙선원(25) 은해사운부선원(23) 보현사선원(6) 양화사선원(3) 해인사퇴설선원(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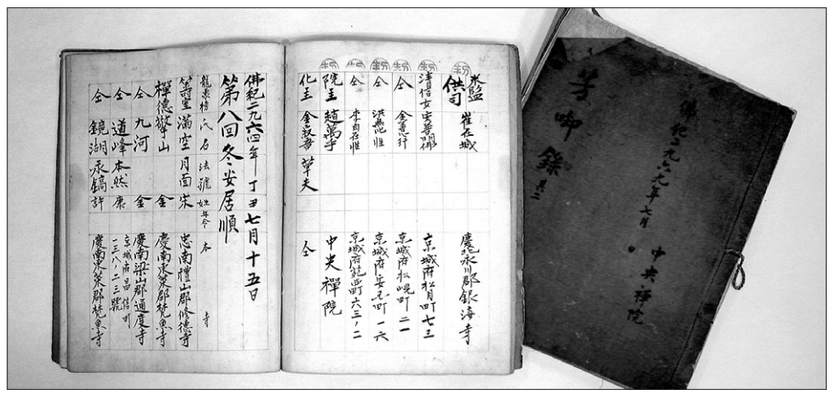
( )안은 수행중인 대중 수



초기 선학원 선원이 설치된 금강산 유점사 전경. 1931년 이후 선학원 선원은 꾸준히 늘어 선종 창종의 원동력이 됐다.

선학원 재건 후 전국 선원 증가
안거 수행자 꾸준히 늘어
시민선원 도입도 큰 의미
선종 창조의 원동력으로 작용





선학원중앙선원방함록. 1934년부터 1955년까지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수행했던 안거 대중들의 기록이다. 재가자인 부인들의 명단도 수록하고 있어 이채롭다.

이능화가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언급한 1910년대 우리 불교계의 상황이다. 이른바 당시 승려들은 선교양종(禪教兩宗)의 이름하에 강학과 선학뿐만 아니라 불사(佛事)나 기이한 행위로 교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전이나 교학을 연구하거나 염불하는 승려들이 가장 많아 당시 7,000명의 조선 승려 가운데 10중 8,9가 모두 교에 속하고, 당시 주지 50명 가운데 선(禪)에 속한 자는 3~4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2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어 참선은 말할 것도 없고, 염불과 강당은 전폐 되다시피 하였다. 불교의 수용이후 유구한 세월동안 지속되었고, 한국불교의 근간인 선교학이 크게 흔들렸던 혼란의 시기였던 것이다.

1929년 1월 3일 각황사에서 개최된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朝鮮佛教禪教兩宗僧侶大會) 역시 불교계의 혼란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선언문에서는 "조선불교와 같이 정법(正法)의 본체가 끊기고 쇠퇴한 것은 아직 없다. 1천 5백여 년의 역사에서 백폐(百弊)가 구생(俱生)하니 제자들이 조선불교를 구하고 만회하고자 20여 년을 하였으나 공적이 많지 않음은 단결의 힘이 약하고 진취의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는 요지의 자기반성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불교계의 본분사조차도 흔들렸던 시기에 선원의 안거대중 수 증가는 선학원이 창설과 재건의 목적을 끈질기게 고집했던 결과다. 더욱이 선원의 증가는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금낙선원(琴洛禪院)은 경북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경북의 명승지인 상화대(賞花臺) 아래에 있는데, 4년 전(1928) 화주 김성능(金性能) 화상과 시주 서병규(徐丙奎)씨가 상의하여 은해사포교당으로 허가를 얻어 작년 겨울부터 선회(禪會)를 개최하고 남북의 운수객(雲水客)을 모집하여 선학연구를 시킨다 했으며, 화주 김성능 화상은 불상(佛像) · 경전 · 기타 서적 · 종(鍾)등을 헌납하고, 시주 서병규씨는 5만 원 이상의 건물과 답(沓) 80여 두락, 전(田) 300여 두락을 헌납하여 영구완실(永久完實)한 선회(禪會)를 개최하였다고…

(〈선원(禪苑)〉 2호, 지방선원소식(地方禪院消息) 중에서)

비록 재정문제로 문을 닫는 선원도 있었지만, 경북 영천의 금낙선원은 절의 불상을 비롯한 불구(佛具) 등을 처분하고, 건물과 전답을 내놓아 선원을 개원해 운수납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선원의 활성화는 당시 선학원 중앙선원(中央禪院) 안거방함록(安居芳啣錄)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방함록은 수행자들이 안거할 때 안거객들의 소임 이름과 법호 · 법명 · 나이 · 주소 등의 방함을 적어둔 서책이자, 절집 안에서 안거 때에 널리 쓰는 방부(房付)의 기록이다. 중앙선원 방함록은 두 권으로, 1권은 1934년 동안거부터 1942년 동안거까지 8년이며, 2권은 1942년 하안거부터 1967년 하안거까지 25년간의 기록이다.

1권에 수록된 안거 수좌는 302명이며, 재가여성 55명이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 이 가운데 대중수가 가장 많았던 기간은 1934년 동안거와 1935년 하안거 · 동안거 기간이다. 수좌가 평균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1934년과 1935년은 선학원이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1935년은 3월 3일~8일 이틀 동안 중앙선원 법당에서 조선불교선종수좌대회(朝鮮佛教禪宗首座大會)를 개최하였다.

한국근대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선종 창종이 진행되었던 이 수좌대회에서는 적음스님의 건의로 비구니와 부인은 여선실(女禪室)이 별도로 설치된 선원에 한하여 방부를 허락하자는 긴급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도 하였다. 선학원이 진력했던 선풍의 대중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후부터 부인도 선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며, 이때의 전통은 오늘날 시민선실(市民禪室)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안거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만공스님이 조실 소임을 맡았고, 성월 · 도봉 · 적음스님 등이 선덕과 입승 · 화주소임을 맡아 중앙선원을 운영하였다.

결국 침체기를 벗어나 재건기의 선학원은 선풍진작의 대중화를 통해 당시 한국불교계가 맞이하고 있었던 혼란과 본분사를 망각한 것에 대한 반성의 촉매제가 되었다. 아울러 지방선원과 안거 대중수의 증가는 민족불교 수호를 표방했던 선학원이 재단법인 인가와 함께 당시 사찰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불교계에 대항하여 선종을 창종(創宗)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승려 · 티베트)

〈2〉 절대적 보리심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마음을 바라보라”

법을 꿈으로 간주하기

이 주제는 자비와 개방성의 표현이다. 그것은 살면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 다시 말해 고통, 쾌락, 행복, 슬픔, 저속함, 고상함, 더위, 추위 등과 같은 모든 경험이 순전히 기억일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디사트바 전통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유령으로 간주하는 수행을 한다.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놀고 싶다는 욕구를 품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비록 모든 것이 그저 마음 속의 생각일 뿐이긴 하지만, 모호한 사념이 무수히 일어난다. 여기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은 개방성의 경험에 해당되고, 모호한 사념의 연쇄는 자비의 경험에 해당된다.

당신은 앉아서 명상 수행을 하면서 그 꿈같은 성질을 경험해 볼 수 있다. 호흡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저런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은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 내용들은 순전히 정신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적을 향한 적대감과 친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돈 · 음식 · 부 등을 향한 당신의 태도 모두가 생각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현상을 꿈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모든 대상을 졸린 눈으로 보듯이 흐릿하고 모호하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식 대상들은 꿈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음의 산물들은 아주 생생하기도 하다. 만일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자각의 본성 탐구하기

당신은 마음의 근원을 봐야 한다. 내면의 사고과정들로 분산되지 않은 단순 자각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탐구하는 것은 분석하는 것과 다르다. 탐구는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을 ‘태어나지 않은’ 자각이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원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마음이 애초에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고, 특정한 성질도 없다. 그것은 보통 깜박이며 켜졌다가 깜박이며 꺼지고, 꺼졌다가도 다시 켜지기를 반복한다. ‘그 마음을 바라보라.’ 이 같은 관조는 절대적 보리심 수행의 한 부분이다. 우리의 마음은 뒤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끊임없이 요동친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직시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뿌리, 그 바탕을 더욱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마음이 색깔도 없고 형상도 없는 무엇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해 당신의 마음은 다소 텅 비어 있다.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일종의 공에 가 닿을 가능성을 계발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면, 다시 말해 우리가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감촉을 느끼고, 향기를 맡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려 시도하다 보면 우리는 일종의 공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공백은 알아차림과 연관돼 있다. 우선 당신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린다. 즉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주변 환경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리는 ‘대상’을 넘어서 그렇게 알아차리는 ‘원인’을 바라다본다면, 당신은 거기에 아무런 뿌리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해독제조차 떨쳐버리기

마음 자체를 바라보다 보면 궤변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어떤 대상에도 뿌리가 없다면 더 이상 뭐 할게 있나? 이 모든 수행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냥 이 모든 대상의 배후에 아무런 뿌리도 없다고 믿어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 시점에서는 ‘해독제조차 떨쳐 버린다.’는 주제가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해독제란 이 산만한 생각의 흐름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런 깨달음은 커다란 도움이 된다. 우리는 그 해독제 너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해독제가 일으킬 수 있는 나약한 생각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 해독제에는 모든 것이 공하므로 걱정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당신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맛본다. 그리고 이 같은 공의 경험 자체의 본성으로 인해, 큰 일이 벌어지든 작은 일이 벌어지든 사실 별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크게 문제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두자. 모든 것이 공인데 뭐가 걱정인가? 당신은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예술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밖의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이 명상일 테니.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는 아주 수상쩍은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에 머무는 태도는 ‘공의 독’이라 불리는 일종의 오해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아주 미심쩍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 반대하기 위해 매우 애를 써왔다. 앉아서 실제로 명상을 훈련하지 않는 한, 나는 그들을 결코 믿지 않는다.

이 해독제에는 명상 상태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식의 모든 개념이 포함된다. 이런 경우에서는 해독제, 그 외관뿐인 해독제조차 떨쳐버리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말을 손질하거나, 개에게 밥을 주거나, 숲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서양식 전통, 또는 인격신을 섬기는 전통에서는 이런식으로 오해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신론적 전통에서는 명상이나 묵상을 황홀한 것으로 묘사하곤 한다. 신과 관련된 유명한 관념 중 하나는 그가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이다. 숲도, 성의 폐허도, 바다도 모두 신이 만든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수영을 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고, 신이 만든 해변에 누워 환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신론적 자연 숭배는 이제 골칫거리가 됐다.



티베트 풍경(마티유 리카르 作)

나를 보면서 바라보는 자기를 확인하라
기존의 자신 넘어선곳 ‘회귀장치’ 작동
‘알라야’ 속 휴식… 절대적 보리심 핵심
지속적 자각 계발… 현상세계 대처 가능

우리는 지금 특별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적정의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만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본성에 머물며 휴식하기

이 주제의 의미는 절대적 보리심에 대한 이해를 지닌 채로 앉아서 명상 수행을 함으로써 일곱 가지 유형의 의식을 실제로 넘어서 마침내 여덟 번째 의식인 알라야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다. 처음 여섯가지의 의식 유형에는 ①시각 의식 ②청각 의식 ③후각 의식 ④미각 ⑤촉각의식 또는 느낌 ⑥마음의식 또는 다른 다섯 가지 의식을 다스리며 조화시키는 기본 요인과 같은 감각 인식이 속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유형의 의식인 ⑦성가신 마음은 이 모든 하위 의식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종의 응집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근원 의식인 알라야에 내려놓고 쉬게 하라는 가르침이 뜻하는 바는 자기 자신을 일곱 겹의 마음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간소하고, 명료하며, 분별하지 않는 마음 상태 속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시각, 냄새, 소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본거지, 또는 중앙 본부로부터 비롯된 산물이라는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 당신은 그들을 인식한 뒤, 그런 산물들이 일어난 중앙 본부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런 산물들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다.

이 주제에는 근원적 집중상태(shamatha)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안식처가 있다는 관념이 내포돼 있다. 당신 마음 속에는 출발점인 동시에 도착점이라 할 만한 지점이 존재한다. 당신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기존의 자신을 ‘넘어선’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회귀장치가 이미 작동중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주제의 중심 의미는 알라야 안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것, 그 회귀 장치와 함께 머물라는 것, 질서와 정보들이 발생하는 그곳에 머물며 쉬라는 것이다. 이 모든 논리, 또는 과정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애초부터 믿어왔다는 당연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면 긴장을 풀 수 있다. 그것이 절대적 보리심의 핵심이다. 당신은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날 필요가 없다.

이 근본적 알라야 자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알라야 비즈나나(alay-vijnana), 즉 알라야 의식을 일으키게 된다. 이 알라야 의식은 분별을 한다. 이것과 저것,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구획을 긋기 시작한다. 그것이 의식의 개념이다. 하지만 근본적 알라야 자체는 그 어떤 편견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중립적이다.

근원적 주의력인 수가타가브하(sugatagarbha)는 알라야 너머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알라야와 함께 다닌다. 그것은 알라야 위에 있지만, 그 알라야 상태를 포괄하기도 한다. 알라야는 근본적 선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깨어있음 그 자체이다. 그 깨어있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근원적 알라야조차 특정한 종류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알라야 속에서의 휴식은 앉아서 명상 수행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다. 당신은 그와 같은 의식의 층위에서 절대적 보리심을 경험하게 된다. 절대적 보리심은 현상이란 것이 딱딱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명백한 무엇이라는 깨달음 그 자체다.

이 책은 일반 수행자를 위한 책이다. 우리는 단지 명료한 마음, 기본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서의 알라야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불성을 즉시 깨닫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알라야 안에서 쉬라는 이 가르침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명상 후 환영의 아이로 지내기

환영의 아이가 된다는 말은 자신의 선입관으로부터 인식을 형성해 내는 과정에 의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 그 느낌이 명상 후의 경험에 배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이해나 자각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벌어지는 이 게임이 대단한 게임이 아니라 단순히 가상의 게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알아차림과 자각을 함께 작동시켜야 한다.

앉아서 하는 명상을 마치고 나면, 당신은 현상을 응고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대신 당신은 수행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일종의 지속적 자각을 계발시킬 수 있다. 사물들이 다시 무겁고 딱딱해지면, 당신은 그들에게 알아차림과 자각을 비춰준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모든 것이 유연하고, 따라서 대처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거나, 파괴하거나,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가짐, 다시 말해 현상 세계가 악하지 않다는 신념을 지니게 된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대처 가능하다.

당신은 단순히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푹신푹신한 벽과 같다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사방에 걸쳐있는 푹신한 벽, 그것이 환영이다. 당신은 차를 마시거나 다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매우 날카로운 무언가와 부딪칠 것을 예상하지만, 곧이어 사물들이 당신과 접촉하는 즉시 튀어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대립은 사실상 그다지 날카롭지 않다. 모든 것이 당신의 알아차림과 자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알아차림과 자각을 통해 어떻게 절대적 보리심을 키울 수 있는지 배우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명상 후에 마주치는 사물들이 유연하고, 주변에 크나큰 공간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결국 이 주제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더 잘 대해주라는 것이다.

이 글은 ‘참글세상’에서 펴낸 〈자비심 일깨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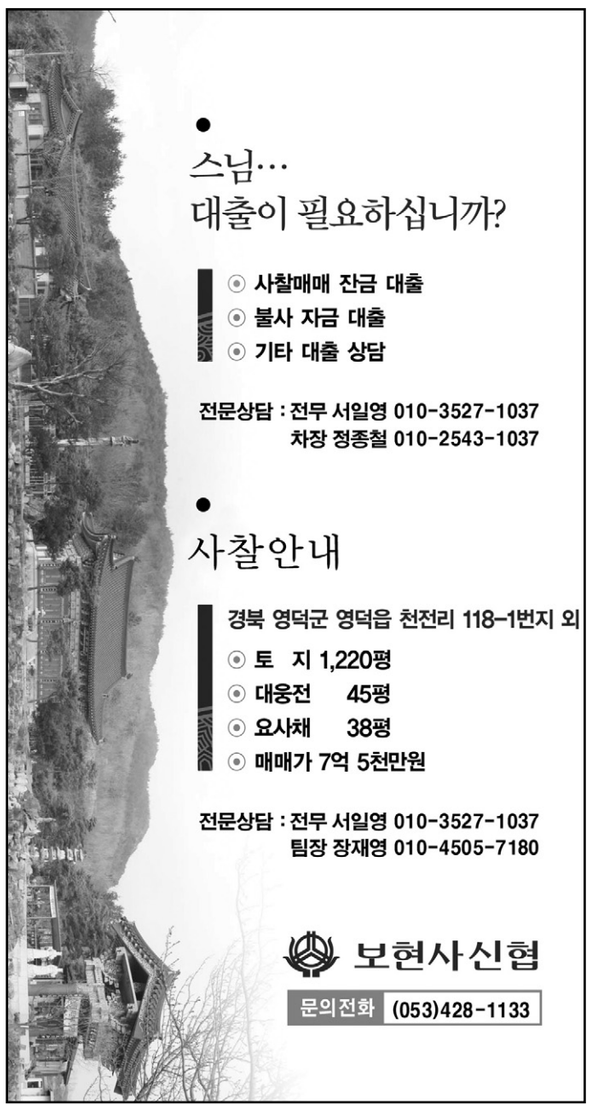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끝이 없는 중생의 탐심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0)

야사의 음행

부처님께서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발기국에 이르러 비바리성에 머무르셨다. 그 해 그곳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거의 걸식을 하여도 음식을 구할 수 없었다. 성안에 살던 야사라는 장자도 출가하여 걸식을 하였으나 음식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는 어느 날 속가를 찾아 음식을 구걸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아주 큰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집에는 재물이 적지 않으니 너 필요한 대로 쓰려무나. 그리고 너의 아내가 아직 여기에 있으니 함께 생활하면서 보시하고 삼보에 공양하거라."

하지만 아들 야사는 사문으로서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네가 사문으로서의 길을 가려하나 집안의 후사는 잇게 해다오. 그래야만 내가 죽은 뒤에 재물이 관청에 속하지 않게 될 수 있으니, 오직 그것만이 소원이다."

야사는 대답했다.

"대를 이을 자손을 남기려는 뜻이라면, 어머니의 청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들어가서 신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야사가 그의 아내를 만나고 떠난 뒤 야사의 부인은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뒤에 마침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속종(續種)이라 했다. 세간 사람들이 모두 그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놀렸다. 야사는 너무 부끄러워 사리불에게 말했다. 사리불은 야사와 함께 부처님을 뵙고 이 일을 말씀드렸다.

"야사 비구야, 사문들 중에서 아직 이런 일은 없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큰 죄의 문을 열었구나." 야사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다.

과거 세상에 광음천(光音天)이 생기고 이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의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탐욕을 내어 이곳 들판의 곡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어버렸다. 그러자 다른 중생들도 차츰차츰 그를 따라하게 되었고,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습이 되어 몸은 갈수로 무거워졌다. 이렇게 욕심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점차 신통력은 물러가고 광명도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때부터 해와 달이 생겨난 것이니, 그때의 탐욕스러운 중생이 바로 지금의 야사였다. 그 어머니도 비단 오늘날에만 그 아들을 꾀어서 속인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미 그런 일을 저질렀다.

가시국의 마라내성의 왕 대명칭은 보시와 계를 지니고 도(道)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의 첫째 부인이 별자리를 자세히 살피자니 금빛 사슴 한 마리가 남쪽으로부터 허공을 가르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생각했다.

'저 가죽을 벗겨가지고 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인은 사슴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여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왕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부인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보였다. 이유를 물으니 부인이 대답했다.

"근심이라기보다 그저 내가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금빛 사슴을 보았는데, 그 가죽을 가져다 요를 만들고 싶은데 그 사슴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신하와 하인들에게 말했다.

"누가 그것을 구해 올 수 있겠느냐?"

나서는 자가 없자 모든 사냥꾼을 모았다.

"어서 빨리 그 사슴을 찾아오너라."

사냥꾼들은 모두 말했다.

"저희는 이제껏 그런 이름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 가서 구한단 말씀입니까?"

왕이 노하여 말했다.

"사슴을 잡아오겠느냐? 감옥에 갇히겠느냐?"



삽화 · 강병호

그러자 사냥꾼 중에 내사라는 사냥꾼이 나서며 말했다.

"그 사슴을 보았다거나 소문이라도 들었다는 사람은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내가 누각 위에서 보았는데, 남쪽으로부터 허공을 가르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소."

야사는 사슴이 먹이를 먹는 곳으로 가서 사슴을 찾을 생각으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다가 설산에 닿았다.

그 산에는 선인이 살고 있었다.

"여기서 사신 지는 오래되었습니까?"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기이한 일들은 보지 못했습니까?"

"이 산의 남쪽에 니구율이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언제나 금빛의 큰 사사슴이 날아와서 그 위에 앉아 니구율 잎을 먹곤 합니다."

사냥꾼은 선인에게 부탁하여 그 나무 아래로 가보았다. 잠시 후에 사슴이 나타났는데, 마치 큰 기러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사슴은 나무 위에 잠시 머물며 잎을 먹고는 배가 부르자 다시 알아가 버렸다. 사냥꾼이 돌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 사슴은 그물이나 활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냥꾼이 말을 전해 들은 부인이 사냥꾼에게 일렀다.

"당신은 꿀을 가지고 가서 그 나뭇잎에 바르시오. 나무 위에 있는 잎에서부터 차차 아래로 내려오며 꿀을 바르며 아래 그물을 쳐 놓은 곳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사냥꾼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잠시 후 사슴은 꿀 냄새를 찾아 잎을 뜯어먹으면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결국 사슴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선인이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쯧쯧, 무슨 저런 가혹한 재앙을 다 당하는가? 비록 허공을 날 수 있다고 해도 악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선인은 게송으로 말했다.

"이 세상 커다란 악 중에서 / 냄새와 맛보다 더한 게 없다. / 범부인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고 / 숲과 들판의 짐승들을 속이거니 / 바람에 불려오는 냄새와 맛을 탐내고 집착하다가 / 이러한 괴로움의 환난을 받는구나."

부인이 사슴을 보고는 사슴을 끌어안았다. 부인이 더럽게 물든 마음과 무거운 정으로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사슴의 금빛은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왕이 부인에게 말했다.

"이 사슴의 금빛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오?"

"이놈은 이제 볼 것이 없는 놈이니 버리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금빛의 사슴은 바로 야사이며, 부인은 지금의 야사 어머니이다. 그렇게 모든 괴로움을 받았으면서도 지금까지 탐내고 집착하고 있다." (〈마하승기율〉 제1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㉚



전법의 기쁨

금강경 사경 이야기

나는 올해로 칠순이다. 그동안 부처님의 품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다.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나는 20년 전부터 금강경 한글 사경 책을 수 만권 법보시를 해왔다. 하지만 사경본을 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사경(寫經)본을 내어 보시하기로 했다. 누구나 따라 쓰면서 좀 더 가까이 금강경을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시작하여 글을 썼다. 한 자 한 자 쓸 때 마다 정성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가 더 큰 신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길 발원했다. 이렇게 하여 천권으로 법보시 하려 했던 일이 동참자가 늘어나면서 4000권을 인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각자의 인연 따라 보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낙산사 홍련암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에도 부쳐드리고 조계사 봉은사에도 보냈다. 각처에서 많은 신도님들로부터 성원의 전화를 받았다. 우선 불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나의 가족들에게도 보냈다. 어제 카카오 톡에 사진이 올라왔다. 10살 된 손주와 5살 된 손주가 사경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너무나 고맙고 기특하여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이웃집 아이들도 따라 쓰고 있다며 자랑들이다.

주위에 사경 권하며 전법
철드니 어른들 모두 저세상에

이렇게 한사람씩 사경으로 전염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올해의 내 서원과 발원은 헛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다.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쌓아 보시하더라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 마음을 낸 이가 있어 이 경(經)과 네 글귀로 된 한 게송(偈頌)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일러주면 그 복이 보시한 복덕보다 나으리라. 무슨 까닭인가! 있고 없는 모든 법은 꿈결 같아서 그림자와 꼭두각시 물거품이라 풀끝에 이슬이요 번개 같거니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 보게나."

효도

홍법사에서 전화가 왔다. 저녁에 섹서폰 연주회가 있으니 5시까지 오면 좋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보는 연주회라 기쁜 마음으로 시간에 맞춰 연주회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생각되어 나는 미리 차를 길옆에 세웠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도량은 너무도 조용했다. 관계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연주회가 아니었다. 식구들끼리 모이는 할머니 구순 잔치란다.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신도중에 섹서폰을 연주하는 신도가 있어서 한번 와서 해 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마침 축하할 자리여서 초빙했다는 것이다. 주지 심산 스님은 사진을 찍고 남녀 두 사람이 함께 부는 섹스폰 연주가 시작되었다. 관객은 공양주와 법당일을 보는 법당보살님 안채에서 할머니를 시중드는 보살님 그리고 몇몇 보살과 나까지 10명 정도이고 장소는 작은 거실이었다. 음악이 흐르고 그동안 갇힌 생활을 하던 보살들이 차례로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추었다. 구순을 맞은 할머니도 손뼉을 치며 흥겨워했다.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부모의 인연만이 아닌 스님과 노 보살님 사이에 흐르는 정은 그냥 정이 아닌 효심(孝心)이었다. 나도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방 한 켠에 항상 모셔져 있는 고암 스님, 일타 스님, 법정 스님의 영정 앞에 다시금 고개 숙여 예경 드리며 생전에 입었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리고 스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경을 읽고 경을 쓴다. 이제 철이 들만하니 그 어른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다. 스님들의 가르침과 베풀어주신 사랑, 모두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보답이 되길 바라며 그 은혜 잊지 않으려 한다. 오늘 심산 스님처럼 후회가 없도록 그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참회의 마음이 가슴 가득하다. 마침 창밖에는 작은 보슬비가 내려 푸른 잔디밭을 적시고 있다. 돌아오면서 작지만 큰 뜻이 담긴 연주회였다고 박수를 보낸다. 위로는 어른이고 아래로는 늘 궂은 일 도맡아 하는 이 절집 식구들과 늘 마음 쓰시는 스님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법문을 들으며

월호 스님이 홍법사에서 법문을 하시는 날이었다. 도반과 함께 차를 타고 갔다. 스님은 우리 시대의 젊은 불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누구보다 포교에 힘쓰고 계신 스님이다. 오늘 함께 간 도반의 손자는 스님의 유발 상좌다. 법당엔 700여 명이 넘는 많은 대중이 자리를 매웠다. 날씨가 무척 더웠지만 누구 한사람도 불평 없이 질서 있게 앉아 스님의 법문을 기다렸다. 스님이 등단하시자 대중은 큰 박수로 스님을 맞았다.

스님의 법문은 아주 쉽고 편안했다. '불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불교의 진수를 일러주셨다. 우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사용하지 말아야 될 화(성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되고 터뜨리면 업(業)이 되며 관찰하면 놓아버리게 되니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 수행이다." 아마도 이런 법문을 들은 모든 불자들은 쉽게 잊혀 지지 않을 것 같다. 법을 닦고 도를 닦음은 욕망의 줄임이다. 몸이 가진 모든 욕망을 분리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보낸다면 본래의 내 마음만 남아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것과 가진 만큼 나누고 아는 만큼 전하라는 전법(傳法)의 가치를 설하는 법문이었다. 귀한 설법을 들은 대중들의 표정엔 환희심이 가득했다. 법을 전하고 듣는 일이야말로 불자로서 행복하고 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등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 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하실 수 있습니다.





3×6식물성사군자

3×6사군자 (7.4ƒ×14.5㎝)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ƒ×29㎝)



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7.4ƒ×29㎝)



한봉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
돈타레전사자/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약쑥1호예술연꽃양초/야광 연꽃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대행 스님

모든 걸 근본에 놓고 편안히 여여하게 살아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도 하필이면 오늘 따라 이렇게 날씨가 쾌청하고, 또 제가 큰스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벌써 준비했던 질문이 거의 반쯤은 풀린 듯도 합니다.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법인(三法印)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제법에는 이름하여 붙일 것이 없다.'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법에 이름이 없다면 오늘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면 업은 어디에 붙는 것입니까? 저의 좁은 공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알게 되면 '참 희한한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찰나찰나 아버지 노릇 하고 엄마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러죠? 그 얘길 항상 하죠. 그런데 그렇게 찰나찰나 내가 있고 생활하고 돌아가되 찰나찰나 그렇게 많은 것이 돌아가니까, 천차만별로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함이 없이 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함이 없이 하는구나. 아버지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할 건가, 남편이 됐을 때에 나라고 할 건가,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건가. 나라고 붙일 것이, 틈이 없이 자꾸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니까 도저히 나라는 걸 이름해서 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했노라.' 또 어떤 말은 '나는 없노라.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느니라. 나는 한 일이 없노라. 나는 여러분한테 설법한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살아보십시오. 그저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면서 남편 노릇 했다가 자식 노릇 했다가 아버지 노릇 했다가, 그저 매일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게 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 할 때에 남편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거 할 때에 아들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니 나라는 게 없다. 나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그냥 여여하게 그렇게,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친구 노릇 하면서 여여하게 돌아가더라. 이러니 어찌 붙을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공해서 없다는 거를 알면 붙을 게 없을 것이고, 이것이 천차만별 바깥으로 끄달리고 그저 내가,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줬다, 모두가 나, 나, 나, 나 이러고 돌아가면 꼭 그냥 매사 게 붙어서 걸려서 돌아가죠.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대로 소화가 잘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욕심이 많아서 어떠한 거든지 먹으면 체하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걸려서 메어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소화가 잘되면 거침없이 걸림 없이 돌아가고, 그걸 재료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하고 이런다면 그게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이 되고 창조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저 무의, 무심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물질세계만 알고 하니까 내내 걸려서 못 삽니다.

지금 정신세계가 얼마나…, 지금 시점에도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안 되는 법! 지금 정신을 뺏기고 뺏어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꼭 육을 짓대겨서 잡아먹어야 잡아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정신을 잡아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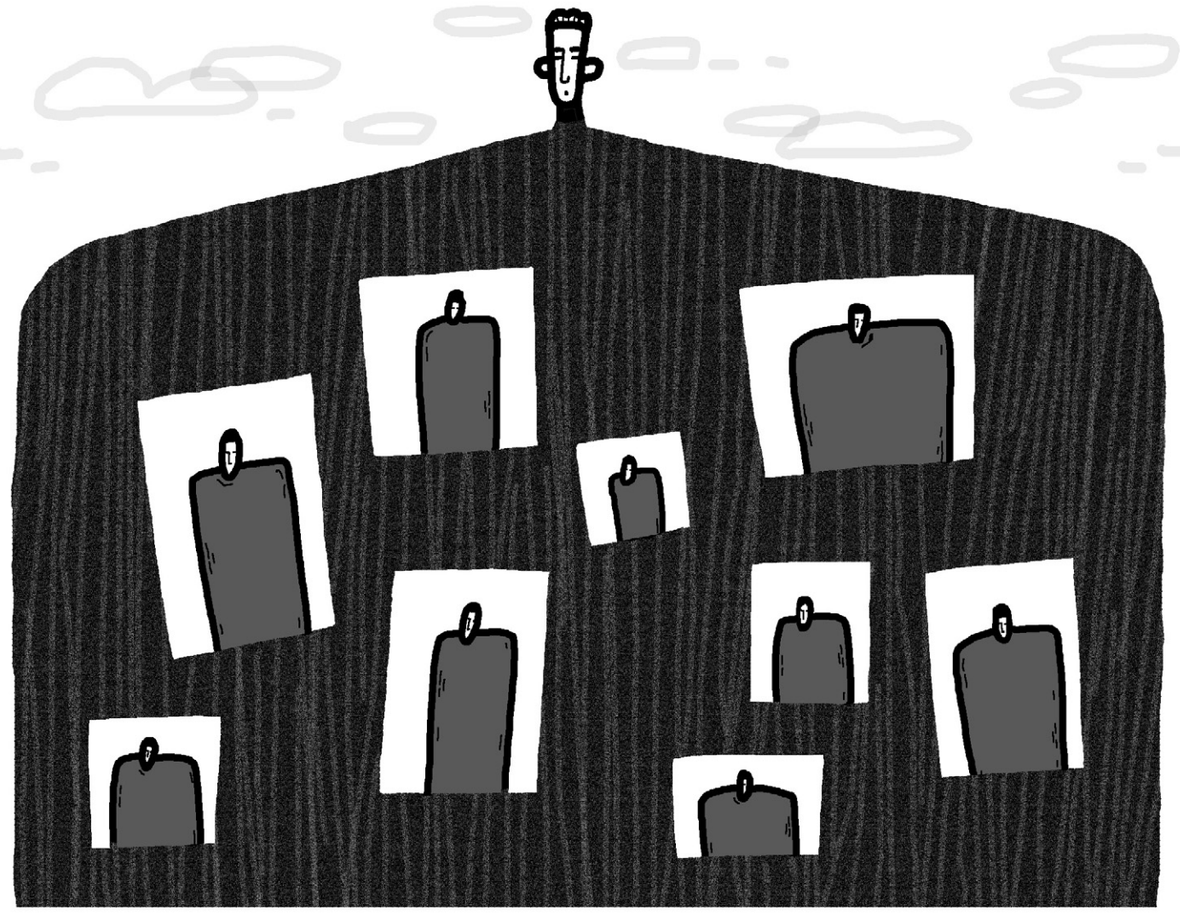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4(여): 저는 경남 마산지원에서 왔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하느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큰스님께서는 늘 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늘상 이끌어 가는 자가 누구이며 보는 자가 누구냐는 '이 뭣고?'로써 화두를 삼고 있는데요,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법하고 화두를 잡는 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관법이 별나게 다른 게 아닙니다. 수박을 갖다 놓고 '이게 뭣고?' 하고, 매사 거를 '뭣고'로 돌아가는 거보다도 그냥 두려움 없이 수박이다 하면 갖다 놓고 (손날을 내리치시며) 그냥 짜개서 먹어! 하하하. 아, 그러면 수박 맛이라는 게 어떠한가 알고 또 수박 속에 씨가 있는 것도 알게 돼서 그 이듬해 그 씨를 심어서 다시 또 여러 중생들을 다 먹이고 씨가 되남으면 그 이듬해 또 먹이고, 또 씨가 되남으면 또 먹이고, 세세생생 먹일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질 수 있고, 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바로 자비로써 그렇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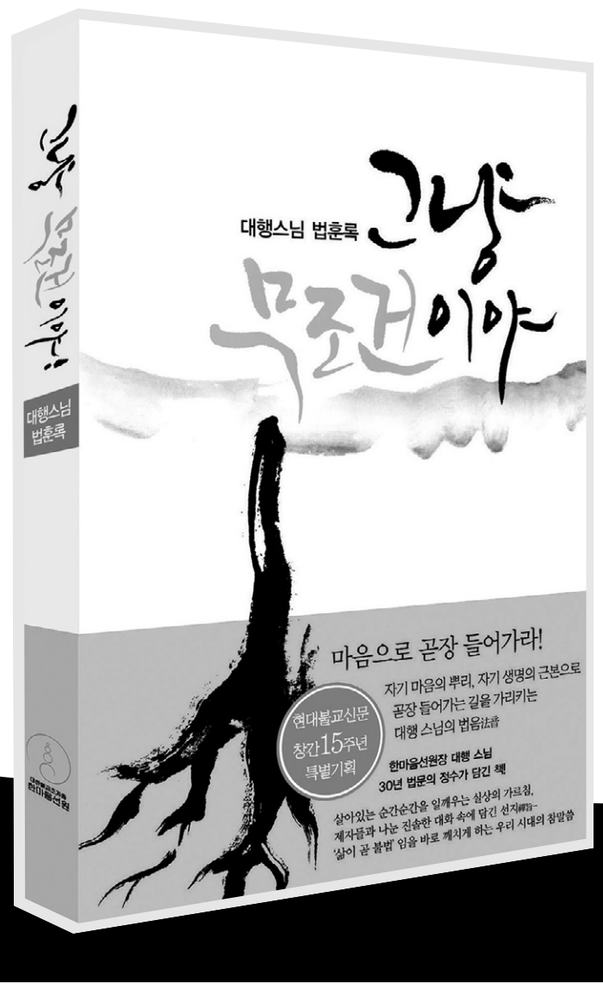
(어느 노보살님이 불전을 올리자) 이게 나한테 갖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갖다 주는 거라면, 내가 받았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갖다 줬다고 하지 않는 시주라면 이 삼천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근본, 바로 불바퀴의 에너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시주를 할 것 같으면, 만 원을 했다면 십만 원 내지 몇 곱쟁이가 불어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주가 아니고 개별적인 스님의 고깃덩어릴 위해서 어떠한 착을 가지고 이렇게 시주를 했다면, 그리고 또 자기가 했다는 거를 생각하고 했을 때는 큰 집을 지어 줘도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5(여): 스님, 저는 진주에서 온 신도입니다. 첫째는 스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스님을 친견하고 갔다가 오늘 또 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스님, 제 몸이 차도가 없습니다. 스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밥을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스님.

큰스님: 이거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내가 낫게 해 준다.' 하면 귀신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건 귀신 법이야. 그러면 뭐냐? 여러분 몸속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체들, 의식들이 전체 들어 있는 거니까 몸뚱이는 그 생명체들의 집합소입니다, 집입니다. 몸뚱이가 그 생명들의 집입니다. 집이 집을 고칠 수는 없죠. 집 속에 들어 있는 주인들이 고칠 수밖엔 없죠? 우리도 집을 지어 놓고 살면서 집이 헐어지면 우리 주인들이 고치죠? 그렇듯이 당신네 몸체도 바로 집일 수가 있어요. 그 생명체들의 집. 그러니까 집이 망가졌을 땐 '너희들이 고쳐라.'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집을 망가뜨렸으니까 너희들이 고쳐라. 고쳐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아주 직코스로 관하라

☞ 29면에서 계속

써. 고쳐서 끌고 다녀.' 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나게 했으니 너의 한마음 속에서 바로 고쳐서 끌고 다녀야 하잖아, 네 심부름꾼인데.' 하고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올도 지나가지 않고, 아니 오늘부터도 아마 밥을 먹게 될 겁니다.

아이구, 참들! 어떻게 모두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 뿌리를 믿으라고 이끌어 주고, 자기 영원한 뿌리를 믿으라고 직코스로 대줘도 직코스로 하질 못해서 모두…. 하이구, 참 내. 허, 기가 막혀서. 아, 직코스로만 하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 봤어요? 자기 손가락 하나가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자를 수 있겠느냐고요?

질문자6(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다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어느 때 몸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에게 "본래 병 붙을 자리가 없는데 어디 병이 있으면 내놔 보시오."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분이 곧 기력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까, 관법이었습니까? 이 자리에도 있을 몸이 안 좋은 많은 사람들이 큰스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어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눈이 갈 때에 귀가 가고, 귀가 갈 때에 모든 감각이 가죠. 모두 안 그렇습니까? 저기서 "불이야!" 그러면 눈으로 보는 동시에 귀로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관법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질문자6(여): 예.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러니 관법과 믿음은 둘이 아니죠. 직코스로 '아, 자기가 공했다는 그 이치만 안다면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너 나가 따로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거를 다시 되묻고 되묻고 해서 여러분이 좀 다 알았으면 합니다. 하하하….

질문자6(여):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님의 지엄하신 이런 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애절한 어머니 한 분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들이 3년 전부터 대학원을 다니다 스스로 자퇴를 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리를 같이 공부하면…. 이 도리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 나름대로 얕은 지식을 같이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님은 부처님 법만이 내 아들을 건질 수 있고 모두를 건질 수 있다고 믿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두 따라 주질 않는답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나무 하나도 제대로 기르려면 '아이, 요게 참 잘 자라야지.' 하고 이쁜 마음으로 물을 주고 해야 마음이 전달돼서 아주 푸르르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요 놈의 건 있으나마나야. 에이, 이런 거 여기다가 둬서 뭐 해?' 하고서 배척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냥 한쪽이 썩어 들어가고 말이 아니게 죽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한마음이 첫째 돼야 하고, 또 둘째는 본인도 그래야 하지마는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도 아들이다 어머니다 하는 가설이 돼 있단 말입니다. 한 집 안에 전기를 켜려면 이 방 저 방, 아들 방 어머니 방 이렇게 다 가설을 해 놓죠. 불 들어오게끔요. 그리고 집 안에 스위치를 하나 해 놓죠. 그리고 방마다 스위치를 또 해 놓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되는 거니까 마음으로 애절복절하지 마시고 턱 믿고, 아들의 마음 주인공이나 내 마음 주인공이나 뿌리가 다 같으니까 '내 주인공, 당신만이 저 아들이 마음을 잡고 밝게 살게끔 할 수 있잖아.' 하고 직코스로 들어가야지, 지금 보살 마음까지도 못 믿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전기가 들어옵니까. 어떻게 스위치를 올리지도 않고 전기 들어올 때를 바랍니까?

질문자6(여): 스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자7(남): 부산에서 온 신도입니다. 항상 오고 감이 없이 같이 있는데 큰스님을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불교에서는 보시행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끝간 데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홍서원에서 '중생무변서원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없이 많은 중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시행을 해야만 보시바라밀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아, '무변서원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변! 하하하…. 이 마음을 말입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또 나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남에게 뭐를 줘도 내가 그걸 받으려고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보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 잘되면 나한테 꼭 잘해야 돼.' 하고 주는, 말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그렇게 바라고 합니다. 형제지간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럭하면 보시가 아닙니다. 뒤를 보지 않는 보시, 무엇을 바라지 않는 보시,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 왜냐하면 일체 만물만생이 한마음으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걸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것도 아니고 전체 한마음으로서 모두가 같이 천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음의 살림살이인데 내가 특별나게 '내가 줬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러고 한다면 보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받고서 '이거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를 보답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거는 정한 이치로, 그것은 인연에 따라서 참 잘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착한 마음이죠. 그러나 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보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줬다. 내가 했다. 너는 내가 줬으니까 반드시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게 보시입니다.

그리고 마음 보시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 보시보다도 마음 보시.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다못해 다리가 성치 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느라고 무엇을 끌고 다닌다거나 또는 성치 않은 사람이 그릇을 놓고 좀 달라고 한다거나, 장님이 무엇을 달라고 한다거나 또 몸은 성해도 그냥 가정이 엉망이 되고 편찮은 사람이 많고 이래서 쩔쩔매는 사람, 부모가 없이 그냥 사는 애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뒷생각 앞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나도 수억겁을 거쳐 올 때에 병신도 됐었을 거고 못나기도 했었을 거고 또는 모자라기도 했었을 거고 장님도 됐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겪어 나온, 과거에 그렇게 겪어 나온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바로 내 모습처럼 생각하고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보시할 수 있는 그 마음. 하하하…. 그 마음이 즉, 보시입니다.

질문자7(남): 감사합니다.

질문자8(남): 스님, 울산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스님을 뵙고 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육조 혜능 대사가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무량겁을 넘어오면서 뭇 중생들이 지은 많은 죄업을, 타 종교에서는 자기 죄를 소멸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스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이거 봐요. 우리가 업을 지었든지 업을 안 지었든지 공동분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다 모든 걸 놓고 편안히 여여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기에 달린 거죠, 모두가. 또 앞서의 말은 뭐라 그랬죠?

질문자8(남): 육조 혜능 대사가 나무를 해서 자기 어머니를 봉양을 하려고 나무를 팔려고 지고 오는데,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분이죠. 그런데 길을 지나치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을 듣고 도를 깨쳤다 그러는데요, 그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도 성불할 수 있는지요?

큰스님: 아, 지금 그 말을 해석해 보시오.

질문자8(남): 잘 모르니까 여쭙는 거 아닙니까, 스님.

큰스님: 아, 모르는 말을 왜 물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행하는 도리입니다. 하나도 가질 게 없다는 것을 내 어찌 알았으랴. 또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어찌 알았으랴. 내가 참이라는 것을, 내가 참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으랴. 모두가 내가 구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랴. 이런 뜻에 속하는, 한데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이게 노래에 있죠? 그것이 노래가 아닌 노래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할 겁니다. 그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하하….

질문자8(남):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여러분! 꼭 부탁할 말이 있어요. 내가 간곡히 부탁할 말이 있어요. 진짜 자기 영혼의 뿌리를 진짜로 믿어서 아주 직코스로 관하세요. 그래야만이 몸속의 생명체들이 '아, 요런 것이 바로 나구나.' 하고서 누진으로 통신을 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나 죽일 수 없지. 우리 집이 헐어졌다는데 우리 집을 고쳐야지.' 하고 모두 작용을 합니다. 병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못한다 한다는 여러분의 사정이고 모두 사량이지 부처님의 도리는 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된다 안된다도 없고요. 알았어요?

대중: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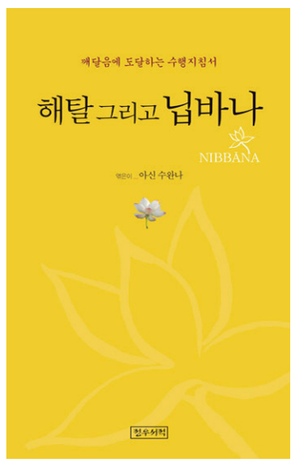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3년 7월 1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법이 별나게 다른 게 아닙니다.
수박을 갖다 놓고 '이게 뭣고?' 하고
매사 걸 '뭣고'로 돌아가기보다는
두려움 없이 그냥 짜개서 드세요.
그러면 수박 맛이 어떠한가 알게 되고
또 수박 속에 씨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세세생생 먹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다가오는 칠석과 백중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양초 2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는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념 양초 무료 보시 행사에 이은 두번째 행사입니다. 보시 예정인 초는 흰색 육각초로써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에 상당하는 고급 양초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사오며, 받으실 1.사찰명 2.사찰주소 3.사찰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후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팩스 031)766-0233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卍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불자 세상보기

'말'이 '말'을 가로 막는 사회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무심코 한 말이 그야말로 무서운 결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반대로 진심을 담은 말 몇 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힘이 될 수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도 한다. 그래서 말은 참으로 요물 덩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자기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제삼자에게 전해졌을 때에는 전혀 엉뚱한 말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능하면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것은 그만큼 말의 후유증을 앓은 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말은 자칫하면 세 치 혀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설화(舌禍)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거듭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최근 야당의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이른바 '귀태(鬼胎)'의 후손이자 따라서 대통령 자신도 '귀태'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여야정치권이 모든 정치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귀태'란 말은 중국에서는 '마음속에 숨겨둔 악의'를 뜻하는 말로 쓰였으나 일본에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느 일본 작가가 일제의 1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로 표현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우리도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누가 듣더라도 썩 유쾌한 말은 아닌 것 같다.

보도된 대로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귀태라면 논리적으로 그의 자식인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귀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귀태란 말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자살폭탄이나 다름없는 단어인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곱씹어볼수록 얼굴이 붉어지는 그야말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그동안의 정치적 맥락과 전후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아니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리라. 다만 우리는 그와 같은 천박한 말이 예사롭게 오고가는 한국사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적 언어생활이 이렇게 까지 피폐해진 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 상에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말들이 생산되고 또 실시간으로 소비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조롱과 막말, 음담패설, 선동,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지면상으로는 도저히 옮겨 적을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말들로 도배질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의 '막말 정치'와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경쟁'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이번 민주당 대변인의 설화사건도 그와 같은 사회분위기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말인지? 막말논쟁의 찬반여부는 정치적 입장 차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저 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의심스럽게 만들 뿐인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불교에서는 말과 관련된 일체의 잘잘못을 가리켜 구업(口業)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이번 귀태발언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욕에 해당하는 악구(惡口), 그리고 악구 가운데서도 최악의 악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모든 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따르게 마련이다. 제발 당부하건대, 정치인들은 서로 막말만 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인 민생(民生)으로 회귀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쇠꼬챙이에 찔린 혓바닥을 내밀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지옥도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 서로 그런 일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발언대

한겨레 칼럼 달라이 라마 폄훼 논란

달라이 라마 흠집내기, 손으로 달 가려라

SNS가 한겨레 정문태 국제분쟁전문기자의 '환상을 먹고 자란 세계 평화의 우상'으로 뜨겁다. 평생을 평화운동에 헌신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달라이 라마를 미국과 서구 열강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16년 동안 분쟁지역을 취재해 온 기자가 쓴 칼럼이라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신빙성이 들게 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불교인들은 정문태 기자의 칼럼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교모하게 비틀어냈다는 게 그 이유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실었다. 그 중의 일부를 발췌했다.

〈편집자 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달라이 라마를 향한 악의에 찬 발톱을 감추고,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비트는 이런 기사가 실린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부끄러움을 알리고자 몇자 적는다.

신정체제의 수장이라고?

불교는 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 정교일치 체제라 해야 한다. 망명 후 2003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때까지 달라이 라마는 최대종파인 겔룩파의 수장이자 통치자였다. 그러다 2003년에 티벳인들이 직선으로 총리를 뽑고, 지난해 3대 총리를 뽑아 이제 정치적 결정은 망명정부의 총리가 전적으로 한다. 12년만에 정치권력은 세속으로 완전히 이월된 것이다. 지금은 그의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한들 정치문제에 결정권이 없다. 정문태 기자의 눈에 지금도 신정체제를 하거나 종교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아랍국가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 그것이 무조건 문제라고 보는 거야 말로 서구식 잣대 아닌가.

무슬림 희생에 침묵했다?

몇년 전 "달라이 라마가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칭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본문에는 "전쟁은 안된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에서 인명살상을 줄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악의적인 보도와 제목달기였다. 외신도 달라이 라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기에 그렇다. 입장이 오해될 여지가 있고, 그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침묵했다면서 무슬림들의 희생에 침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9.11테러 직후 달라이 라마는 "미국이 보복해서는 안된다"고 용기있는 성명을 냈다.

대중국 봉쇄정책의 하수인?

중국의 침략으로 티베트인들 600만명 중 120만 명이 학살됐다. 세계에 흩어져 13만명의 망명 티베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 티베트인들이 택할 방법은 무엇인가? 극단적 테러주의를 택하는 대신 전 세계의 지지와 지원이라는 방식을 티베트는 선택하고 있다. 일제 치하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설움을 받았는가. 역지사지해보라.

달라이 라마가 성역일 필요는 없다. 그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격이 있어야 한다. 전쟁과 평화, 비핵화와 군비경쟁 중단과 같이 그가 평생 일관되게 언급 해온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어느 특정 발언을 그의 전부로 둔갑시키고, 거기서조차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몇 단어를 뽑아 비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장담컨데 교묘한 왜곡을 하지 않는 한, 달라이 라마의 가면을 벗길(?) 그런 진짜 팩트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가공한 거짓 정보 외에는.

이제라도 당사자가 부끄러움을 알길 바란다. 그게 달라이 라마뿐만 아니라 119명이 소신으로 중국정부에 항거한 식민지 티베트 민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社說

태고종 새 총무원장에 바란다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 前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이 당선됐다.

7월 18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제 2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총 146명 중 68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당선증을 교부받은 직후 도산 스님은 "애종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고종단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며 "종무행정을 개편해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문제를 종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태고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50여억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에 새 총무원장이 된 도산 스님의 어깨가 여느 때보다도 무겁다.

도산 스님은 이 문제에 대해 6월 18일 출사표를 던지며 "종단 부채는 가장 먼저 꺼야 할 발등의 불이므로 종단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통 기성 정치인들은 공약은 단지 공약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신뢰와 신망이 상징인 종교지도자인 총무원장은 부처님 앞에 맹세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에는 유권자가 기존의 3배가 넘는 146명이 참여했다. 유례없는 최대의 유권자였다. 그만큼 이번에 선출된 도산 스님은 종도들의 지지를 크게 얻은 셈이다. 9월 22일 시작되는 임기까지 이제 두 달여가 남았다. 그 시간 동안 태고종단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종무행정 투명화, 승가전통 회복, 종단 재정 안정 등을 3대 공약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그 약속들이 충실히 지켜지길 바란다. 그것이 도산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아준 종도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이제 4년간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찰 브랜드화는 시대 과제

유수의 기업들은 자신의 CI(Corporate Identity)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유는 자신들의 기업 철학과 가치를 이미지에 담아 고객들에게 전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계에서도 이런 CI가 활용되고 있다. 일명 'TI(Temple Identity)'다. 조계사의 경우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웅전에 있는 청사자와 신중단의 동진보살을 마스코트로 형상화했으며, 봉은사는 2008년 TI 선포식을 갖고 심볼마크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대표사찰로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 봉녕사는 2012년 7월 봉녕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TI를 만들었고, 한마음선원은 일찍이 TI를 활용하고 있다.

이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종단들은 자신의 문장을 이미지화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노력해 왔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일선 사찰들까지도 확산된 것이다.

이들 TI들은 사찰만의 특징을 형상화해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한 티셔츠, 책갈피, 명함, 배지 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토 장점이다. 적지 않은 사찰들은 이 같은 TI를 통해 포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는 교구본사나 대형 사찰 단위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교의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TI가 20~30년이 지나면 좋은 역사적 사료가 되기 때문이다. 대웅전이나 불상 등 전통적인 불교를 소재로 TI를 만들기 보다는 사찰의 특징을 살리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충고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도 이제는 필요한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의 특성을 브랜드화하는 TI는 불교를 대중화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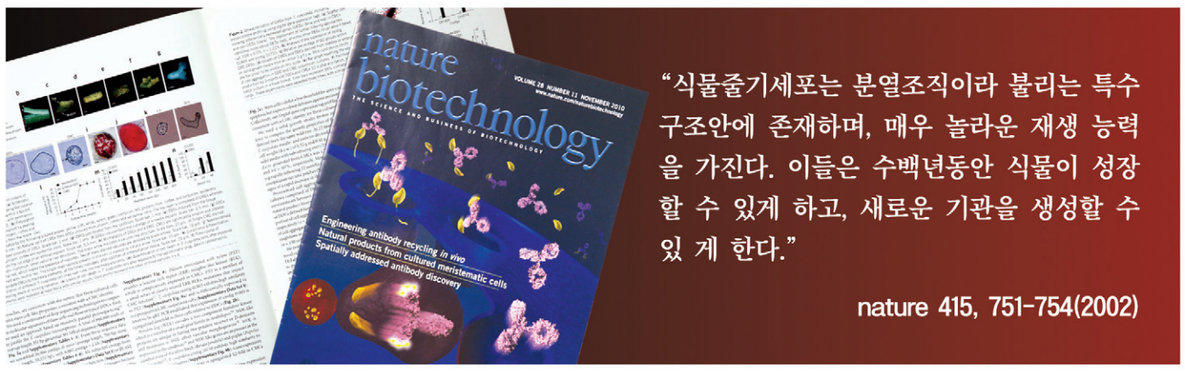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샘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



"식물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nature 415, 751-754(2002)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 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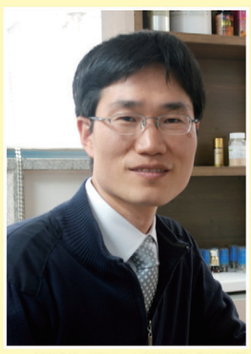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Green Certific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NET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9001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